



11

197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11호

(루게 361)



◆◆◆◆◆◆◆◆◆◆

## 차 례

◆◆◆◆◆◆◆◆◆◆

바치자, 충성의 한표를!	2
충성의 한길에서	3
무병장수의 나라	3
조국땅 그 어디에 가도...	4
흐르는 세월우에 명절날을 새겨주시고...	5
조국이여, 그대를 사랑한다	6
경포바다가에서	8
영원한 배움의 길	9
자주적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10
삶의 노래	15
래일의 주인들	25
그대의 모습은 멀어져가도... (외 2 편)	34
철길 만리에 꽃이 피네	34
그들은 두사람	35
수송선단 떠난다	36
들끓는 조국땅을 달리며	36
만풍년의 노래	37
산촌의 가을	38
늘쌍 내가 캐내는 석탄이건만...	39
포구마을사람들	39
중편소설 《뜨거운 일터》 (허춘식 작)	40
앞선 사람	41
3대혁명소조원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문제	48
사랑의 해비	51
그대는 웃으며 걸어가리라	52
금산령의 주인들	53
외우고싶은 시를 두고	60
행복의 락원	61

# 바치자, 충성의 한표를!

현장성

나날이 경사로운 이 강산에  
경사로운 선거의 아침이 밝아왔다

하늘이 들리도록 쌓아올린 황금난가리들...  
사랑의 해빛 넘치는 학교의 창문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쁨이 설레이는 거리거리에  
행복이 물결치는 마을마을에  
웃음어린 사람들의 물결이 흐른다

농악무로 흥성이는 선거장의 하늘높이  
펄펄 날리는 람홍색 공화국기발-  
우리러 다가설수록 뜨거워지는 가슴들이다.  
아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신  
혁명주권아래 누리는 이 행복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움에 목메이는 마음들이다

나라를 빼앗겨  
주권이 없는 탓에  
수모속에 짓밟히며  
노예의 피눈물을 삼키던 우리 인민들  
오늘은 나라의 주인으로  
공민의 권리를 마음껏 누려가거니

고마운 혁명주권이여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어  
은혜로운 그 손길아래  
우리 그 얼마나 높은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섰는가

자주와 창조의 쇠물빛 노을이  
세월의 그늘을 말끔히 가셔낸 이 강산,  
온 세상이 바라보는 주체의 락원에서  
민족의 슬기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며  
이 주권아래 우리  
그 얼마나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섰는것인가

감격에 목메이는 가슴을 안고  
우리는 소리높이 노래한다  
한없이 은혜로운 혁명주권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크나큰 긍지를, 더없는 영광을

노래한다  
강산에 서리였던 망국의 비운을  
찬란한 해방의 봄빛으로 가시여주시고  
유격구에 휘날리던 그 기발을  
조국의 푸른 하늘에 펼쳐주신 수령님의 그 은덕  
을...

새 조국 창건의 위업을 안으시고  
지나가신 만경대의 갈림길을 이어  
끝없이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  
준엄한 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걸음마다 주권의 소중함을 깨우쳐주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그 로고우에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의 행복은 꽃피어났거늘

오늘에 바치는 귀중한 이 한표한표에  
그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  
그 어떤 충성의 마음을 담으면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할것인가

바치자  
아버이수령님을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높이 모시던  
삼동면의 그 빛나는 아침으로부터  
조국의 년대기를 수놓으며  
바치고 바쳐온 충성의 한표다

아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받들어  
한목숨 기꺼이 바칠 우리의 신념이다  
주체의 조국을 길이 빛내여갈 우리의 맹세다

아, 아버지수령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힘  
위대한 통일단결을  
온 누리에 떨치며  
우리는 바친다, 찬성의 한표한표를!

# 충성의 한길에서

전찬기

해쫄는 아침이다  
하루가 시작된다  
봄빛 짙어가는 들길  
타빈이 우뢰치는 구내길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던  
하나의 소중한 생각을 안고 일터로 간다

하늘높이 종다리 우는  
새벽의 들관  
농장의 처녀는 이슬을 털며  
금나락을 가꾸려 두렁길을 걸을 때  
심심두메 험한 산중에선  
시간을 다투어 철탑을 일으키며  
그 불같은 진정을 다 바쳐가는 마음과 마음들  
하는 일 천만가지여도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단 하나의 념원으로 뜨거워라

머슴의 집에 머슴이 태어나던  
그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사람마다 영웅으로 자라는  
보람찬 이 시대를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일터로 간다  
수많은 강줄기가 흘러흘러 바다로 가듯이-

아, 얼마나 큰 행복이 이 땅에 넘치는가  
귀여운 애기를 안고 가는  
저 젊은 녀인의 웃음은 왜 저리도 밝고  
쏟아지는 쇠물빛이 붉게 어리어  
이글이글 타끓는 용해공의 눈빛은  
어찌하여 저리도 긍지높이 빛나는것인가

뜨거움이 북받치는 마음과 마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생각한다  
존엄높은 자주인간으로  
우리 인민을 높이 세워주시고  
주체의 해발 빛발쳐가는  
저 인류리상의 높은 언덕으로  
따사로이 안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품이어

한평생을 다 바쳐가시며 베풀어주시는  
한없는 아버지 그 은덕에 목메여  
바치고 또 바치여가는  
끝없는 충성의 거센 흐름  
이 땅 이 강산에 뜨겁게 굽이쳐라

하나의 철탑을 세워도  
한포기의 풍년나락을 가꾸어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  
우리 마음속 진정을 다 기울이거니  
오, 강산이여, 달려오는 미래여  
그이께서 펼쳐주시는  
위대한 구상을 받들어  
이 땅엔 삶도 투쟁도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 있는것이다!

우리 누리는 오늘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  
인민의 모든것을 의탁한 태양의 품,  
수령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충성의 한길에 청춘을 아끼랴  
대를 이어 바치리라  
천년만년 영원토록 기쁘심속에  
아버이수령님 길이길이 만수무강하시도록...

# 무병장수의 나라

구희철

행복이 어리인 푸른 하늘  
사랑이 차흐르는 락원의 땅,  
삶의 보람에 인민이 웃고  
젊음에 넘쳐 강산이 웃는  
주체의 조국이여!

푸르려 설레이는 숲에  
여울쳐 흐르는 강에

기쁨에 겨운 가슴에  
아버이수령님 사랑이 해빛처럼 넘치는 내 나라

그 사랑의 해빛아래  
강산이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살며  
무병장수를 노래하나니

어디에 가나 사랑으로 펼쳐진 무상치료의 길,  
어디에 가나 은혜로이 열려진  
무상치료의 문,

의사도  
병원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무상치료의 고마운 손길아래  
병을 모르고 사는 인민,

어느 산간마을에도  
어느 외진 섬마을에도  
마을과 마을 집과 집으로  
왕진의 길은 사랑으로 닿아있어라

사람도  
세월도  
설움에 묻혀 살았고  
병들어 살던 지난 세월을  
옛날처럼 외우며 우리 인민은 살아라

흘러가는 세월이 주는  
해와 해로 나이를 세며  
자신의 생을 두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우리의 가슴 뜨겁지 않으리.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 모든것이 있는  
주체의 해빛 넘친 내 나라  
영원한 청춘의 조국

이 땅에선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긴  
그 사랑의 해와 해로  
드는 나이를 세이며  
사람들은 늙음을 모르고 살아가나니

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짧어지는 강산  
짧어사는 인민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세상에 이런 나라 또 어디 있으랴

## 조국땅 그 어디에 가도...

한기운

내 집 떠나  
조국땅 멀고먼곳에서  
취재길에 처음 들렀다 가는 마을이건만  
이 아침도 떠나는 길 동구에 나서니  
다름없어라, 고향마을의 제집을 떠나는 마음

갈길이 멀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고  
밥밑에 《산삼》이 있다며 아침을 다 들라더니  
깨알쌈 찰밥이며, 과일구렁까지 안겨주는  
농장합숙어머니의 그 인정도  
내 어머니 그 사랑,

멀고먼 려정의 나날  
가는길, 오는길 차에 올라도  
마주앉은 용해공과 광부,  
머리 흰 할머니와 젊은 병사...  
어느덧 어머니 되고 아들이 되어  
판매원처녀 싣고온 팍팍 한 가마밥 아니어도  
한구들에 모여앉은 식솔인듯

바다멀리 외진 섬마을  
해빛 따사로운 사랑의 교실에 서있어도  
하나의 시간속에, 하나의 뜻으로 울리는  
내 집 아이의 글읽는 그 소리,

은혜의 그 노래소리,

그 어느 두메마을 병원에 들러도  
무상의 약이 있고  
그 어디 가나 이 땅우엔  
내 팔 걷고 하고싶은 일자리...

동해의 푸른 기슭을 달려도  
북변의 대야금기지 쇠물폭포  
인민의 기쁨으로 사품치고,  
서해기슭 천리황금벌 충성으로 설레어  
하는 일 그대로 제것이 되는 나라

아, 가는곳마다 들리는곳마다  
내 조국엔 아름다운 노래,  
노래에 담아야 할 락원의 행복 꽃핀,  
내 사는 땅은  
사람들모두다 자유로운 나라,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하나의 숨결로 뭉친  
이 사랑!  
이 화목!  
이 힘에 받들려

통성하는 나의 조국-강대한 이 땅을  
세상에 당할자 있으라!

노래하리라,  
내 한몸 바쳐 길이 사랑하리라  
집 떠나 멀리

그대 품 그 어느곳에 가있어도  
제 집으로 가는 마음 따로이 없는  
아!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나의 크나큰 행복의 집이여!

## 흐르는 세월우에 명절날을 새겨주시고...

림종근

하늘의 별무리가 다 내려앉았고  
바다의 진주보석이 다 피어올랐는가  
어부절을 맞는 포구의 주력거리  
아름다운 꽃불속에 잠기였구나  
소리없이 설레이는 밤바다우에  
웃음소리, 노래소리 끝없이 비껴가누나

즐거워, 한없이 즐거워  
가로등이 물우에 행복의 기둥인양 드리운  
잔교우를 거닐며 진정못하는 이 가슴에  
말 못할 기쁨이 파도쳐오누나  
아! 이 밤의 기쁨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 어부들의 명절을 마련해주신  
아버이수령님 사랑에 목이 메누나

먼 바다에 나가면 배전이 넘치도록  
갓가지 사랑의 선물 보내주시고  
물에 올라오면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양의 기쁨 안겨주시는 수령님!  
그이 품에서 맞고보내는 로동의 나날  
그대로 환희로운 명절이 아니더나

진정 나날이 행복한 명절이건만  
그이께서는 우리 어부들 위해  
즐거운 명절날까지 따로 정해주셨구나  
이름없는 우리 어부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 누리라고

아! 파도를 헤쳐 먼바다를 달리며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떼를 퍼내야 할  
조국의 귀중한 로동일까지 뚝 떼어  
흐르는 세월우에 어부절로 새겨주신  
수령님이시여  
이미 세상이 아는 사랑의 계선을 넘어  
겹겹이 덧쌓아주시는 아버이의 은정이여

깨진 쪽배만 파도에 부대끼고  
너인들의 통곡소리 가슴 찢던 그 옛날  
그 언제 명절이 있었더나  
태어난 생일마저 즐길수 없던 우리거니-  
목이 메여 수령님의 사랑에 목이 메여  
바다도 저리 설레며 잠 못드누나

그이께서는 우리 어부절만 아닌  
천만사람 제 직종에 따라 명절을 주시여,  
수억만년 레사롭던 세월이 통채로  
복받은 인민의 명절로 바뀌었나니  
우리 조국은 행복한 명절의 나라!  
이 땅우에 세월은 명절의 세월!

아아! 하늘에 땅에 바다우에  
겹겹이 짝 차흐르는 그이의 은정이여  
저 바다고기를 한꺼번에 다 퍼내며  
아버이수령님 위해 더 일하랴  
세상에 더 없는 조선의 밤이여!

# 조국이며, 그대를 사랑한다

김석주

해저무는 서산에  
포연은 흐르는데  
내 마지막 령길우에 걸음 멈추고  
오래도록 움직일줄 모른다

어둠 서린 저 골짜기만 넘어서면  
저기는 원썩들이 도사린 남녘땅,  
정다운 전우들의 품을 떠나  
적후투쟁의 먼길에 들어서는 몸

다시 한번 보고싶다  
오래도록 서있고싶다  
눈시울 뜨거이 더듬어가는곳  
멀리 해저무는 저 산너머  
내 떠나온 정든 땅-

잘 싸우고 돌아오라고  
원썩미제를 쳐부시고  
남녘해방의 날 우리 다시 만나자고  
따라서며 따라서며  
돌아설줄 모르던 전우들을 뒤에 두고,

사나이의 우정이 넘치던 중대병실  
앞장서 달리던 혈전의 언덕들...  
못잊을 생활의 그 모든것을  
아득한 저 멀리 뒤에 남기고

조용히 떠나야 할 몸이기에  
더는 바래줄이도  
맞아줄 사람도 없는  
간고한 투쟁의 길에 떠나자니  
더더욱 깊어지는 생각이며,

이러한 봄날의 저녁은  
작별을 앞둔 인간의 가슴에서  
이렇듯 추억을 자아내는가  
것을 찾아내리는  
밤새의 울음소리  
저 멀리 산모퉁이에  
정다움을 불러내는 저녁연기,

늘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덩굴 때는 내 다는 몰랐다  
가슴에 젖어드는 가벼운 바람도  
이러듯 향기로움인줄

한포기 들꽃 한그루 나무조차  
이렇듯 소중하고 귀중한인줄.

산발마다 불길에 그슬고  
골짜기마다 포연은 흘러도  
철은 어김없이 찾아와  
봄물은 앞손에 오르고  
꽃망울은 가지에 부풀었는데

양칼진 파편이 스치며  
즙액이 흐르는 애어린 소나무  
그 상처를 어루만지니  
가슴에서 분노가 터진다  
아, 다박술 아름다운 고향의 동산도  
너처럼 상처입고 봄을 맞으리

불길속에서도 포연속에서도  
이 봄 고향의 산기슭엔  
진달래 송이송이 타는듯 붉고  
봄보리는 푸르렀으리,  
철없이 맨발로 뛰놀던 강변  
벌거숭이로 덩굴던 그 은모래기슭에도  
버들개지는 하얗게 피었으리,

잘 있으라, 사랑하는 산천이며  
정다운 어머니품이며,  
이제 떠나면  
헐치 않다, 그대품에 다시 오는 길은-

순간마다 승냥이처럼 생명을 노리는  
적후투쟁의 피어린 나날-  
혁명가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상 못할 시련도 있으리  
비내리는 숲속의 쪽잠도  
격투의 거리, 추격의 산발도 있으리

원썩의 소굴에서  
사랑이 그리웁고 인정에 주릴 때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이  
혼자의 가슴에 묻어두고  
뒤척이며 잠 못드는 피로운 밤도 있으리

혁명에 바친 몸이기에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싸움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는 길

그러나 기어이  
기어이 이기고 돌아와야 할 몸

내 언제 이처럼 조국이며,  
내 언제 이 순간처럼 그대를 생각한적 있었던가  
이런 순간에야 다 알겠구나  
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리움도  
평범한 날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도

조국이며, 그대를 생각하면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그 자취는 가슴에 남아  
가물거리며 떠오르는 먼날의 추억  
그립고, 정다웁고 즐겁고, 행복하던 그 모든것

여름밤의 명석우에 덩굴던 그 시절-  
하나, 둘...  
초밤별이 돌아나던 먼 하늘가  
백두산의 장군별을 우러러 그리던  
그대는 어린날의 푸른 꿈이었다

아지랑이 감시르던 3월의 그 봄날-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쥔 아버지의 주름 많은 얼굴에서  
뜨겁게 흐르는 이슬방울에 젖던  
그대는 그날의 부드러운 흙이었다

나이 스물에 첫글을 익히며  
기쁨에 목메여 흐느끼며  
**김일성** 장군님께 절을 올리던 그날의 눈물이었고  
날이 새는줄 모르던  
첫 사랑의 버들푸른 동쪽길이었다

삶의 보금자리였고  
꿈의 요람이었다.  
나이 들고 철이 들수록  
내 더욱 뜨겁게 알겠더라  
무엇때문에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아낌없이 바치는가를

항일의 긴긴 성상  
갓은 풍상고초를 다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  
목숨보다 귀중한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이 한몸 바쳐 다함없을 그대

정든 사람 그리운 벗들이

이 땅에 흘린 더운 피 스며있고  
내 아낌없이 바친 땀과 노력이 깃들어있어  
나의 피와 땀을 아끼듯  
조국이며, 내 그대를 사랑한다

그리워, 그대품이 그리워  
못살아, 그대없인 못살아  
더운 고장에 떠나갔던 철새들도,  
말못하는 그 날짐승조차  
이 봄 그 몇몇 국경을 넘어  
그대품에 찾아와 보금자리 틀 때건만,

이 봄 내 결전의 길로 떠나가리  
그대의 절반 땅이  
침략자의 발굽밑에 몸부림치고  
정답고 친근하고 소중한 그 모든것이  
부서지고 쓰러지고 불타는데  
조국이며, 아껴둘 목숨이 어데 있으랴

간고한 시련의 이 봄도 가고  
투쟁의 여름도 지나  
가을이 오면... 상처입은 산천에도 열매 익는  
가을이 오면  
내 승리의 보고를 안고 돌아오리

피의 고개 총칼의 숲을 헤쳐  
미제를 족치고 이기고 오는 날  
장한 이 아들들,  
오랜 싸움의 날에 억세어진 이 가슴을  
그 품에 안아달라

울며 웃으며  
그대 부드러운 흙에 불을 비비며  
그대 잔디 고운 언덕에 덩굴적에  
다 자란 이 아들의 응석을 받아다오

잘 있으라  
저 멀리 가물거리는 마을의 불빛이며  
그리운 사람들, 정든 땅이며  
내 어디 가나 비겁하지 않으리라  
부드럽고 강의하고 슬기로운  
조국의 품에서 자란 이 아들들

이 한몸 바치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이 한몸 결전에 바치리라  
조국이며!  
사랑하는 조국이며!



## 경포바다가에서

철창속에서도  
어둠을 사르시며 누리를 달리시던  
선생님의 그 불같은 열정을 안았는가  
파도 부서지는 경포앞바다  
저 멀리 수평선 끝까지  
희끗희끗 일어서는 흰 물결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

저 바다를 향해 뻗어내린 험한 산발들우에  
조선의 기상을 떨치며 오신 발자욱소리  
오늘도 귀기울이면 들릴듯  
내 마음은 준엄한 총성이 메아리치던  
절부암의 이끼덮인 바위를 어루만진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낮선 광야에서  
나라를 빼앗긴 비분에 찬 눈물로  
애국의 칼을 버리신 김형권선생님  
장군님 무어주신  
조선혁명군의 첫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파도치는 이 기슭을 밟으셨나니

누리에 붙는 불이시였다  
캄캄한 민족사우에  
위대한 장군님 밝히신 주체의 해불을 추켜드리고  
조선의 산야를 달리신분

해빛을 그려 피타는 가슴들에  
해방의 밝은 러명을 안겨주시며  
민족의 넋을 깨우치시던 그 음성,  
짓밟힌 겨레의 원한을 재워  
높이 권총을 비껴드리고  
강도일제를 징벌하시던 그 기개,

오, 무장을 잡은 조선의 첫모습이 아니었던가,  
온 겨레를 장군님 두리에 묶어세우며  
어두운 하늘을 뒤흔들던 퇴성  
대덕산, 범바위굴,  
리원의 높낮은 산발들에  
상기도 섬광을 뿜으며 비껴있는듯

선생님께서 넘나드신 북방의 산악이  
세월의 구름발을 헤치고 나의 눈앞에 일어서누나

언젠가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시고  
다시 가시리라던 만경대고향집을  
철창너머 그리운 하늘밑에 두시고  
온갖 고초를 이겨가시던 옥중에서도  
철쇄에 묶인 겨레들이  
더더욱 가슴아프시여 잠못드시던 선생님

아, 조국이 겪는  
그 무거운 고통을 한가슴에 안으셨기에  
원썩을 무찌르는  
누리에 붙는 불로 타오르셨던가  
서러운살 젊으신 그 나이  
그 고귀한 생애를 바치시여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산천  
백배로 귀중하구나

푸른 해변에 부서지는 천만 이랑이랑  
동해바다가 해빛을 떠이고 일어선다  
대륙의 거친 눈바람에 젖으시던 그 가슴을  
저 싱그러운 태풍에 맡기신채  
오래도록 서계셨을 선생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내 마음 숭고함에 가득찬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찬란한  
이 행복한 날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그토록 험난한 혁명의 설한풍속에 한평생을 보내  
셨거니  
내 눈물어린 온 마음으로  
선생님의 높이신 뜻이 해일처럼 안겨오는 바다가  
를 걸어간다.  
그 고귀한 념원이 꽃피여 바다인양 설레이는  
이 조국을 위해 내 목숨은 있어라  
수령님의 전사로 이 땅에 사는 나의 행복은 있어  
라

변홍영

# 영원한 배움의 길

리일복

노을 비낀 공장구내에  
교대고동이 정답게 울리면  
즐거운 발걸음들이 이 길에 오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 없이...

용해공 박동무는 공장대학으로,  
선반공 김동무는 전문학교로,  
또 누구는  
근로자고등중학교로, 도서관으로-

즐거운 로동의 하루에 이어  
다시 시작되는 배움의 하루여!  
로동과 배움이 한데 어울려  
나날을 기적으로 수놓는  
희망의 길, 혁신의 길이어!

이슬 구르는 아침  
이 길우엔 작은 꽃신자옥들이 찍히었다  
학교 가기전부터 배움의 기쁨 맛보는  
유치원 높은반 귀염둥이들과 함께  
학생들의 씩씩한 발걸음들이  
우렁찬 노래속에 이 길로 흘러갔다

활짝 열린 배움의 큰 문을 향해  
아들이 걷고 아버지가 걷고  
할아버지가 걷는 길,  
어머니와 딸과 남편이 함께 걷는  
자랑스런 길,  
걷고걸어도 끝없는  
한생을 걸어도 싫증을 모르는  
행복으로 뻗은 보람찬 이 길!

길은 있어도  
배움의 길은 없었던 어제날  
고역에 지친 발걸음만이  
무겁게 흘러가던 이 길이었다.  
돈과 권세에 교육이 희롱당하던 그때  
먼지처럼 짓밟히던

무산자들의 한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론 해빛아래  
배움이 진정 인민을 위한것으로,  
배움이 진실로  
자주적인간의 정신적량식으로 된 그날부터  
이 길우에 넘쳐흐른 희망찬 발걸음들-

배움으로 억세여진 용해공의 손에선  
용광로가 나날이 쇠물을 더 쏟았다.  
배움으로 밝아진 로동자의 눈앞에선  
자동화의 금빛단추가 힘든 일을 대신하고  
더 빨리 미래가 앞당겨졌나니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배움은 그대로 기쁨이며 노래,  
배움은 그대로 혁신의 원천이였고  
창조의 원동력,  
존엄 높은 인간의 삶이었다

아! 태어나자 행복이 기다리는 땅우에  
나이 되자 반겨 맞아주는 배움의 꽃대문,  
누구에게나 권리로 되고 의무로 된 배움속에  
한생을 마칠 때까지 걸어갈  
위대한 수령님 열어주신 영광의 길이어!

사회주의교육체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문명한 로동계급의 진로우에  
끝없이 펼쳐진 창조의 길,  
한생을 걸으며  
자주적인간의 삶을 누리고  
정치적생명을 빛내게 하는  
이는 영원한 배움의 길!

이 길은  
주체형의 인간을 키워  
공산주의사회로 곧바로 넘겨주는  
혁명의 지름길이어라

## 자주적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럼희래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그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이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한 기본요구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체적문제리론은 문학이 인간학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이 인간성격들과 그들의 호상관계를 통하여 인간문제 즉 사람이 어떻게 살며 투쟁할것인가를 밝혀주는데 있는것만큼 우리 문학예술은 웅당 인간과 그의 생활을 묘사의 기본대상으로 하고 형상의 중심에 자주적인간을 내세워야 한다.

자주적인 인간을 중심에 내세워야 우리 문학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옹계 구현할수 있다. 력사의 새시대인 주체시대인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여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자주적인 인간은 주체시대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자주적인 인간을 형상의 중심에 놓고 그리되 주인공들의 사상과 지향, 감정과 정서, 그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그려내는데 묘사의 기본을 두어야 한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오한 해명을 주었으며 인간성격의 주도적특질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의 사회계급적본질을 밝힐데 대한 문제 그리고 성격을 생활론리에 맞게 다면적으로, 개성적으로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등 성격창조의 기본원칙들을 깊이 밝혀주었다.

자주성을 지니고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있는 인간성격의 주도적특질을 밝히는것은 인간학의 첫째가는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를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적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창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회정치적생명을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는 자주적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을 옹바르게 창조할수 없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이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 자주적인간의 참된 전형의 근본표징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육체적생명은 불어있어도 정치적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자주시대에 사는 사람측에 들수 없으며 사람값에 가지 않는것이다.

자주적인간을 그리면서 정치적생명을 취급해야 되는 원인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투쟁을 끝까지 할수 있는 담보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숭고하고 보람찬 혁명투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투쟁에는 정치적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끝까지 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이로부터 자주적인간의 전형,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것을 최상의 영광과 행복으로 생각하는것이다.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다시말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혁명적지조를 옹계 보여주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에서 기본으로 된다.

자주적인간의 정치적생명을 옹바르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할 때라야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주적인간의 주도적특질은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 시

대 자주적인간의 가장 숭고한 품성이며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형상하기 위해서는 또한 계급적바탕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간의 성격창조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시대, 어떤 처지에서, 어떤 계급적토대에서 자라난 인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공산주의인간학이 그려야 할 인간성격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그의 정치사상적특성이다. 인간성격의 이 본질적특성은 시대와 사회, 그들의 계급적토대와 처지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된다.

그러므로 생활의 진실과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그리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고있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성격창조에서 그의 사회적계급적본질을 뚜렷이 밝혀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인공이 처한 시대와 사회, 그의 계급적토대와 처지,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상의식과 그것이 사회력사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높은 정치적안목을 가지고 로동계급적선을 세워 예술적으로 심오히 그려야 한다.

그래야 창조된 성격이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 사는 사람의 성격이며 어떤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고 따라서 그의 성격적특질을 본질적측면에서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의 참된 교과서, 사회와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문학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은 주인공들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하여 생활을 다양하게 그리면서도 생활속에 있는 정치와 그 집중적발현인 그의 정치사상생활을 두드러지게 그려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성격을 부각하는데 있어서 그의 생산활동이나 혁명과업수행의 실무적과정을 묘사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그의 정치사상생활을 부각해야 하며 그의 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그가 혁명조직에 의거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럴 때만이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신념화, 신조화할뿐아니라 그의 철저한 옹호관철을 위하여 당조직의 지도를 받으면서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성격적특질을 생활에서처럼 진실하게 그릴수 있는것이다.

주인공의 정치사상생활을 부각할 때 생활속의 정치를 그릴수 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주인공의 당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며 그의 다양한 성격적특질도 뚜렷이 밝혀지게 되는것이다.

문학예술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을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

주인공을 인간답게 그린다는것은 추상화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에서 보는 산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형상으로,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형상은 그 어떤 진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추구하는 창작태도로써는 도저히 창조할수 없다.

이러한 인간형상은 어디까지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때에 참답고 옳바르게 창조할수 있다.

우리 문학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가장 힘있고 아름답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해야 우리 문학은 생활과 력사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고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에게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우리 문학이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며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옹계 밝혀내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것입니다.》**

자주적인간의 성격적특징은 혁명적세계관을 지니고있는데 있다.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질수 있으며 모든 사물과 현상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바쳐 나설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지 못하면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주적인간으로 될수 없다.

그런데 사람을 자주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 혁명적세계관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것도 아니며 저절로 세워지는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꾸준한 사상교양과 실천투쟁을 통한 사상의식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야 형성되고 공고발전될수 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의 세계관형성은 단번에 되는것도 아니고 또 단순하게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정한 축적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착취사회와 착취제도의 부패성을 깨닫게 되고 다음에는 그를 증오하고 마감에는 그것을 때려엎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헌신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는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뚜렷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생활의 논리에 맞게 순차적으로 그의 혁명적성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그러므로 성격은 순차적으로 생활적논리성을 가지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 작가가 이러한 생활의 논리를 무시하고 제마음대로 취급해서는 자주적인간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없다.

성격이 생활논리에 맞게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성격발전,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의 합법칙성이다.

이러한 생활의 논리와 성격발전의 합법칙성을 어길 때에는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없고 따라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는데 이바지하는 인간학으로서의 혁명적사명을 다할 수 없다.

문학은 인간학인것만큼 작가들은 창작에서 인간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들 즉 투쟁에서의 우여곡절과 간고성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문학을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주인공이 겪는 생활의 시련과 간고성을 보여줌에 있어서도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그저 설명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과 간고성 앞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사상적립장을 취하며 시련과 간고성을 극복하는 과정에 그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의 성격이 어떻게 발전되어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주인공에게 어떤 생활로정과 운명선을 주는가 하는것은 그의 성격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그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주인공에게 생활과 투쟁의 우여곡절과 간고성을 겪게 하는것은 인간성격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기와 성격발전의 매듭을 지어줌으로써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논리와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진실하게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우여곡절과 그 간고한 체험과정을 잘 보여주는것이 곧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잘 그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의 중요한 요구는 또한 생활을 옹계 반영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문학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린 작

품이라야 실감이 있고 흥미가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생활에는 이러저러한 비본질적인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 하더라도 작품의 기본형상체계에서는 본질적인것, 전형적생활을 확고히 틀어쥐고 정책적인 대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당정책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생활을 탐구하고 그를 당정책적립장에서 그리는것은 생활반영의 기본요구로 제기된다.

이 요구는 우리 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는 사상적무기로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작가들로 하여금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며 전형적인 생활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침으로 된다.

생활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그리지 않을 때에는 사회본질과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게 되며 따라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상적무기로서의 문학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될 수 없으며 그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작가는 높은 당정책적안목을 가지고 당정책적립장에서 생활을 탐구하고 분석평가하며 정책적대를 세워 진실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려야 한다.

항일유격대나 인민군대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군사활동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든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생산활동만 일면적으로 보여주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자주적성격을 옹계 형상할 수 없다. 자주적인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들의 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들은 군사활동이나 생산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며 가정생활도 한다. 생활을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묘사해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그릴 수 있고 혁명가의 고유한 품모로 되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통일시켜 형상할 수 있으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옹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형적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주는것은 자주적 인간성격창조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이다.

문학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또한 세부화해서 묘사해야 한다.

작가가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 그리려고

하면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건을 그저 라렬하거나 거창한 생산투쟁을 보여주는데 매달린다면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주적인간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그것을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힘을 들여야 할것이다.

자주적인간의 생활은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속에서만 뚜렷이 밝힐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면 생활은 얼마든지 찾을수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없이 생활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은 또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만 밝혀질수 있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호상관계에서 발생, 발전하는 인간문제를 그려야 하는것만큼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문학이 인간관계를 옳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인간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엮어나가며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얹히게 하여야 한다.

문학이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작품에는 반드시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피상적이며 일반적인 생활묘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얹혀져야 한다.

문학적이야기란 생활적인 이야기가 작가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재창조된 이야기를 말한다.

문학적인 이야기로 된다는것은 작품의 종자를 밝혀내기 위하여 주인공의 생활과 운명선을 깊이 파고들며 시대와 생활의 본질이 드러날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엮어나가는것을 말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등장인물들의 생활을 떠나서 맺어질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을 깊이 파면 팔수록 다양하고 극적인 인간관계를 찾을수 있으며 또한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어야만 다양한 생활을 깊이있게 그릴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는것은 산인간을 생동하게 개성화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생활과 인간관계의 호상관계를 심오히 밝혀주는 주체적문예리론에는 인간관계는 작가의 그 어떤 고안에 의하여 설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활에 대한 깊은 파악과 탐구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며 생활의 심오한 반영은 인간관계의 옳은 설정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독창적으로 새롭게 천명되어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인간관계설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적선을 옳게 세우는것이다.

인간관계설정에서 정치적선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였을 때 사회적본질과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게 되며 작품의 교양적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정치적손실까지 보게 된다.

인간관계설정에서 정치적선을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에 확고히 서서 사회의 본질과 생활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먼저 그 인간관계의 설정이 우리 인민들을 당정책적견지에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옳은 정책적안목을 가지고 정치적견지에서 인간관계를 전형화할 때만이 작품의 높은 정치사상성과 예술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다.

인간관계를 그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이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혁명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적견지에서 맺어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이럴 때만이 그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옳게 부각할수 있고 주인공들의 성격의 특질도 훌륭히 부각할수 있는것이다.

인간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또한 주인공을 축으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주인공의 생활흐름과 운명선에 묘사를 집중시켜나가야 한다.

주인공은 작품의 주제사상을 체현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이여의 인물들과의 호상관계에서 축을 이루는 중심인물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주인공의 생활을 두드러지게 그리며 언제나 주인공을 작품의 줄거리의 중심에서 있게 하며 줄거리와 얹음새의 발전은 주인공과 기타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로써 나타나게 하여야 하며 묘사를 언제나 주인공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주체형의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 부각시킬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뚜렷한 과제를 주는것이다.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크거나 작거나 뚜렷한 과제를 주어야 그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혀지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매개 등장인물들에게 형상적과제를 줌으로써 그들이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천명에 각이하게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종자의 요구와 형상의 론리에 맞게 매개 등장인물들에게 과제를 똑똑히 주는것은 인간관계설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래야 매개 인물들의 개성과 생활도 다양하고 생동해지며 인물성격들의 류사성을 극복할수 있

는 담보가 마련되며 인간관계자체가 또한 사회적 본질과 생활의 진실이 드러나게끔 뗫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관계설정에서 불필요한 세부들을 없애게 한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서 산 인간의 전형적성격창조를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라고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그리되 구체적으로는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다.

자주적인간성격의 본질적특성은 주로 그의 사상과 감정, 정서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자주적인간의 감정선의 정확한 파악과 탐구를 떠나서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행동선과 심리에 토대하여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공산주의인간학창조에서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감정조직을 잘해야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드러내며 인간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다.

그런데 감정과 흥분은 어디까지나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정조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제를 깔아주어 감정의 생활적인 축적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감정축적을 잘하는것이 작품에서 초점을 명백히 하고 심리정서적극성을 부여하며 성격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부각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하고 사상정서적흐름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감동을 돋구는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창조에서 감정축적을 잘해야 하는것은 우선 인간심리발전의 합법칙성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생활에서 전제없는 감정과 흥분은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전제를 충분히 깔아주면 줄수록 그것에 의하여 야기되는 감정과 흥분은 더 커지고 강렬해진다. 이것은 인간심리와 정서의 변화발전의 논리이다.

또한 감정축적을 잘하는것은 극발전이 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기때문이다.

극의 흐름은 곧 사상감정의 흐름이며 상승발전이다. 극의 흐름은 굴곡없이 상승하는것이 아니라 극적인 매듭(대목)들을 거쳐 발전한다. 이 대목들은 사건과 인간관계발전의 중요한 계기와 국면들이다. 이 극적계기와 국면(노리는 대목)들은 생활의 축적 다시말하여 감정의 축적으로써 마련되며 따라서 생활의 축적과정은 극조직에서 감정과 흥분의 전제를 깔아주는 중요한 형상과정으로 된다.

감정축적을 잘해야 작품의 구성을 짜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들의 운명에 대한 극적

인 긴장성과 기대를 가지게 하며 극적인 국면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극발전에 따르는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극조직의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그런데 작품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감정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선이 없으면 지루해진다. 따라서 감정조직을 곡선이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는 극의 흐름전반을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극발전에 따르는 서로 다른 계기와 국면들에서 각이하게 변화된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 즉 감정의 굴곡은 인간의 사상심리를 반영하는 구체적표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의 굴곡을 잘 보여줌이 없이는 진실하고 생동한 성격을 창조할수 없다.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감정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극의 흐름을 타고 변화발전하는 감정의 굴곡을 깊이 있고 섬세하게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감정조직은 생활의 축적 다시말하여 사건과 인간관계의 발전에 따르는 인간심리와 정서의 흐름을 밝혀내는 형상작업이다.

문예작품의 진실성과 심오성은 인간의 본질과 사상감정의 움직임 즉 내적인 체류세계를 드러내는 인간의 심리와 정서적흐름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지 않고서는 보장할수 없다.

사람들의 심리정서적변화는 처음부터 직선적으로 고조되는것이 아니라 극의 상승발전과 생활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섬세한 곡선을 그으면서 발전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감정선을 진실하게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려내며 감정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그 굴곡을 잘 보여주는것은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감정조직에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갈수 있도록 매 장면에서 다 주인공에게 초점을 주는것이다.

주인공에게 초점을 주어 그의 감정선을 파고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우선 주인공에게 초점을 집중시켜 극발전에 따르는 그의 사상정서적흐름을 두드러지게 밝혀냄으로써 주인공의 성격과 그 운명선을 부각해주며 주인공의 운명선을 탄 그의 심리정서적흐름과 작품의 양상에 맞게 기타 인물들의 심리와 정서의 분배와 전일적인 조화를 실현해주며 또한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명백하게 해준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이밖에도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형상방도를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문예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삶의 노래

윤원삼

혁명소조원 차정수는 도면들이며 계산지들이 널려져있는 넓다란 책상을 마주하고있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무엇인가 쓰고있는 그의 손등에 아침 햇빛이 비쳐들었다. 긴 손그림자를 달고 연거퍼 종이를 갈아대며 적고 지우던 그는 온밤 연필이같이 무거워진 머리를 쉬우려고 책상에서 물러났다.

뚜벅뚜벅 창문가로 다가간 차정수는 바오래기같은 고드름사이로 멀리 흰구름 감도는 탄출봉을 바라보았다. 연연히 늘어진 산줄기들을 걷어안고 우뚝 솟은 저 봉우리를 물고 얼마나 많은 탄맥들이 뻗어져있는가. 지심깊게 충충으로 깔려있는 기름진 탄밭들이 눈덮인 숲이며 탄광마을을 떠이고 발밑을 지나갔다. 정수는 수림속에서부터 멀리 바다로 달려나간 살 두터운 후층탄맥이므로 낮은 박층발의 고열탄맥들이 앞을 다투며 눈앞에 다가오는것만싶었다. 그러자 금시 피로했던 머리가 맑아지며 기분이 개운해졌다. 저도모르게 느슨한 미소를 지은 정수는 땅속의 보물들을 꿰뚫어보려는듯 방바닥에 시선을 주었다. 가볍게 뒤집을 진 그는 기름진 탄밭을 발목이 시도록 다너보는 심정으로 방안을 왔다갔다 했다.

이때 출입문이 열렸다. 겨울날의 찬바람을 앞세우고 기사장 주현석이 들어왔다. 이마가 번듯하고 코마루가 날카롭게 생긴 현석은 전에없이 병글거렸다. 작업모를 벗어 방수직배낭결에 걸어놓는 그의 잔등에서도 웃음집이 흔들거리는것만 같았다.

《허허허 참, 소조원동무를 만날적마다 배낭부터 보게 되는군.》

현석은 말코지에 걸려있는 방수직배낭을 슬쩍 건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정수는 이상하게 들뜬듯싶은 기사장을 의아쩍게 여겼다. 하지만 현석은 오늘따라 더욱 신명나게 말했다.

《소조원동무, 요즈음은 정말 일할 재미가 있습니다. 저-길 좀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저탄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구배심한 철길을 따라 탄을 듬뿍 싣고 오르는 탄차들을 가슴이 후련하게 바라보았다. 순간 정수는 그를 만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며칠전이었다. 정수가 백양나무들이 우거진 한적한 탄광역에 내린것은 이른아침이었다. 옅은 운무가 서린 역구내를 나오고있을 때 나드는데

서 기다리고있었다는듯 삼십대의 젊은 동무가 다가와서 활달하게 물었다.

《탄광에 오는 소조원동무가 아닙니까?》

정수는 자못 당황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알고 역에까지 나왔을가싶었지만 자기를 대뜸 알아보는것이 더욱 놀라왔다. 그러나 현석은 놀랄것이 없다는듯 정수의 가방을 훑끔 보고나서 서글서글하게 말했다.

《땅속의 탄밭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간데라를 들고 온 혁명전위를 몰라보겠습니까?》

제가 태양갱 기사장 주현석입니다.》

(주현석이라니?)

정수는 또 한번 눈을 홑떴다. 10년전에 낮모르는 그에게 가슴아픈 편지를 띄웠던 정수였다. 얼핏 그때가 생각난 정수는 인차 굳어진 표정을 감추고 현석의 손을 마주잡았다.

《지금 온 탄광이 3대혁명붉은기정취에로 펼쳐나섰습니다. 소조원동무가 오니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현석은 힘있게 잡았던 정수의 손에서 하얀 손자리가 없어지기도전에 간데라가 보이는 가방부터 앗아쥐었다. 거리로 나선 현석은 앞서 걸으면서 아침 연기를 말아올리는 굴뚝숲 너머로 어슴푸레 보이는 저탄장의 탄더미를 가리켰다.

멀리에서 보아도 유표하게 높이 솟은 현석이네 탄더미를 바라보는 정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온 나라를 덥혀주고 힘을 주는 우람한 탄더미를 쳐다보면서 부강한 조국을 생각한 정수는 우썃우썃 힘이 솟았다. 현석은 패기어린 정수와 손발이 걸맞을것 같았던지 결패사납게 말했다.

《뭉니뭉니 해도 뽕잡는게 매라고 그저 저놈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구실을 합니다.》

현석은 또 한개 중대는 년말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길것이라 하면서 끝나는차로 캐먹기 쉬운 《노다지밭》에 돌릴 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탄더미가 얼마나 더 높아질가 더듬는것 같더니 저 혼자 꺾꺾거렸다. 정수는 현석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다.

《소조원동무도 이제 그런 눈이 생길겁니다. 우리 탄부들은 저 탄더미를 보고 자기를 돌이켜봅니다. 탄부의 보람은 바로 저 탄더미가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탄부의 보람은 탄더미에 있다? 결국 탄더미를



높여야 보람있게 살수 있단말이군!)...

정수가 이렇게 감탄했던 그때를 더듬고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드렁드렁 울리었다. 저탄장으로 올라가던 탄자들이 지심을 울리며 탄을 쏙고있었다. 가뜩이나 웃음집이 흔들거리던 현석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소조원동무, 이번엔 그 번대머리 령감에게 맞장훈을 불러야겠습니다.》

(맞장훈을 놓다니?)

사흘전에 화력발전소 업무부지배인이 찾아와 추가계획을 물려달라고할 때 《용광로나 보이라 입엔 통나무를 맥일 작정인가?》고 딱 잡아챈 기사장이었다. 정수가 어리둥절해하자 현석은 방도가 생겼다는듯 자신만만해하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3중대가 벌써 년간계획을 끝냈습니다. 그들을 <노다지발>에 돌리면 저 탄더미가 저런 정도가 아닐겁니다.》

현석은 부에 가서 합의를 보고 찾아오겠다는 업무부지배인을 다시 만나 《좀 보우, 우리도련대적혁신을 일으켰단말이요.》하는듯 저탄장을 바라보았다. 정수는 비로소 엄청나게 높아질 탄더미에 올라앉은것 같은 현석의 류다른 기분을 리해하였다.

《참 소조원동무가 저번날에 준 도면을 다 보았습니다니까?》

현석은 지금 정수의 책상우에 깔려있는 《노다지발》도면을 찾았다.

(음 당장 불일 작정이군.)

정수는 선풍 대답할수 없었다. 충충으로 매장되어있는 탄밭들중에서 먼저 《노다지발》을 캐내면 그우에 있는 고낮은 박충발이 녹아난다. 밑이 궁근 박충발은 점차 무너져내리면서 두부모같이 동강나고만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고열탄밭이 영영 없어진다. 결국 현석은 탄더미를 높이려고 귀중한 고열탄밭을 버리자고 한다. 탄더미를 이렇게 높여야 하는가 싶은 정수는 현석이가 그렇듯 기쁘게 바라보던 저탄장의 탄더미가 전에없이 가슴아프게 보이였다. 현석은 묵묵히 서있는 정수가 의심쩍었던지 꺼꺼부정 일어나서 책상우의 도면에 눈길을 주었다.

(아니?)

《노다지발》도면은 10년전에 씨름했던 박충발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만에 깔려있지 않는가? 방금전까지 모대긴듯한 여러장의 종이장들에는 이미 집어던진지 오랜 박충발 채탄기며 알지 못할 수치들이 빼곡이 차있었다. 현석은 그가 지금 7편도의 《노다지발》보다 박충발에 몰두하고있다는것을 대뜸 알았다.

무안해진 현석은 자기가 설계한 도면이 이렇게 묻혀버릴줄은 몰랐다.

기술과 지어는 생활의 신념마저 무시당한것 같은 현석은 일순 고깝기도 하고 허구프지도 했다.

《허 참.》

현석은 어처구니없어 털썩 주저앉았다.

(아직 젊고 경험이 적으니 그럴수도 있지.)

현석은 정수나이때의 자기를 돌이켜보며 될수록 너그럽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일은 간단치 않았다. 이런 경우를 예견해서 일전에도 몇번 박충발문제를 꺼냈을 때 탄고가 낮은 박충발은 로동조건이 불리함으로 투자와 생산간의 경제적 균형을 맞출수 없다는것을 번마다 알아듣게 말해주었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저렇듯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니 고집이 이만저만한것이 아니다. 분명 박충발을 캐보자고 나설것이 틀림없다.

현석은 《노다지발》을 캐내어 탄더미를 부쩍 올리려던 애초의 타산이 저 도면같이 놀리울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금방 건잡을수없이 흠족했던 기분도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침울해진 그는 얼얼불은듯한 입을 힘겨웁게 열었다.

《소조원동무, 우리에게는 결의과제가 있습니다. 맡겨진 과제도 씨원히 제끼지 못하는 주제에 버려도 무방한 박충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석은 그 후과를 생각해보라는듯 이렇게 물었다. 탄더미를 높이지 못할것은 물론이지만 이미 10년전에 실패했던것처럼 술한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고 물러앉을것이다. 그는 가슴에 인박힌 옛상처가 금시 도질것만 같아 시름겨운 눈길로 정수를 바라보았다. 마주보는 정수의 맑은 눈은 탄광 매장량의 거의 절반을 좌우하는 박충발을 버리는것은 하나의 큰 탄광을 매몰하는것과 같다고 말하는것만싶었다.

현석은 가슴이 섬찝했다. 탄광을 버리다니? 내가 탄밭을 몰라보는 사람인가? 수많은 박충의 고열탄을 파묻어버린 현석이었으나 그는 이 물음에 너무나 놀라왔다. 가슴이 뒤숭숭해진 현석은 눈을 꼭 감고 오래간만에 살아나는 마음의 충동을 그대로 몰아갔다. ...소조원동무의 말이 옳지. 탄을 보고 사는 사람으로선 도저히 그럴수 없어. 박충을 캐야 해.

짜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량심에 온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실태의 요구에 순응하여 말썽없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큰일을 말할수록 심장이 커야 한다고 인정한 현석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피로운 모대김에서 깨어난듯 눈을 번쩍 떴

다.

《소조원동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겠 습니다만 그럴수 없는 경우야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이 중한것입니다.》

정수는 야릇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하지만 마 구 의심하기도 피로운 정수였다. 그는 어수선헌 지는 마음을 진정하며 될수록 차분히 말했다.

《기사장동무, 자기 일, 자기 과제란 우물속의 물과 같이 피여있는것이 아닙니다. 저수지물이 벌을 적시듯 흘러갈수 있는것이 되여야 합니다. 박충발을 포전이라 생각하고 생명수를 보냅니다.

로동자들은 박충발에 대한 기술적담보만 주면 벌써 10년전 그때에 했을것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술적담보를 줍시다. 기계를 넣잔말입니다.》

현석은 푸-한숨쉬고 시름겹게 말했다.

《그렇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조원 동무는 혹시 무슨 방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까 만 리론과 실천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조원동무가 적어도 이미 여러해전에 시도했다 가 실패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현석은 조용히 일어났다. 정수는 멀어져가는 현석의 걸음걸음을 마음으로만 돌려세우고있었다.

× ×

어느날 갱구앞 인차정류장에서 밤교대 탄부들이 군데군데 모여서서 박충발을 캐내기 위한 토론을 벌리고있었다. 어떤측들은 벌써부터 화력발전소 로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석탄을 보내게 되었다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이런 말이 들릴 때마다 발전소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탄부들에게 에워싸여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주던 정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곤했다. 기사장과는 너무나 다르게 숨쉬는 탄부들이었다.

힘이 솟은 정수는 탄부들속에서 현석을 찾아보았다. 그는 현석이와 함께 10년전에 캐보았다는 박충발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던것이다. 하지만 현석은 좀체로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든 정수의 눈앞에는 박충마구리로 가보자고 할 때 놀라던 현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근 10년이나 버려둔 고굴로 들어간다는것은 천만 위험한 일이라 하면서 마다하던 현석이었다. 더구나 그는 탄광일에 익지 못한 소조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심히 망설이지 않았던가.

인차를 세번씩이나 보내며 정류장에 남아 현석을 기다리던 정수는 마지막 인차가 자기앞으로

미끄러져오자 배낭을 지었다. 안전모를 눌러쓰자 현석을 기다렸던탓인지 《안전모를 그저 눌러 쓴다해서 좋은건 아닙니다.》 하면서 받치개를 조절해주던 일이 생각났다. 사실 현석은 늘 함께 입강할 때면 작업복차림을 한 정수를 은근히 살피며보면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 그런 현석이 더듬어지자 정수는 자기를 떨켜놓고 저혼자 고굴로 들어간것같기도 했다. 하긴 그도 요즈음 박충발을 두고 여러모로 상심하지 않는가.

정수는 더 기다릴수 없어 인차에 올랐다.

막장 정류소에서 내린 정수는 우선 지금의 채탄막장부터 찾아갔다. 갱구에서 근 30리나 들어와있지만 채탄막장은 큰 기계공장을 방불케 했다. 여기저기에서 채탄기며 콘베아들이 힘있게 돌아가고있었다. 환한 수은등이달려있는 방패식동발 밑으로는 기름진 탄들이 줄창 내물같이 실려나갔다. 정수는 박충발도 이처럼 기계화를 하고 흐름식으로 캐내면 후충발이 부럽지 않을상싶었다.

배낭에서 도면을 꺼낸 정수는 다시한번 박충발 통로를 확인하고 간데라채도 털어냈다. 현장에서 막장건설초안을 그리기로 마음먹은 그는 박충막장을 찾아 총총히 걸어갔다.

본선에서 얼마간 내려가니 박충막장으로 통한 7편도가 나타났다. 간데라불을 비쳐보니 벌써 전차길이며 전선까지 규모있게 갖추어져있었다. 어느때든지 《노다지발》을 캐낼수 있도록 미리부터 알심있게 준비되어있었다. 예비경도치고는 매우 잘 꾸려졌다.

(기사장동무 역시 생산에 들어선 빈틈없군.)

정수는 탄더미를 높이려는 현석의 잡도리가 보통이 아니라는것을 재삼 느꼈다.

《그래 소조원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우?》

누구인가 등뒤에서 투박하게 물었다. 돌아보니 저만치에서 두사람이 오면서 말했다.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소.》

앞의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자 허우대 큰 뒤에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다. 이어 두사람이 서로 마주섰다.

《원 참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오? 돌아갑시다.》

3중대장이 밤알을 물고 말했다.

《중대장동무.》

기사장이 돌아서는 중대장을 멈춰세웠다. 서로 흘겨보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은 심상치 않을것 같았다. 외면할수 없는 정수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좌우간 나는 못하겠소. 기사장동무 마음대로 하오.》

중대장이 소리치듯 말하곤 돌아섰다. 기사장은

우측거리며 걸어가는 중대장을 어안이 빙빙해서 보고만 있었다.

《기사장동무, 무슨 일로 그러니까?》

정수가 물었으나 기사장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량미간을 찌프리고 우두커니 서있는 기사장은 울컥하는 마음을 농치려는듯 담배를 물었다. 몇모금 걸싸게 빨던 그는 혼자서 박총마구리로 가보았다고 말했다. 현석은 박총발이 하도 오래되어서 물도 차고 허물어질것 같다 하면서 살릴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노다지발》을 캐려고 했는데 중대장마저 저렇게 나선다고 섭섭해하였다.

정수는 기사장이 자기 계획을 당장 실천에 옮기려 했다는것을 알자 저으기 언짢아졌다. 한번 단단히 말해주고싶었지만 꼭 참았다.

《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학습시간이 돼오니 어서 올라가십시오.》

기사장은 인차 돌아서지 않았다. 흡사 《동무도 나의 립장에서 생각해보오.》 하는듯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뚜벅뚜벅 갱도를 울리며 걸어나갔다.

정수도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박총막장으로 찾아가는 정수의 눈앞에는 중대장의 지나친 행동이며 그를 흠뻑보던 기사장이 엇바뀌며 떠올랐다.

기사장은 채탄막장으로 달려온 굴진중대장의 배척을 받았다. 어째서 무엇때문에 결의과제라면 한목숨도 바칠것 같은 기사장이 탄부들과 부딪치게 되는가? 패기있고 전개력이 있는 이름난 기술일군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가? 그저 박총때문이라고 보기에선 너무나 실무적이라고 생각한 정수는 가슴이 무거워졌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수는 내치 걸으면서 돌이켜보았다. 지금 현석은 어떻게 사는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온 그는 인차 기사장이 되었다. 그때 부득불 탄부들의 제의에 의해 박총발을 캐려고 했었다. 실패하고 계획을 미달했었다... 현석은 가끔 잘해보려던 당시를 더듬으며 말하곤했다. 책임을 스스로 견어안고 땀을 뻘었다. 책임일군의 위치가 그렇듯 중요한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실수없이 일하는 버릇을 굳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던져주는가? 결의과제만 중요시하며 탄더미를 바라보는 현석은 제정된 길만 등탈없이 가려함이 틀림없다. 정수는 심각해졌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바람속에서 이렇게 살아갈수 있단말인가?

문득 걸음을 멈춘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만치에서 현석이 역시 우뚝 서서 이쪽을 보는상싶었다. 마치 《노다지발》을 떠나기 아쉬운듯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의 밝은 간데라불에 시선을

붙인 정수는 괴로웠다. 이 갱도같이 제정된 길만 걷는 현석에게 일깨워주어야 할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의 심장속에 무엇이 영글지 못하여 그렇듯 패기있는 그의 정력이 우물안의 고인물과 같이 자유로이 흘러나지 못할가싶었다.

이윽고 현석이가 돌아섰다. 정수도 발걸음을 떼었다. 사방이 막힌 꿈은 갱도에서 울리는 발걸음소리는 서로 반대쪽으로 멀어져갔다.

어느덧 정수는 우측으로 뻗은 자그마한 울리굴을 발견했다.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몇걸음 기어가듯 들어갔다. 등불을 비쳐보니 박총발으로 통한 갱도가 옳은가싶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레루장을 놓았음직한 받침목 흔적도 찾아볼수 없었다.

(이쪽이 맞는가?)

더러 의심이 생긴 정수는 7편도로 다시 나와 가지고 온 도면을 펼치었다. 본선에서 실히 800미터 떨어져있는 여기서 곧추 내려가면 《노다지발》이 있고 우측으로 올라가면 박총발이 있는것을 보아 틀림없다. 정수는 어안이 빙빙해졌다. 박총막장으로 통한 갱도라해서 이렇게 비좁아야 하는가? 탄부들이 나다니는 통로야 다 같은것이 아닌가싶은 정수였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7편도 통로와 오소리굴같은 박총발 통로를 번갈아보았다. 차이나는 두 갱도를 볼수록 박총발과 후층탄발을 대하는 현석의 얼굴이 들여다보이는것 같았다.

저으기 열기오른 차정수는 다시 갱도로 들어갔다. 몹시 다그어 찼는지 여기거기에 머리를 쫓기 좋은 암석이 고드름같이 뿌죽뿌죽 나왔는가 하면 버럭도 채 파내지 않아서 가뜰이나 좁은 통로가 거의 메워진데도 있었다. 게다가 광차길마저 놓지 않은 채탄장 갱도가 아닌가? 그것도 근 석달 동안 일했다는 박총막장을 통한 수송로인것이다.

정수는 그때 현석이가 마지못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대하였다는것을 쉽사리 알았다. 하지만 그는 기사장이 왜 이렇게 건성했는가를 따지고싶지 않았다. 보다는 탄부들이 이런데를 드나들었다는것이 기습아랐다. 빈몸도 아니고 동발목이며 시험중의 채탄기에 쓸 여러가지 자재들을 지고 다녔을 탄부들이 아닌가. 흡사 그들의 고된 로동을 말해주는듯 독수리부리같이 내민 날선 암석에 아직도 10년전에 굵직한 나무진이 부식되어있었다.

(지독한 사람같으니. 시험채탄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놓았군. 그리고도 로동조건이 불리하다구?)

정수는 누구라없이 분격했다. 그래도 허리에

못을 박는것 같은 아픔을 견딜수 없었다. 활동같이 키를 낮추고 들어가던 정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앞을 보니 칠혹같은 어둠이 도사린 갯도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문득 뒤에서 바스락소리가 났다. 흠칫 놀란 정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 눈을 떴는가싶게 캄캄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궁속같은 갯도에 다시 무시무시한 고요가 도사렸다. 공연히 놀랐던가싶은 그는 알수 없는 인적기가 분명 쥐새끼의 장난이라고 여겼다. 그러자 사람없는 막장엔 짐승도 불지 않는다면 현석의 말이 떠올랐다. 정수는 그것이 풀기 없는 흙이 저절로 떨어진 소리라는것을 알았다. 순간 여기가 10년전에 폐경시킨 고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상외의 일도 당할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다. 소름이 끼쳤다.

(어떻게 할가?)

마음이 뒤숭숭해진 그는 한숨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 자리에 무릎꿇음새를 하고 천정을 쳐다본 정수는 더욱 허망한 생각이 들어 한쪽손을 쳐들어 보았다. 본시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정수는 머리의 돌부리를 쉽사리 잡았다.

(참 이렇게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할수 있단말인가!)

부지중 이렇게 생각한 정수는 인차정류장에서 수군거리던 탄부들이며 우죽거리며 돌아가던 3중대장이 생각났다. 정수는 위험앞에서 굴복하려던 자기를 질책했다. 움쭉 일어나서 씨엉씨엉 다시 들어갔다.

문득 밀폐막이 나타났다. 영원히 못들어가게 했는지 쇠장대며 통나무로 통로를 짝 막아놓았는데 중심에 《위험》이라고 쓴 오랜 폐촉이 붙어있었다. 가슴이 섬찟해진 그는 대뜸 현석의 독특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정수는 무엇인가 심중히 생각하게 만드는 폐촉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누군가 해쳐놓은것 같은 째새기로 한발을 들여놓았다. 침병, 고인물이 발목을 적시었다. 습한 공기가 얼굴에 부딪치며 시크무레한 곰팡냄새가 코를 찔렀다. 간데라불을 비쳐보니 접시같은 버섯이 돋은 고삭은 동발목들이 보인다. 그 사이로 군데군데 녹물을 흘리고있는 쇠동발이 있었다.

(여기가 박충막장이군.)

정수는 물찬 박충막장을 두루 살펴보았다. 배구장만한 막장안에는 봉락된 흙무지며 동강난 동발목들이 곳곳에 널려져있었다. 천정은 아무렇게나 뜯어놓았지만 측면은 모두가 물기 번들거리는 탄면으로 메워져있었다. 그것은 마치 기름기 도는 엿덩이같기도 하고 손때묻은 쇠불이같기도 했

다. 자못 황홀해진 정수는 손을 마친다는것도 잊고 번쩍번쩍 윤기도는 탄면을 걸탐스럽게 매만져 보았다.

(참, 이런것을 버리다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길바닥에 흘린 하나의 못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좇는 사람에게 애국심이 있다고 하셨다. 하거늘 수많은 고열탄을 버리면서도 애국심이 있다고 말한수 있는가? 전기를 주고 온 나라를 덥혀주는 나라의 재부를 망탕 허실하고도 참되게 산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기사장동무, 동무는 치욕의 길을 걷고있습니다. 죄를 짓고있단말입니다.)

순간 정수는 그에게 무리한 편지를 냈던 일이 떠올랐다.

10년전, 고등기술학교를 마친 정수가 화력발전소 보이라공으로 일하고있던 때였다.

발전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종업원총회를 열고 전력생산에 모든 힘을 넣었다. 전력혁명을 일으키자, 공청능력을 타파하자, 모두가 땀을 흘리며 반복시험을 거듭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거의 굶으로 늘어난 탄 수요가 전력생산을 떨어지게 하였다. 업무일꾼들이 수없이 뛰었다. 전화가 울고 편지들이 날았다. 얼마간 보장되는것 같았으나 만족할수 없었다. 만부하를 견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주먹을 쳤다. 불죽은 보이라앞에서 정수는 편지를 썼다. 어느 한 기술잡지에서 새 채탄법을 발기하여 생산실적을 근 일곱배로 올렸다고 요란스레 소개된 혁신자의 이름은 기억하고있는 정수였다.

《…주현석동무, 전력부문의 우리 전투원들은 석탄을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석탄이 보장되지 못하여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전기를 보내야 온 나라의 공장들이 만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느냐 못드리느냐 하는것은 동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들은 석탄전선의 동무들에게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것을 호소합니다.…」

정수는 이렇게 쓴 편지를 발전소 로동자 전체의 이름으로 우편함에 넣었던것이다. 그리고 후회했다. 더 절절하게 쓰지 못한 자기를 꾸짖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기사장이 10년전에는 탄부들의 제의에 못이겨 마지못해 박충발을 캐보았지만 오늘은 나라의 재부가 아까워서 캐내야 한다.

정수는 그의 가슴속에 바로 이 박충발처럼 황폐화되고 보이지 않는 빈구석이 자리잡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사장동무, 동무의 심장에 애국심이 있는가 말이요?》

정수는 격하여 부르짖었다. 찌렁찌렁 강도를 울리는 그의 음성에는 울음이 섞여있었다. 현석의 래일이 가공스러운 정수였다.

방입할수 없었다. 본래의 기사장 주현석을 찾아. 정수의 가슴은 줄곧 그에게로만 달렸다.

《기사장동무, 이 탄을 좀 보십시오, 동무의 손길을 얼마나 고대하는 탄들입니까.》

정수는 마치 현석이가 곁에 있더라도 한듯 짝 움켜잡은 줌안의 탄을 펼쳐보았다. 그러자 불빛에 번들거리는 박충의 고열탄을 소중히 감싸쥐는 현석의 손길이 닿는것만 같았다. 희열에 사무친 정수는 《소조원동무 우리함께 손을 잡고 박충을 캐봅시다. 보람찬 삶의 길로 곧바로 달립시다.》 하는 현석의 말을 듣기라도 한듯 가벼운 마음으로 막장건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물을 박차며 보폭수를 헤어나갔다. 막장의 규모며 유압식동발의 축소정도를 헤아려보았다. 동발목에 간데라를 걸어놓고 보풀인 박충도면에 수치를 적어넣었다. 돌아선 그는 맞은켄 통로를 바라보았다. 벨트콘베아를 들어놓을 거기로 탄맥이 뻗어져나갔다. 정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전혀 알지 못했던 탄줄기였다. 홀린듯 불을 비쳐보며 따라갔다. 끝간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얼마나 왔는지 아리송했다. 다시 흙탕물을 차며 재여보았다. 대충 헤아려보아도 종래의 박충발보다 훨씬 넓었다. 정수는 설계초안을 갱신하기 시작했다. 모든 설비를 배로 늘이고 로력을 따졌다. 며칠이 걸릴가? 간데라불빛에서 곱똥히 타산했다. 수많은 종이를 연거퍼 갈아냈다. 정수는 신심이 생겼다. 박충채탄기를 성능높게 개조하고 최신형 동발을 들이면 될것이었다.

(기계화의 본보기로 꾸려야지!)

모든것을 흐름식으로 진행하자니 아름답긴 하지만 년말까지 완성하도록 하자. 아니, 월중에 해낼수도 있겠다. 화력발전소의 로동자들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겠다, 못해낼것이 무엇이랴 싶었다.

차정수는 금방 박충막장의 고열탄이 막 쏟아져나갈것만 같았다. 멀리 고향의 화력발전소며 인민경제건설의 도처에 줄달음쳐 나갈것이다. 그는 흥분해서 부르짖었다.

(앞당기자, 충성의 보고를 앞당겨 올리자!)

정수의 손에서 간데라가 춤을 추듯 흔들거렸다. 박충발의 고인물을 뽑으려고 물꿇을 찾아가는 그의 마음은 창공높이 날아에는 수리개마냥 높이 올랐다.

갑자기 앞에서 《우왕-》하는 표범의 울부짖음 같은것이 강도를 들었다놓았다. 얼을 뿜으며 덮쳐드는것 같은 그 소리에 심장이 똑 멈춰서는것만 같았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굴러내린 정수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앞을 살피었으나 어둠이 놀란 눈길을 삼켜버렸다. 귀가 멍멍해진 정수의 심장에선 통당통당 방아만 쥘었다. 이상하게 머리가 뻥해지며 무거운 압박감을 느낀 정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긴장해서 눈귀를 세웠다. 도처에서 흙이며 잔돌들이 퐁당퐁당 물속에 떨어졌다. 중압이 오는듯 천정이 우직우직 균열이 가고 있었다. 짐이 오는중이었다. 정수는 비로소 머리끝이 오싹하게 한 그 소리가 돌맹이가 떨어져서 생긴것임을 알았다. 락반이 무시로 진다. 위험이 뇌리를 쳤다. 정신이 버쩍 든 정수는 옛 은폐부로 들어갔다. 배낭이 당게 쭈크리고 앉아서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를 썼다. 사위는 적막했다. 어디선가 개울물소리가 들려왔다. 정수는 귀를 강구었다. 분명 흐르는 물소리였다. 수면에 간데라를 비쳐보았다.

(응?)

물이 박충막장으로 흘러들고있었다. 퇴수로가 막힌것이 틀림없다. 정수는 박충막장에 물이 고인 원인을 알았다. 탄발이 위험했다. 흘러드는 물량을 보아 수일내에 늪을 이룰상싶었다. 그러자 박충막장이 와르륵 허물어지는 광경이 보이였다. 와뜰 놀란 정수는 움쭉 일어났다. 박충을 구원해야 했던것이다.

정수는 물길을 거슬러 찾아갔다. 간데라불이 작아지는것도 개의치 않고 수없이 나타나는 갈림길을 지나치며 앞으로만 나갔다. 박충발을 살리려는 하나의 생각이 온몸을 끌고다녔다.

(음 여기로군.)

어디까지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지점에서 정수는 막힌 물목을 찾았다. 그는 자연봉락이 진 흙더미를 와락와락 파내기 시작했다. 쇠조박같은 돌로 정신없이 긁어냈다. 움푹 패인것 같더니 모래무지 흘러내리듯 풀기없는 흙이 와르륵 무너져 내리면서 흔적없이 메워진다. 다시 헤친다. 달그닥 돌이 맺힌다. 안간힘을 쓰면서 아름이 번쩍 돌을 한고패 굴린다. 또 넘긴다. ...얼마나 했을까? 땀물이 내를 이루었다. 온몸이 화락하니 젖었다. 단김이 안개를 말아올린다. 정수는 힘이 진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손수건을 닦았다. 줄물이 펄

어졌다. 이마를 씻고 목덜미를 문다졌다. 숨을 돌리며 일자리를 보았다. 겨우 절반이나 축냈다.

문득 불이 오무러들었다. 정수는 물종대를 조절해보았다. 얼핏 커지는것 같더니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다. 재를 털고 성냥을 그었다. 팔알같은 불이 서서히 사그러지고있었다. 쫓기웠던 어둠이 불빛을 일축하며 밀려들고있었다. 정수는 꺼져가는 불방울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얼마간 불어있던 불뚝이 툭툭 떨어지는것 같더니 칠혹같은 어둠이 덮치였다. 정수는 천길나락으로 떨어진것만싶었다. 앞길이 캄캄했다. 어떻게 나가랴? 돌아갈 굶인돌인들 얼마이며 갈라진 굴들은 그 몇몇인가. ...정수는 길을 잃고 헤매일것 같은 막막한 생각이 전신을 사로잡았다. 외로와진 그는 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다. 피곤이 몰려든 정수는 버럭더미결에 비스듬히 누워서 고요한 갯도에 귀를 강구었다.

어디선가 간간이 석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적, 물방울소리... 조용한 순간은 정수에게 잊을수 없는 그날을 더듬게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행복의 순간은 물뿌린듯 조용했다. 긴장한 눈길들, 엄숙한 얼굴들, 격동된 심장들이 영광의 시각을 고대하고있었다.

드디어 가장 행복한 가슴들이 흠모의 환호성을 올렸다. 오매에도 그림던 자애로운 수령님께서 청춘대학생들을 맞아주시였다! ...동무들을 만나니 힘이 솟는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되어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동무들이 못해낼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당은 동무들에게 중요한 혁명과업을 맡긴다. 청년지식인들인 동무들은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이 해결하라고 하는 혁명의 돌파구를 뚫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어주시였다!... 우리들을 혁명의 전위로 불러주셨다!...

만세소리, 흐느낌소리, 수천석의 장내에 그이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파도가 일었다. 안겨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세워주시는 그 믿음이 분에 겨워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뽐는 가슴을 안고 감격의 눈물을 끝없이 흘리던 청년지식인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

정수는 일어났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보고를 올리고싶었다. 충성의 탄더미를 높이 쌓을 박충발을 구원하려고 종이마리를 태웠다. 불빛을 안고 일손을 다그었다. 어느덧 손더듬질로 자리를 냈다. 끓이 트이자 퇴수물이 소리치며 빠져나갔다. 어둠속에서도 춤추는 물이 보이

는것만싶었다.

정수는 미소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 ×

7편도에서 나온 기사장은 밤늦도록 일하고있었다. 《노다지밭》을 켤수 없는 그는 3중대의 로력을 달리 조직했다. 다른 중대들에 각 소대들을 배속시켜놓고 계획을 다시 세워보았다. 물론 엄청난 수자가 나왔지만 7편도의 채탄밭에 독립적으로 불이느것보다 못했다. 현석은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또 계산해보았으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 저으기 수틀려진 그는 우울한 눈길로 저탄장의 탄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물론 탄더미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박충의 고열탄이 쌓이면 더 보람찰것입니다.》 하던 정수의 말이 떠올랐다.

(허 참,)

누구는 모르는가. 그래서 10년전에 벌써 해보지 않았는가싶은 현석은 기분이 언짢아졌다. 간데라를 들고오는 정수를 불적 갈아선 손발이 맞겠다고 감탄했는데 사흘이 못가서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알아듣도록 말해주었지만 쇠통 막무가내였다.

(어떻게 한다?)

저탄장의 탄더미와 함께 《새 타빈에 거미줄을 얹히고 무사할줄 아는가?》고 엄포를 놓던 화력발전소 번대머리아바이가 떠오른 현석은 우쭐 부아가 났다. 그는 털썩 만년필을 놓고 담배를 물었다. 한참 부시커듯 뻑, 뻑 성냥을 그어대는데 머리말에서 전화기가 울었다. 현석은 《학습시간에 누가 전화질인가?》 싶어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주현석이 전화바습니다.》

수화기를 든 현석은 거칠어지는 마음을 능치며 될수록 정중히 말했다. 그러던 현석은 버럭 역정을 썼다.

《여보 학습시간에 무슨 전화질이요? 이제 곧 들어가겠소.》

현석은 안해의 음성이 들려오자 더 들을것이 없다는듯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그리고 너무했다는 후회가 들어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안해의 말을 듣고있던 현석은 다우쳐 물었다.

《뭘! 소조원동무의 어머니가 왔다구?》

그는 60돛 생일이 넘은 정수 어머니가 아들을 돕자고 탄광일에 필요한 쇠조박을 가지고 왔다는 바람에 입을 항 벌리고말았다.

《원 참 여기에 철이 없을라구, 좌우간 내 곧 찾아보겠소.》

현석은 작업용 반송전화기의 마이크를 들고 채 탄막장이며 저탄장 할것없이 죄다 알아보았다. 정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생각해보니 초저녁에 7편도로 내려가던 정수가 떠올랐다. 그리로 가면 퇴수물뿔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있을것 같기도 했다. 현석은 안전모를 쓰고 막장 양수장으로 찾아갔다. 그는 여기에도 없었다.

(혹시 박충막장에 들어간게 아닌가?)

오늘아침에 함께 가보자고 한 정수를 떼어놓고 고굴로 혼자 들어갔던 일이 생각난 현석은 급히 양수장을 나오려고 했다. 이때 뿔프운전공아바이가 말했다.

《기사장동무 이것 좀 보우. 어디서 이렇게 종이타진게 흘러내리는지 모르겠소. 물량도 많아지구?》

현석은 물위에 둥둥 떠오른 종이재를 바라보았다. 전에없던 현상이었다. 이상해진 그는 박충막장과 종이재가 결부되면서 정수가 생각났다. 만일 그가 박충막장에 찾아갔다면 정수도 고인물을 보았을게다. 가뜰이나 박충을 아까와하는 그인지라 물찬 박충발을 두고 그냥 돌아서지 못했을것이다. 현석은 물량도 많아졌다는것을 보아 정수가 막힌 물목을 터쳐놓은것이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수면을 덮은 종이재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불이 없어 종이를 태웠단말인가? 현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길을 잃고 잘못될수도 있는것이다.

현석은 지체할수 없었다. 카바이드를 더 갖춘 현석은 곧장 박충막장으로 찾아갔다. 늪같이 피여있던 물이 한결 줄어들어 여기저기 보이지 않던 흙더미들이 머리를 내밀고있었다. 퇴수로에서 물흐르는 소리도 요란했다. 정수는 지금 어데 있는가?

《소조원동무-》

현석은 울음머금은 소리로 웨쳤다. 찌렁하니 갱도만 메아리했다. 그는 물을 박차고 박충막장을 꿰질러갔다. 퇴수로를 따라 굽인돌이를 지나가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옛 은폐부앞에 이른

현석은 방금 떨어놓은것 같은 가스재결에서 타다남은 종이조박지를 보았던것이다. 현석은 간데라를 털며 태운것 같은 줄간 종이를 집어들었다.

상형문자같은 정수 어머니의 글씨를 알아본 그는 반나마 탄 편지를 단숨에 읽어나갔다. 정수의 호소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이 탄광을 지원해주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필요한 자재며 기계까지 만들어보낼수 있으니 어서 도면을 보내라고까지 했다. 공무동력직장에서는 긴요히 쓰려고 했

던 특수강을 먼저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수일내로 가지고 가겠는데 꽤 쓸만한것이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끝을 맺었다.

현석은 신중해졌다. 10년전에 그렇듯 애먹던 보습날문제가 이렇게 쉽사리 해결되는가싶은 그는 박충발을 흐름식공정으로 캐려던 정수의 구상이 전과 같이 허황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충발을 캐려고 발전소 노동자들까지 불러일으키고 늪으신 어머니마저 무거운 쇠덩어리를 이고 수백리길을 떠나오게 만든 정수를 가슴뜨겁게 생각했다.

현석은 무척 감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먹해지던 심정은 파오를 범한 오열로 변하며 몸서리가 났다. 현석은 왜 정수처럼 일하지 못하는가?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전문탄광기계공장의 지원을 받는 자기가 아닌가. 게다가 수천명의 탄부들과 함께 일하는 현석이었다.

그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가슴속복판에 자리잡은 속심을 감추며 산 자기를 뉘우쳤다. 그는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편지를 받았던 10년전에는 탄부들의 압력에 마지못해 박충발을 캐보았고 오늘은 그때 입은 상처가 아파서 박충을 외면했다는것을 진실로 고백했다.

(나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현석은 허청허청 걸어갔다. 문득 갱도를 메운것같은 버럭무지가 나타났다. 그는 거기에서 깊이 패인 손자욱이며 아무렇게나 널려져있는 종이재를 보았다. 현석은 정수가 종이를 태워가며 퇴수로를 찼다는것을 쉽사리 알아보았다.

(소조원동무!)

현석은 손끝이 터졌을 정수를 생각하니 눈물이 펴 돌았다. 어둠속에서도 박충발을 살리려고 기를 썼을 그가 더듬어지자 현석은 언제인가 처음으로 박충발문제를 꺼내던 정수가 떠올랐다.

현석이 막장안에서 배낭을 진 정수를 세번째 만나던 때였다. 바퀴밑에 들어가서 고장난 전차를 수리하던 현석이 운전공에게 손을 내밀었다.

《9-10나사틀개를 주오.》

처녀운전공은 들은척도 안했다.

《아니 뭘하고있소?》

가뜰이나 목이 아파난 현석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바람에 정신이 들었는지 운전공처녀가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이 참 미안해요. 소조원동무를 보다다니 그만...》

운전공처녀가 웃음이 나오려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허허허 참 아주 반한게로군.》  
《듣기 싫어요. 그저 남자들이란 찍하면 그런 소리만 해요.》  
운전공처녀는 되알지게 나무람했다.  
《그럼 왜 그렇게 정신없이 보았소?》  
《하도 이상하길래 보았지요 뭐.》  
《이상하다니?》  
처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저기 좀 보아요. 글썽 별스럽잖아요?》  
차밀에 누운 현석은 고개를 꺾어 발끝쪽에서 걸어오는 정수를 바라보았다. 배낭을 진 그는 이따금씩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 줯는 것 같더니 두 손을 머리뒤로 가져갔다. 호기심이 동한 현석이 눈총을 모아 바라보니 그는 땅에서 주은 것을 배낭에 집어넣곤 했다.  
《금덩어리라든가 줯는 게로군, 어서 나사들개나 주오.》  
현석은 다시 일손을 놀리었다. 그때 정수가 다가왔다. 정수는 뒤에 달린 광차에 가서 배낭속에 든 것을 와르르 쏟아놓았다.  
《호호호 난 또 무엇인가 했네.》  
운전공처녀가 숨이 넘어갈 듯 까르르 웃어대더니 밟고다니는 탄덩어리를 줯는다고 놀려댔다.  
《원 참 배낭 지고 흘린 탄을 줯다니!》  
차밀에서 기사장이 나무람 비슷이 말했다.  
《뭐 그저 지나가는 길에 흘려보낼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정수가 현석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서야 광차길에 흘린 탄쯤은 새발의 빚니다. 괜히 수고스리 그러지 마십시오.》  
《새발의 피라니요? 하긴 탄발이 없어지는 정도이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탄발이 없어지다니요?》  
기사장이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런 기사장이 오히려 알 수 없었던지 정수도 놀란 눈을 했다.  
《기사장동문 박총발이 없어지는 걸 모릅니까?》  
《허허허 난 또 무엇인가 했습니다.》  
현석이 누그러져서 덜거덕거리며 나사를 조이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도 그놈의 박총발을 캐내려고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지요. 10년 전이었습시다. 질 좋은 고열탄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부터 <범죄자>로 규탄받자 그놈을 캐내려 했는데 진짜 <범죄자>로 뵈번했습니다.》  
일손을 멈춘 현석은 오열을 느끼는 듯 푸-한숨을 쉬고 나서 나사들개로 나트를 탕탕 때렸다.  
《<범죄자>로 되다니요?》

《그해 탄부들이 우기길래 내쳐 서너달 씨름했다가 고생만 죽신히 했지요. 당시 경험이 없었던 내가 분별없이 돌아쳤으니 죄인은 나였습시다.》  
이렇게 말한 현석은 난생처음 된욕을 보았다고 하면서 생산에 지장주어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 그때 애쓴 보람이란 수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가 말없이 듣기만 하자 현석은 박총문제는 상기하기조차 싫은 듯 충고비슷하게 말했다.  
《여기선 그저 탄더미를 높여야 얼굴을 쳐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간 진짜 <범죄자>로 되겠습니까.》  
정수가 대꾸하자 나트를 조이던 현석이 뒤를 돌아보았다. 썩썩 간데라불이 내쫓는 차밀에서 서로 놀란 눈길들이 사정없이 맞부딪혔었다...  
현석은 심각해졌다. 어찌보면 정수가 이 버럭 무지를 췌면서도 박총을 버리려던 지기를 범죄자라고 규탄했을 상신히었다. 그렇다, 길바닥에서 밟히는 한줌의 탄덩이마저 소중히 여긴 그가 박총의 고열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탄더미만 높이려고 나라의 재부를 쓴외보듯했다고 저주했을 차정수였다.  
어느덧 현석은 계획에 없다고 박총발을 버리려 했던 일이며 지나온 10여년 동안 수많은 박총발을 버리고서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다고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 자신이 뉘우쳐졌다.  
(아, 나는 왜 책임만 생각하고 조국을 잊었던가?)  
탄덩어리의 탄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되는 금덩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던가? 아니다. 모르지 않았다. 실정ियो 계획과제요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다. 그렇다, 자기를 위한 《안전한 길》과 《보람찬 삶》을 위해 애국적량심에 칼질하지 않았던가.  
《이 둔한놈아, 어째서 그렇게 살았어 응? 왜? 왜?》  
현석은 가슴을 탕, 탕 쳤다.  
《소조원동무, 죄진 나를 용서하오.》  
그는 물먹은 음성으로 자꾸만 중얼거렸다. 허덕허덕 걸음을 옮긴 그는 땅바닥을 비치며 정수의 흔적을 찾았다. 도간도간 타다남은 성냥가치가 보인다. 현석은 흘린 성냥가치를 따라 수많은 갈림길을 지나며 들어갔다.  
한참 내려가던 현석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발머리에 천길나락같은 수직갱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발 앞디뎠어도 고혼이 뵈번했다. 소름이 끼친 그는 멍하니 서서 벌써 바다밑에까지 들어왔다



는것을 생각하였다. 돌아선 그는 다시 올라와서 갈림길을 살피었다. 두세곳을 여겨보았으나 그나마 성냥가치 홀린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정수는 어디로 갔을까? 불현듯 수직갱이 생각난 현석은 겁이 더럭 났다. 황급히 그리로 달려간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빛마저 닿지 못하는곳을 보기만해도 아찔했다.

《소조원동무-》

대답이 없다. 현석은 가슴을 쥐어뜯고싶었다. 과연 이 막막한 땅속에서 그를 어떻게 찾는단말인가?

그는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이제 무슨 낮으로 무거운 쇠덩이를 이고 수백리밖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앞에 나서랴...

아, 내가 왜 7권도에서 만났을 때 돌려세우지 못했던가? 함께 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게 아닌가.

(죽일놈은 나야. 그저 죽일놈은 나라니깐.)

현석은 울고싶었다. 글썽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혁명소조원을 잃다니?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해.

현석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온 갱도를 살살이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는 지나온곳을 표적해 놓으며 걷고 또 걸었다. 어느덧 막장의 수리개로 이름난 현석이기도 허청허청 걸음이 떠졌다. 온몸이 화락하니 젖은 그는 지칠대로 지쳤다. 들들 발을 끌면서 걸어가는 현석은 자꾸만 중얼거렸다.

《소조원동무 용서하오. 지나온 10년동안 술한 탄발을 버렸습니다. 발밑에 흘려버린 탄도 헤아릴수 없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탄더미가 높아진다고 기뻐했습니다. 일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치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탄더미를 보기전에 나라의 재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 못했던말입니다. 애국심이 없는 내가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겠습니까.》

현석은 이렇게 자기를 뉘우쳤다.

《소조원동무, 조국애,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보람있게 살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티없이 맑은 충성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에서만이 참된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안았습니다.

소조원동무, 어서 나타나오. 이 현석이 어떻게 숨쉬며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새 삶을 찾은 한 인간의 충성심을 보고드려야 합니다. 동무가 구원한 박충발의 고열탄을 충성의 탄더미에 높이 쌓고 기쁨의 보고를 올려야 함

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석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앞길을 잃은 그는 향방없이 터벅터벅 걸었다.

문득 이마에서 불꽃이 튀기는것 같더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차츰 머리가 아파난 그는 높지 않은 조구통(수직굴)에 떨어졌다는것을 알았다. 쭈서나는 아픔을 참으며 먹장같은 어둠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 일어날수 없을것 같은 현석은 이 시각 정수가 더욱 그리워났다.

《소조원동무.》

그는 조용히 불렀다. 부를수록 다정히 안겨오는 그 이름이었다. 현석은 꿈나라에서처럼 잊을수 없는 정수를 추억하고있었다.

이때 곁에서 인적기소리 나는것 같더니 누구인가 자기를 조심히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그 손길이 정수의것임을 느낀 현석은 벌떡 일어났다.

《소조원동무!》

《기사장동무니까.》

정수의 목소리도 떨리었다.

《으흐흐...》

현석은 마구 흐느꼈다. 그리고 와들와들 떨리는 새까만 손으로 기여온 정수의 얼굴을 조심스레 만졌다.

《저때문에 기사장동무가 왔습니까!》

《용서하오, 모두 저의 탓입니다.》

현석은 울면서 말했다.

정수는 뒤에 서고 현석은 앞에서 걸었다. 정수의 방수직배낭을 멘 현석은 고개를 수긏하고 걸었다. 기름종이에 정히 쓴 박충발건설도면이며 탄덩어리로 불룩해진 배낭을 지고가는 현석은 박충의 고열탄을 단꺼번에 진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뒤에서 말없이 밝혀주는 정수의 불빛을 밝아갈수록 걸음이 빨라졌다.

(소조원동무 고맙소, 나를 구원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현석은 이렇게 되뇌이며 앞길을 개척해나갔다. 이윽고 멀리에서 보석같은 반점이 보이더니 어느덧 해빛이 안겨왔다.

갱구앞에 나온 그들은 다같이 눈이 부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듯한 새로운 감동에 휩싸여들었다.

(조국,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살이 빛나는 귀중한 조국이다!)

현석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며 우람하게 치솟은 탄더미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정수는 흙탕물이 게발려진 현석의 얼굴에서 참된 삶의 기쁨을 읽으며 느슨히 미소했다.

## 래일의 주인들

전세창

운치좋은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공장구내에 새들이 날아들고 노을이 찬란한 저녁이다. 짙레꽃향기 그윽한 휴식터에서 배구뿔을 하늘높이 날리는 노동자들의 얼굴에도 옥류금의 경쾌한 선물과 함께 처녀들의 노래소리 랑랑한 공장문화회관 창가에도 노을의 붉은 색조는 아름답게 짙어갔다.

기계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로 하루일의 즐거움이 넘치는 저녁이었다.

이 저녁 방금 전화를 받고 3대혁명소조원실을 나선 길웅의 얼굴에는 전에없이 불안한 빛이 싹터있었다.

그는 산업건설부재직장을 담당한 3대혁명소조원이다. 중키에 어깨가 넓고 골격을 이룬 선들이 굵었으며 뽀뽀하고 단단하게 생겼다. 소탈해보이는 둥그스름한 얼굴이며 술진 눈썹밑에 억실억실한 맑은 눈은 그가 비록 반달음을 치다싶이 하지만 침착하고 사려깊은 인상을 자아내게 하였다. 급기야 산업부재직장으로 들어선 길웅은 담벽에 부딪친듯 멈춰섰다.

좁전까지만 해도 기계소리로 들끓던 현장은 마치나 활활 타오르던 도가니에 찬물을 끼얹은 뒤처럼 고요했다. 자동화된 새로운 진동기로 산업부재를 생산하게 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일손을 다그치던 노동자들이 숨쉬는것조차 꺼리는듯한 무거운 침묵이 깃들고있었다. 초조와 안타까움이 실린 그들의 시선은 직장장과 그 앞에 서있는 애젊은 두 운전공을 바라보고있었다.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조용히 서있는 두 운전공 일남이와 명수를 노려보는 직장장 최순현의 거친 숨결은 현장안의 침묵을 더 짙게 하는가싶었다. 직장장의 노기어린 눈빛은 마치나 화풀이를 하는데 꺼릴것도 주저할것도 없이 큰소리를 내지 못할것만 같았다.

《그래 반년동안 실습하고 온게 이 풀이냐?》

의외였다. 깊은 생각에 잠긴듯한, 그러면서도 따져묻는듯한 직장장의 음성은 의외에도 침묵을 깨뜨릴가 저어하는듯 낮았다.

길웅은 이끌리듯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일남이와 명수가 운전하던 진동기 조작실을 간간히 훑어보았다. 전기설비들에 쓰이는 절연물질이 불에 탄 냄새가 매캐하니 코를 자극했다.

그의 눈길은 두대의 천정기중기가 동시에 들어올려야 하는 특대형 《특골》부재를 생산하던 진

동기에 가서 멎었다. 진동기의 쌍축중에서 하나가 보기 험할 정도로 용접한 부분이 떨어져있었다.

(저 동무들이 이런 사고를 저지르다니?!)

길웅은 놀랐다. 보기드문 사고였다.

《왜 대답이 없어? 엉-》

대답을 채촉하는 직장장의 어조는 저으기 높아졌다. 더는 자신을 자중할수 없어 하는 음성이었다.

길웅은 느닷없이 직장장을 돌아보았다.

머리가 희여 반백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건장하고 다부지게 생긴 그의 철색 얼굴은 노여움으로 하여 더욱 꺼멓게 보이였다.

그때까지 기척없이 서있던 일남이가 번쩍 머리를 추켜들었다. 혁명소조원과 직장장이 마주보고 있는 눈빛에서 그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듯싶었다. 그는 어차피 말하지 않을수 없는듯 입술을 이죽거리는 찰나에 옆에 섰던 명수가 재빨리 그의 허리를 툭툭 찔러놓았다. 그바람에 일남은 도로 머리를 숙이였다.

하지만 길웅은 일남의 그 얼굴에서 어텐가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어렵지 않게 읽을수가 있었다. 자기가 아니라 그 어느 다른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기라도 한것 같은 반발이였다.

《언제 가면 체구실을 하겠는지...》

직장장은 그들과 더 이상 말씨름해야 보람이 없음을 느낀듯 혼자소리로 뇌이고는 팔을 휘 내저었다.

《동무들은 래일부터 원석채취장으로 이동작업이나 가게.》

《예?!》

일남이와 명수는 거의 동시에 반문했다.

길웅은 반사적으로 직장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동원보내다니?!)

직장장도 얼핏 길웅에게로 눈길을 돌리였다. 두사람의 시선은 소리없이 부딪혔다가 미끄러지듯 사고난 기계으로 떨어졌다.

《동원간다구만 생각말구 일본새를 배워오게.》

직장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듯 휙 몸을 돌려 자동계기조작실로 들어갔다.

일남이와 명수는 한동안 녀를 잃은듯 직장장의 뒤모습을 바라보더니 할수없는지 발길을 돌려 출입문으로 스택스적 걸어나갔다.

길웅은 그들을 멈춰세우려다가 문득 생각되는

것이 있어 그만두었다. 하지만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서글픔이 비끼었다. 저도 모르게 큰숨을 들이키고 생각깊이 머리를 숙이는 그의 표정은 피로움을 금치못해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보이었다.

(원석채취장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어있지 않는가. 그러면 사고를 낸 처벌로 그들을 동원시킨다는것인가.)

길웅은 명수와 일남이를 동원가라고 하는 직장장의 그 심중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을 실습보내자고 제기한것도 자기였고 실습갔다는 그들에게 기대를 맡기자고 한것도 자기였었다.

그렇다면 직장장은 자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지 않는가.

문득 길웅의 눈앞에는 일남이와 명수를 처음 실습보내던 일들이 선명하게 밟혀왔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에 쓰일 부재만을 생산하던 여기 《교》부재공장에 산업부재직장이 새롭게 일떠서게 된 초봄이었다. 산업부재생산설비들은 대차흐름선에 의한 자동화설비들로 되어있었다. 그 기계설비들을 다룰수 있는 운전공들을 양성해야 했다. 누구를 실습보낼것인가?

직장장 최순현은 의례히 로동에서 단련되고 일손이 결핍 기능공들을 선택하는데다가 모를 박았다. 그러나 막상 그 기능공들을 뽑아내자고보니 생산계획수행이 문제시되지 않을수 없었다. 직장장은 누구를 보낼것인가 하고 머리를 짜내고있었다. 그러한 어느날 구내길을 걷고있던 길웅은 의외의 광경에 부딪혔다.

몸집이 좋아서 《똥똥보》라 불리우는 전공이 날이 선들선들한 도끼를 어깨너머로 추켜든 그앞에 애절한 일남이와 명수가 배낭을 멘채 서있었다.

그들은 분명 다루고있었다.

《이 좋은 나무를 찍다니요?》

《해마다 식수를 하는데 이렇게 자란 나무를 찍어요? 얼마나 좋은 휴식터라구요..》

일남이와 명수가 아름다리 은행나무를 막아선채 똥똥보에게 들이대는 말이였다.

《어랍쇼, 차 이 친구들이 이거...하...》

똥똥보는 하도 어처구니 없는듯 허허하고 웃음소리를 터치였다.

그제서야 길웅은 새로 건설되는 산업건설부재직장에 동력선을 끌어오느라고 전선대들을 세우고 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일남이와 명수는 전선대를 세우기 위해 나무를 찍으려는 전공을 막아나선것이였다.

《그래 누군 뭐 동무네만 못해서 나무를 찍는줄 알아? 일초가 금싸라같은 때에 흐지부지하지 말구 썩 나서라구.》

임심좋은 똥똥보는 솔뚜정같은 손바닥을 퍼들더니 그들을 밀어젖히려고 했다. 하긴 그역시 전공이고보니 전기줄에 거칠키리는 나무들을 찍는것쯤은 보통일로 여기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일남이와 명수는 나무를 떡 붙잡은채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정말 못찍어요..》

《이 나무를 찍으면 이 주변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웁지. 이건 정말 교과서와 같은 친구들인데. 그래 <책>대로 하잔말이지?》

똥똥보는 여전히 익살이다.

《에-전기공학 안전규정책에는말이야, 전선줄에 방해가 되는 나무는 찍게 돼있단말이야.》

똥똥보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애절한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어느결에 길웅이가 그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일남이와 명수는 곤경에서 구원자라도 만난것처럼 앞을 다뤄가며 설명했다.

《그래 동무들은 왜 이 나무를 찍지 말라고 하오?》

그들의 말을 다 듣고난 길웅은 언지시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일남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같은 나이기는 하면서도 명수는 어덴가 점잖은데가 있었고 입이 무거운 축이였다. 반면에 일남은 한꺼번에 한가지이상 마음쓰는 일이 없었고 언제보나 날과람있게 행동했다.

《이 나무가 적어도 20년은 자랐을겁니다.》

《음-그러니 아깝단 말이군...동무는?》

길웅은 명수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명수는 정중한 어조로 말을 뱉었다.

《소조원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손수 나무를 심으시면서 우리 조국을 숲이 우거진 공원처럼 꾸리자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웁다!)

길웅은 머리를 끄덕이며 일남이와 명수의 손을 힘주어 잡고는 이윽도록 놓지 못하였다.

그들의 대답은 길웅이를 감동시켰다. 그들은 또렷한 눈으로 혁명소조원을 쳐다보았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눈동자,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보고 듣고 배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이였고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였다. 그것이 그대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역세게 자라난 그들이 아닌가!

그들을 미더웁게 바라보는 길웅의 입가에는 다정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러나 윤치좋은 은행나무 그늘밑에 앉아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길웅은 무거워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일남이와 명수는 근 두달가까이 주택건설장에 동원되었다가 방금 오는 길이었다. 더우기는 그들이 공장에 들어온지 2년이 가까와오지만 기능수준은 처음 견습받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하긴 직장에서 이러저러하게 동원로력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에 어차피 그들이 가야 했다. 직장장의 말대로 하면 기능공들을 생산에서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직장장은 새로 들어오는 동무들은 기능도 어리 기때문에 어차피 2~3년은 외부동원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대를 잡고 숙련할만한 기일은 극히 적었다.

일남은 지금까지 품고있던 속내를 내놓고 불부는 소리로 말했다.

《술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장에 처음 들어올 때 포부는 정말 컸습니다. 일하면서 배워서 실속있는 기사가 되구요...》

그는 다음 말을 잇기가 멎적은듯 썩긋 웃어보이였다. 어찌보면 응석을 부리는것 같기도 했다.

《박사가 되자구 말이지.》

옆에서 듣고있던 똥똥보전공이 한마디 끼여들었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수는 똥똥보를 흘깃 쳐다보며 정색해서 말을 계속했다.

《물론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한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남동무가 다른 공장에 가겠다고 제기한것도 잘못이구요.》

술쩍 일남이를 돌아보는 그의 눈은 혁명소조원 앞에서 티끌만한 숨김도 없이 터놓고 말해야 한다는 암시가 어려있었다. 일남은 어쭙은 미소를 그리며 머리를 숙였다.

《소조원동지,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공장에 가고싶어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같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을 만났는데 사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 동무들은 벌써 자동선반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걸핏하면 들떠다니는 말만 듣고있으니 정말...》

일남은 어째서인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컷하니 머리를 떨구었다.

길웅은 그들의 어깨를 량팔에 품어안으며 낮이나 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구 자존심만 앞세우구 일을 가려서야 안되지.》

명수와 일남은 혁명소조원의 심중한 어조에 술깃하니 귀를 세우고있었다.

길웅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있는 점들을 차근 차근 타일러주었다.

그날밤 길웅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일남이와 명수, 그들을 사로청에서 추천하면...)

뒤따라 직장장의 얼굴이 눈앞에 밟혀왔다.

직장장 최순현, 머리가 반백이 되도록 로동소에서 역세여지고 공장고등전문학교와 통신대학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건재기사로, 한개 직장을 책임진 일군으로 자라난 그가 아닌가.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매달, 매분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전개력이 있는 일군으로 자랑높은 그였기에 길웅은 존경하여마지 않는터였다. 그가 어찌 나 어린 신입공들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며 빨리 키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신입공들을 로력동원 보내는것도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일잘하는 착실한 로동자로 키우기 위해서일 것이 다.

그것이 착실한 로동자를 키우는것이라면 그들의 기능수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것이 아닌가, 새 세대들은 나래를 활짝 펴고 날고싶어한다.

그렇다면 직장장에게 다른 약점이 있단말인가?

길웅은 직장장을 찾아가 마주앉았다.

《실습말이요... 일남이와 명수를...?》

직장장은 의아히 눈시울을 치켜올리며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직은 이르요.》

《이르다니요? 사로청조직에서 말이 있는것 같은데...》

길웅은 명수와 일남이가 나래를 활짝 펴고 자동화의 새시대에 튼튼한 기둥으로 서있게 될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믿음에 찬 어조로 말했다.

직장장은 처음 의문을 품던 때와는 달리 잠시 생각을 더듬는가싶더니 그 어떤 기발한 착상이 떠오른듯 선뜻 동의해나섰다.

《조직에서 적당하다고 추천하면야 보내야지요.》

그럼 먼저 세명을 보냅시다. 그러구 분기계획이나 수행해놓고 2차로 몇명 더 보냅시다.》

새삼스레 직장장을 다시 쳐다보는 길웅의 눈에는 기쁨이 함뱍 어려있었다.

그러나 일남이네가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길웅은 나 어린 신입공들에 대한 직장장의 립장과 관점에 대해서 깊이 음미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직장장은 진동기동기화자동운전을 맡게 된 일남이와 명수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었다.

길웅은 그러한 직장장에게 명수와 일남이가 책임적으로 운전을 해낼것이라는 믿음을 주려고 애썼다.

《소조원동무...》

길웅은 누구인가의 부름소리에 옆을 돌아보았다. 직장장이 서있었다. 그는 어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찌보면 일순간에 머리가 더 희어진것 같기도 했다.

《아무래도 2차로 실습간 운전공들을 소환해야 할것 같습니다.》

길웅은 선뜻 무엇이랴 대답했으면 좋을지 같피가 서지 않아 마주보기만 했다.

직장장은 무겁게 큰숨을 내쉬고는 뒤말을 이었다.

《자동화계기도 타고 진동기축도 저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실습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일남이나 명수에게는 더는 기대를 말기고싶지 않단말인가?)

길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게서 의외의 약점을 본 순간 가슴속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직장장동무,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길웅은 뒤통수 침착한 어조로 묻는듯 이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창문곁으로 다가갔다.

두사람은 잠시 저마끔의 생각에 잠긴채 묵묵히 걸었다.

저기 황혼이 깃든 구내길로 명수와 일남이가 스적스적 걸어가고있었다. 그들이 배구장옆을 지날때였다. 하늘높이 뜬 뿔이 그들의 머리위로 날아왔다. 그전 같으면 일남이가 모자를 훌쩍 벗어 쥐고 떨어지는 뿔을 보기좋게 머리받기해서 날려보냈을것이나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것을 바라보던 길웅의 가슴은 아리었다.

일남이와 명수는 숲이 우거진 구내길을 벗어나 함숙으로 가는 길에서 발길을 멈추더니 어째서인지 자기들의 일터, 길웅이와 직장장이 걸고있는 산업부채직장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 ×

어둠속에서 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윽한 향기를 뿜기고있는 밤이다. 로동자함숙 앞마당의 꽃밭에서 쓰르라미가 단조롭게 우는 이 밤, 길웅은 일남이와 명수를 찾아가고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지금도 기계기름냄새가 풍긴다. 저녁에 사고와 관련한 직장기술협의회에서 생산보장대책을 토의하던 그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 다시 사고현장으로 나왔었다. 사고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했다.

길웅은 자동화요소들로부터 진동기축에 이르기까지 눈을 밝혀가며 탐구해보았다. 했어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낼수가 없었다. 머리는 천근같이 무겁기만 했다. 일남이와 명수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싶었다.

그들의 호실앞에 이른 길웅은 무춤 발길을 멈추었다. 방안에서 연신 탄복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길웅이가 방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명수도 일남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침대머리에 배낭을 꾸려놓은것이 있을뿐이였다. 동원갈 준비를 해놓은것이였다.

호실동무들은 한창 텔레비존구경을 하고있었다. 길웅은 무심결에 화면을 바라보았다.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축전종합공연무대가 화면에 펼쳐져있다.

여섯살도 되나마나한 남자애가 어깨를 달싹거리며 손뽕금을 켜고 빨간땡기를 단 머리를 가우똥거리는 어린것이 노래를 부른다.

《아이 조거-얹이가 두대씩이나 없는게... 하...》  
누구인가의 탄복어린 말소리에 뒤이어 웃음판이 터졌다.

《차 이런 좀 조용하지-》

호실에 모인 구경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감동과 즐거움으로 하여 맑은 호수에 파문이 인것 같았다.

이어 무대에서는 노래이야기가 시작되였다.

길웅은 홀린듯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선물을 두손에 받쳐들고 나온 어린이들이 마음껏 춤추며 노래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로 나라의 《왕》으로 애지중지 은혜로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 어린이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사드린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길웅은 저으기 가슴속이 뭉클해졌다.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는 저 어린이들, 그들이 주인이 될 조국의 미래는 그 얼마나 휘황찬란할것인가!

그의 뇌리에서는 문득 일남이와 명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즐거운 이 밤, 텔레비존앞에 명수와 일남이가 없는것이 마음에 걸리였다.

길웅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하늘 가득 짙 깔린 별들이 어린이들의 눈동자마냥 영글은 빛을 반짝이고있다.

천천히 발길을 옮겨가던 그는 눈결에 산업부채 생산현장 창가에서 누구인가의 그림자를 본것 같아 얼른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였다.

키가 작달막하고 오동통한 명수의 모습이 창문 너머 자동계기조작실앞에서 얼른거리였다.

길웅은 떠밀리운듯 현장으로 들어섰다.

일남이와 명수는 인기척도 듣지 못한듯 자동조절장치들을 해체해놓고있었다.

《...암만해도 모를 일인데.》

어텐가 김이 빠진듯한 일남의 말이였다.

《…………》

명수는 말이 없었다.

동원은 가지만 래일을 위해 자기들의 손으로 원인을 찾고 교훈으로 삼으려는 그들, 길웅은 와락 달려가 한품에 안아주고싶은 욕망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하지만 못박힌듯 한발작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전 텔레비전에서 본 어린이들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것이 유치원시절의 명수와 일남이로 되어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가슴속에 경건히 안겨오는 그들의 말소리!

그렇다. 명수와 일남이… 유치원시절도 소년단 시기에도 청춘의 오늘에도 오직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운 은혜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충성으로 보답해야 함을 신조로 간직하고있는 그들이다.

길웅은 조용히 명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제서야 혁명소조원을 알아본 명수와 일남은 자세를 바로가자려고 몸을 일으키긴 했어도 송구스러운듯 머리를 숙였다.

《일남동무, 왜 쉬지들 않고 또 나왔소?》

길웅은 짐짓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귀염성있는 처녀같이 입술이 알락한 일남이가 입을 열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안온다-》

길웅은 일부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두사람을 엿바꿔보았다.

《소조원동지 저- 사실은…》

명수가 손에 들고있던 자동계기부속품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뒤말을 잊지 못한채 머뭇거리었다.

《사실은 원인을 찾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나왔단말이지.》

《예?》

일남이와 명수는 거의 동시에 반문하고는 소조원의 얼굴을 뚫히 쳐다보았다.

길웅은 호탕하게 웃으며 두사람의 어깨에 다정한 손을 얹었다.

그제서야 명수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을 소조원이 듣고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던지 히죽 웃는 것이였다. 일남이도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벌쭉 벌쭉 웃고있다.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은 원인을 규명해나가기 시작했다. 쌍축진동기자동장치에서 중요부분을 이루는 동기화속도조절기구가 못쓰게 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전기부속인 손가락만큼한 축전기가 타면서 그 기구의 《심장》을 이루는 변압기까지 타버렸던것이였

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겠소?》

명수는 동기화로 된 진동기쌍축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지 못한 결과라고 대답했다. 정확한 답변이였다. 진동기축 하나가 용접한 부분들이 꺾어진걸보면 그 축이 순간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과부하가 걸린것이였다.

《정상운전을 하던 기계가 그렇게 된것이 이상합니다.》

일남이가 속눈섭을 깜박이며 하는 말이였다.

길웅이가 해명하지 못한 문제도 바로 그것이였다. 같은 속도로 돌아가던 쌍축이 왜 그중 하나가 회전이 바뀌었겠는가?

《어디 생각되는 점들이 있으면 말들 해보라구.》

자동계기조작실엔 잠시 생각깊은 고요가 깃들고있었다.

일남이가 무엇인가 짚이는것이 있는듯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소조원동지, 저는 직장장동지가 진동기축 회전속도가 달라졌다고 소리칠 때까지는 담부조절(동기화속도수치조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그럼 직장장동무가 진동기축 회전속도가 달라진걸 먼저 발견했단말이요?》

길웅은 의혹에 찬 눈으로 일남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일남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명수가 특대형 《특골》부재형판휘틀이 진동기우에 놓이자 십여톤의 혼합물을 쏟아부은후였다. 일남은 진동기자동조종단추를 눌렀다. 쌍축진동기는 지심을 울리며 돌아갔다. 바로 이때 진동기결에 서있던 직장장이 벼락같이 조작실로 달려들어오며 진동기축이 동기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일남은 눈앞이 아찔했다. 앞뒤를 가려볼 겨를이 없었다. 그는 거의나 본능적으로 담부조절기를 비틀었다. 그 찰나에 진동기에서 무서운 굉음이 일어나는것과 함께 《반도체식속도임폴스》에서 번쩍 불꽃이 일었다.

일남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있던 길웅은 저도모르게 불쑥 몸을 일구어세웠다.

그는 진동기에도 달려갔다. 그리고는 형판휘틀이 놓였던 자리를 다시한번 간간히 훑어보았다.

사고원인은 비로소 명백해졌다. 진동기우에 놓인 10여톤의 《특골》부재혼합물을 실은 형판휘틀이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것이였다. 그러다보니 진동기축이 동기회전을 했어도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힘을 덜 받은쪽 축이 빨리 돌아가는것으로 보일수가 있었다. 그것을 본 직장장이 기대를 세우라고 소리치는바람에 침착하지 못했던 일남이가 담부조절기를 비튼것이다.

길웅은 더 없이 분한 마음이었다. 그는 마치나 어깨를 지지누르는 힘겨운 짐으로 하여 가슴이 짓눌려우고있는 사람같이 큰숨을 들이켰다. 기능이 높은 사람이 운전했다면 직장장은 그러지 않았을것이었다.

일남이와 명수가 조용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지금도 직장장이 동기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소리친것을 그대로 믿고있다. 하긴 직장장역시 이 시각에도 자기가 정확히 본것으로 알고있을것이다. 그래서 일남이나 명수가 사고원인을 자동화요소나 기계부속에서 찾으려고 하는것이였다.

길웅의 사려깊은 눈길이 의혹이 어린 그들의 얼굴을 더듬고있다.

《사고원인은 동무자신들에게 있소.》

그들은 소조원을 눈여겨볼뿐 대답이 없었다. 길웅은 낮으나 매듭이 진 어조로 다음 말을 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가를 따져보고 교훈을 찾아야 하오.》

한동안 현장에는 길웅의 담담한 말소리가 울리였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가를 이야기하는 그의 어조에는 강한 설득력이 깃들어있었다.

《...그 어떤 정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동무들이 아니요?》

《소조원동지! 우리가...잘못했습니다.》

명수의 물기어린 눈에는 강한 자책이 비껴있었다. 일남은 말 한마디 못한채 깊이 숙인 머리를 외로 꺾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현장으로 전기용접기를 이끌고 수리공들이 들어왔다. 용접부분들이 꺾어진 진동기축을 수리하러 오는것이였다.

그것을 본 일남이가 불쑥 길웅의 앞으로 한발 다가섰다.

《소조원동지, 고장난 자동계기들을 우리가 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물기어린 그의 눈은 진심으로 바라는 강렬한 빛을 뿜고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밤중으로 우리가 수리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명수의 표정에도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굳은 결의가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자책과 기대어린 그들의 맑은 눈동자는 타오르는가하면 녹는것 같기도 하고 요구하는가 하면 사정하는것 같기도 했다.

《그래 자신 있소?》

《자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앞에 서있는 학생같이 몸을 곧추

펴며 한결같이 대답했다. 그리고 일남이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실습기간에 수리하는것도 배웠습니다.》

《반도체소자와 축전기는?》

《.....》

길웅은 문득 반도체소자나 축전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았어야 할걸 물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일남이와 명수는 서로 마주보며 무엇인가 약속하는 눈빛이더니 명수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나 그것도 해결해보겠습니다.》

길웅은 의미심중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것이 비록 저 나이의 자존심에서 오는 욕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태도는 길웅을 감동시켰다. 사고를 저지르긴 했어도 절망때문에 번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더우기는 그 누구의 동정이나 구원을 청하지도 않는것이였다.

어느결에 현장에서는 용접공들이 진동기축에 용접불광을 날리며 어둠을 지지고있다. 길웅은 밖으로 나왔다.

공원같이 숲이 설레이는 구내길에 나선 그는 향긋한 공기를 가슴가득 들이키며 천천히 발길을 옮기였다.

이름할수 없는 승엄한 감정이 가슴뿌듯이 차오른다. 구내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던가. 지난날 험벗은 몸에 채찍을 받으며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사람들, 직장장 최순현이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때로부터 근 반세기, 시대와 시대를 넘어 오늘은 새세대들이 걸어간다. 지주, 자본가가 어떤 놈인지, 짚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책에서나 박물관에서만 배워온 젊은이들, 그중에는 일남이와 명수도 걸어간다.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을 한몸에 안고 3대혁명붉은기 높이 날리며 가는 이 길! 그 길에서 혁명소조원, 혁명의 전위가 되라고 크나큰 믿음과 신임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

길웅은 눈앞이 확 트인 드넓은 광장에 서있기라도 한듯 얼굴가득 충성의 결의가 어린 웅심깊은 미소를 담고있었다.

《소조원동무가 아니요?》

그는 귀에 익은 말소리에 눈을 치켜올렸다. 직장장이였다. 그들은 서로 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가고 물어보고는 허허 웃음을 터치였다.

《소조원동무, 너무 걱정하는게 아니요?》

그는 길웅이가 밤중에 구내길에 서있는것을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긴 이달도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는 뒤말을 잊지 못한채 현장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현장쪽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직장장은 전동기축을 수리하는데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했다. 그가 우려하는것은 동기화자동조절기구였다.

《직장장동무, 명수네가 자동조절장치를 자체로 수리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실로 하는 말인가요?》

입을 다물지 못한채 길웅이를 바라보는 직장장의 눈에는 아직도 그들에게 미련을 갖고있는가고 묻고있었다.

《제 생각에는 그 동무들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그들이 찾았고 해체하였습시다.》

《허, 소조원동무, 터놓고 말해서 나로서는 그들에게 더는 내맡기고싶지 않습니다.》

직장장은 일남이네가 쿡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믿지 않을것 같은 표정이였다. 그는 길웅이가 말할 겨를도 없이 덧붙여말했다.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고 좀 더 단련시킨다음에 봅시다.》

길웅은 그러한 직장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직장장은 십년전에도 이십년전에도 나 어린 신입공들이 공장에 들어오면 우선 그렇게 대했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단련이 부족하고 행복하게만 자랐다고 해서 어찌 그렇게만 보겠는가.

일남이나 명수, 그 민감한 나이에 계급의식을 툭툭히 키워주고 자동화의 높은 기술을 안겨준다면 그들이 직장장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우리 조국은 더없이 높이 올라설것이다.

《직장장동무, 지금 그 동무들은 자신들을 뉘우치고있기에 잠들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조원동무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하여간 맡겨는 봅시다.》

직장장은 할수 없다는 투로 말하고는 손목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소조원동무, 생산을 책임진 나로서는 정말 난처합니다. 우리가 신입공들의 기능을 높여주느라고 생산계획을 못했다고 말할수는 없지 않습니다.》

(생산을 책임진 사람, 생산에 대한 책임...그 책임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있는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명백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뚜렷이 머리속에 밝혀질수록 직장장을 바라보는 길웅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직장장동무, 생산에 못지않게 아래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도 문제없을겁니다.》

길웅은 금시 이런 말이 입밖으로 나가려는것을 눌러삼키었다.

평생을 로동속에서 근면하게 살아온 직장장,

한개 직장의 생산을 책임진 그날부터 계획을 미달해본 일이 없는것으로 하여 자부심이 높은 그였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있는가?...

길웅은 직장장이 그 무슨 말인가를 남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소리를 듣고서야 펄쩍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을 찾아보았다.

(아니다. 꽃은 계속 피여야 아름다운것이다. 그를 잠시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길웅은 이 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눈앞에 그려보며 공장정문을 향해 씨엉씨엉 발걸을 내짚었다.

× ×

이른해돋이에 이슬을 머금은 나무잎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아침이다.

방금 변압기수리를 끝내고 전압시험을 해본 일남이와 명수의 얼굴에는 기쁨이 함뿍 어려있었다.

《됐구나!》

사고를 저지르고 숨죽인듯 직장장앞에 서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큰숨을 내여뿜는다.

일남은 또한번 스위치를 넣어본다. 전압계기는 틀림없이 잘되었음을 확인해주듯 정확한 위치에 서 동작한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고있다. 자기힘, 자기손으로 이룩한 창조물을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웃음이 었다.

《명수, 이제 빨리 가서 반도체소자하구 축전기를 가져오자.》

일남은 솟구쳐오르는 흥분을 금할수 없는듯 금시 밖으로 달려나갈것만 같았다. 얼핏 밖을 내다본 명수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일남이를 돌아보았다.

《일남이, 막상 텔레비존을 뜯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이상해지는구나.》

이렇게 말한 그의 얼굴에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소지품을 내놓기 아쉬워하는듯한 표정이 어리였다.

그들은 밤을 지새워 자동조절기를 수리하면서 반도체소자와 축전기도 마저 해결해보려고 고심했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자동화기구공장으로 찾아갈 생각이였다.

《자 이제 반도체소자와 축전기를 구하러 가보자.》

《좋아, 가자구!》

그들이 외출복을 갈아입고 막 출입문으로 나서려는 때였다.

《어델 가요?》

그 언제 들어왔는지 길웅이가 그들앞에 막아섰



다. 흠칫 놀란 명수와 일남은 대뜸 눈이 켜졌다.

《저...》

일남이가 머리를 숙이고 머뭇거렸다. 허끝까지 나왔던 말머리가 쑥 기어들어가고말았다.

길웅은 그들의 옆을 지나서 수리해놓은 조절기구를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밤새워 수고한 그들을 두고 대견스럽게 느끼는 자랑이 스스런 미소로 피어올랐다. 길웅은 구태여 마음 속에 젖어드는 감정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끝내 해냈구만, 장하오. 수고했소.》

그는 정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종이에 쓴것을 꺼내들었다.

《자 받으라구.》

일남이가 엉겁결에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의아히 소조원을 바라보며 종이를 펴보았다.

《야! 반도체소자와 축전기군요!》

《응?...》

일남이와 명수는 엇바뀌 반도체소자와 축전기를 만져보며 기쁨에 겨워했다.

길웅은 무엇인가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을 번지였다.

《명수, 일남이 어서 마저 끝내자구.》

그제서야 명수와 일남은 소조원의 모습을 눈여겨 살피었다.

아직도 땀에 젖어있는 얼굴, 어제와는 달리 폭 꺼져들어간 눈시울, 모질게 굵직한 신발... 그 어데가서 반도체소자와 축전기를 가져왔는가?

밤길을 걸은 소조원동지, 여기서 사오십리 안밖에는 그것을 가져올만한데가 없지 않는가!

《소조원동지!...》

일남은 목이 짹 잠겨 더는 말을 잇지 못한채 길웅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소조원동지 우리가... 우리가...》

명수 역시 뜨거운 격정에 말은 못하고 어깨만을 들먹인다.

《명수, 일남이!》

길웅은 품에 안긴 그들을 힘주어 껴안은채 한동안 아무말도 못했다. 미구하여 그들은 동기화 자동조절장치조립에 달라붙었다. 조립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길웅은 조립작업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자 명수와 일남이를 아침식사하러 보내었다.

어느결에 현장에는 출근길에 오른 로동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럴 즈음에 직장장 최순현은 승용차뒤좌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은채 공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감고비에 들어선 이달 생산계획을 두고 초조함을 금할수 없었던 직장장은 자동계기전문공장에 갔다오는 길이었다.

승용차는 공장정문으로 들어섰다.

직장장 최순현이가 자동계기조작실로 들어왔을 때였다. 마침 길웅은 완전조립을 끝내고 다시 한번 회로들을 검토해보고있었다.

두사람은 한동안 아무말도 못한채 마주보기만 했다. 이윽하여 길웅에게서 명수와 일남이들이 밤새워 조립작업을 끝내고 식사하러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직장장은 입을 반쯤 벌린채 형언할수 없는 표정을 짓고있었다.

그는 소조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하루밤사이에 그 복잡한 부속들을 조립해놓다니?!)

직장장은 자석에 이끌리듯 일남이들이 해놓은 동기화속도조절기구앞으로 바싹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았다. 변압기도 새로 감은것이고 축전기도 반도체소자도 새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이 선명하게 눈에 안겨들수록 머리는 더없이 복잡하기만 했다. 대견한 생각, 믿어지지 않는 현실, 난처한 립장-이러한 감정들이 마치 떠도는 구름들이 창유리에 그림자를 던지듯 주름잡힌 그의 이마우에 번갈아 나타나군하였다.

《직장장동무, 제 생각에는 그 동무들에게 기대운전을 그대로 맡겼으면 합니다.》

그 어느 먼곳에서 들려오는듯한 길웅의 말소리가 조용히 그의 귀벽에 울리었다.

그는 꿈속에서 깨어난듯 불시에 눈시울을 치켜올리며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길웅이가 침착한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있다.

두사람의 시선은 뜻없이 부딪혔다가 옆으로 비키었다.

《기대운전 말이요?》

직장장은 자기도모르게 이렇게 반문하고는 그것이 자기 목소리인가를 확인해보듯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소조원동무, 나도 그 동무들이 이렇게 수리해놓은걸 보니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제당장 기대만은 말길수 없습니다.》

비록 복잡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의 주견은 여전히 드팀이 없었다.

길웅은 너무나도 완고한 그의 얼굴에 시선을 박은채 놀라움을 금치못해했다.

《그 동무들에게 기대를 맡기는 문제는 좀 두고 봅시다.》

직장장은 간청에 가까운 어조로 덧붙여 말했다.

그는 더이상 자신을 자중하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직장장동무...》

직장장은 의외인듯 소조원을 바라보았다. 그만

큼 직장장을 찾는 길웅의 음성은 신중했었다.

《직장장을 책임진 사람인 직장장동무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책임을 못하고있습니다.》

직장장은 의아한 눈길로 길웅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언짢은 얼굴빛을 감추지 않고 고개를 쳐들었다.

《생산계획만 수행하면 자기 책임을 다한것으로 생각하는 직장장동무의 그 관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낮으나 걱정어린 길웅의 말소리는 거친 숨결을 뿜아쉬는 직장장의 마음속에 주저없이 날아들었다.

책임, 그 말속에는 책임일군들자신과 생산과제만이 아니라 보다더 중요한 노동자들을 책임진다는 뜻이 담겨있다. 거기에는 아래일군들의 사업과 생활, 그들의 전도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쳐가야 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의무가 깃들어있는것이다. 한대의 나무를 가꾸어도 하나의 부재를 생산해도...그러나 직장장동무는?

《나라에서는 더 없이 귀중한 보배로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애지중지 키워서 맡겨준 그들을 직장장동무는 어떻게 책임지고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동무들의 심장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과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씨가 박혀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성의 씨앗이 줄기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받들어주는 튼튼한 발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이 우리는 오늘의 생산에서도 래일의 생산에서도 자기책임을 다했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길웅은 더이상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불시에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라 말문이 막혀버린것이였다. 급시 불을 쏠을것 같던 직장장의 거친 숨결도 어느결에 잦아들었는지 자동계기실엔 잠시 숨엄한 고요가 깃들고있었다. 그러나 직장장의 얼굴에서 언짢은 표정만은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자기로서의 주장을 내세우고도 싶었지만 너무나도 사리정연한 길웅의 론거앞에서 대담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러한 직장장을 사려깊은 눈으로 바라보던 길웅은 어조를 바꾸어 《이번 사고의 원인도 직장장동무의 신입로동자에 대한 낡은 관점에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더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고원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가했다.

《아니? 그럼 내가 잘못보았던 말인가요?》

직장장은 저도모르게 반문했다. 그리고는 맥없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더 이상 소조원을 바

라볼수가 없었다.

때마침 명수와 일남이가 배낭을 메고 조작실로 들어왔다. 동원갈 준비를 해가지고 온것이였다. 그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듯 주저주저하며 동원가기에 앞서 직장장에게 자기비판들을 하러왔다고 했다.

《직장장동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동원가서두 실습에서 배워온것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명수의 진심이 어린 말이였다.

일남이도 의젓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직장장동지, 우리는 어데 가서 무슨 일을 하던...》

불시에 직장장이 머리를 번쩍 추켜들고 쏘아보는바람에 일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채 어쩔바를 몰라했다.

《썩 배낭들을 벗어놓지 못할가!》

직장장은 저도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음조에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떨림이 있었다.

일남이와 명수는 엉겁결에 배낭을 벗어놓았다.

《어서 기대를 잡아.》

《예?!》

《어서!》

《직장장동지!》

일남이와 명수는 와락 직장장의 량팔에 매여달렸다.

《너석들!...》

이렇듯 입속말로 뇌이는 직장장의 눈시울은 뻔짓하니 달아있었다.

이윽고 수리한 기계를 시운전해보는 신호종소리가 울리였다. 이어 지심을 울리며 진동기가 돌아간다. 진동기옆에 서있던 직장장은 났을 잃은듯 조작실에 앉아있는 일남이와 명수를 바라보고있다.

의젓하게 앉아 자동계기들을 다루는 세세대, 저 나이에 자동계기들을 안았으니 진정 내 나이에 가서 그들은 그 얼마나 높이 올라설것인가!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직장장 최순현의 눈앞에는 자동화의 찬란한 세계가 우뚝이 안겨왔다.

《직장장동무, 기계소리가 고르롭군요.》

직장장은 길웅의 말소리에 펄쩍 정신을 가다듬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소조원동무!...》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한채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쥐였다.

《직장장동무!》

혁명소조원 김길웅은 얼굴가득 자랑찬 미소를 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때마침 아침해살이 밝게 비치는 현장으로 작업복을 입은 로동자들이 들어오고있었다.

## 그대의 모습은 멀어져가도... 외2편

리영백

터지는 환호성... 설레이는 꽃물결...  
깨끗한 흰눈도 송이송이  
축복의 궤도우에 내리는 역두에서  
잘 가라고, 잘 다녀오라고  
몇번이고 당부하던 그대의 숨결이  
달리는 차바퀴의 열풍으로 굽이치는가

하늘땅에 가득히 기적소리 남기며  
길고 긴 직통렬차는 구내를 벗어나는데  
상기도 못다 기울인 정이 있는듯  
자욱히 내리는 눈발속에  
오래오래 손저어주는 그대  
한없이 정다운 소조원동무여,

차창너머 다시 다시 바라볼수록  
이 가슴에도 소리없이 이슬이 내린다  
달리는 기관차우에서  
첫 인사를 나누던 그날  
그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열렬하였던가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이 길을  
기쁨의 곧은길로 함께 열어가자고...

참으로 잊을수 없구나,  
만부하를 건 운행시간표를 두고  
엿바귀는 사령원들과 함께  
엿바귀는 몇밤을 지새운 그대  
새벽의 창가에 날리던 그 밝은 웃음이  
오늘에 환희로운 시간을 불러왔구나

눈 오는 아침에 폭우의 저녁에  
공장과 농장을 찾아 걸으며

마음과 마음을 집중화물역에 합쳐주고  
구간마다 견인정량을 새겨갈 때  
신심의 받침목을 우리도 껴였다  
한생을 이 길에 달려왔어도  
산 많고 구배가 높아  
누구나 업두를 못내던 오늘의 이 길에...

아, 길도 그 철길  
차도 그 기관차이건만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단 하나 그대의 무조건성이  
혁신의 로반으로 되고 속도가 되어  
여기에 태어난 직통렬차의 새 구간이여

기세도 좋다  
불어오는 바람결도 한결 후더워라  
쿵쿵...  
무겁게 울리는 차바퀴들의 쇠북소리 따라  
멀리 가까이 키를 솟구는 공장들도  
환희를 터치듯 문 열여젓히는 마음들도  
우줄우줄 따라서는 집중수송의 이 길!

바람을 일구며 렬차가 달려갈수록  
한없이 정다운 그대는 멀어져가도  
3대혁명소조원동무여,  
직통으로 열린 충성의 넓은 길우에서  
고마움에 젖는 차창 가득히 어려오는 그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기관차 앞머리에 휘날리는 기발의 위치에  
서있구나

## 철길 만리에 꽃이 피네

철길 만리에 꽃이 피었네  
송이송이 천백가지 꽃이 피었네  
바람처럼 달려가는 차창 가득히

향기를 풍겨주는 꽃송이 꽃송이...  
이 가슴에 날아들어 설레이는가  
뜨거움에 젖어드는 꽃송이 꽃송이...

송이송이 속삭이네, 두줄기 궤도 따라  
포기포기 꽃을 심던 뜨거운 그 마음,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밤마다  
철길우에 나뭇기는 붉은넥타이들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길이기에  
알알이 자갈 퍼고 잔디도 심더니

벼랑밑 구배길에 눈보라 쌓일 때면  
눈가래, sap을 들고 달려오오더니

수송전사 우리 충성 열매로 맺으라고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피어나라고

폭풍과 우뢰를 몰아가는 이 철길에  
정성담아 심어가꾼 꽃송이 꽃송이...

온 나라가 위훈의 이 가슴에 달아준듯  
가도가도 끝이 없는 꽃송이 꽃송이...

아, 철길 만리에 꽃향기 넘치고  
꽃향기에 떠실려 렬차는 달려가네

향기 싣고 노래 안고 기적소리 울리면  
가는 기쁨 보는 기쁨 꽃들이 웃어주네!

## 그들은 두사람

달리는 기관차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하는 그들은 두사람  
나서자란 고향은 서로 달라도  
나무리 황금벌이 차창가에 파도치면  
한줄기 기쁨의 여율이 가슴마다 흘러드네

검푸른 산발도 폭우속을 헤엄치는  
가파로운 구배길에 렬차가 들어설 때  
제어기 틀어잡는 기관사의 긴장한 그 마음  
생김새도 성미도 서로 다른  
조사의 눈빛에도 번개처럼 달리네

벼랑끝에 기적소리 남기고 돌아서자  
춤추며 마주오는 불빛 불빛...  
별무리 밤하늘에 파란 신호등이 웃으면  
목소리는 서로 달라도  
주교받는 창호응답은 한결같아...

《차맛이신호 열림!》  
기쁨 어린 조사가 먼저 웨치니  
《차맛이신호 열림!》  
받아외우며 받아웨치는 그 목소리

마치도 이 산 저 산 올려가는 메아리런가

오, 말은 임무, 먹은 나이는 서로 달라도  
순간의 생각  
순간의 숨결조차  
언제나 하나로 이어 고동치는 그 마음들  
어찌 하나의 기관차를 타서만이라

바라보이는 조국의 산과 강줄기들...  
어데라없이 반겨부르는 대건설전투장마다  
미 길에 서면 하나같이 정다운 고향,  
이 길에 달리는 마음들이  
수도의 시계탑에 하나로 닿아 고동치기에  
그들은 삶의 전부를 합쳐 산다네

오오, 《수송혁명200일전투》의 길우에  
그들은 하나의 심장을 가진 두사람!

그 언제 그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 한뜻으로 숨쉬며  
청춘도 희망도 몸과 마음도  
충성의 궤도우에 불태우며 달려가네

# 수송선단 떠난다

정영호

두둥실 들몰 타고 들어온 배  
셀물에 떠나보내자고  
물거리전투로 드바쁘던 부두  
좋아라 떠들썩해라  
먼 배길 떠나가는 집중수송선단  
바다 한가득 띄워놓고...

지계차운전공처너들  
파아란 머리수건 벗어 흔들어주고  
구름가의 향만기증기는  
집채같은 바가지를 반공중에 주억주억...  
온 부두가 따라나서네

푸른 하늘아래 춤추는 배길  
도래굽이 돌아들면 초도도 한참길  
장산곶 안고돌며 몽금포, 고암포  
은모래 금모래 반짝이는 기슭에도  
한나절이면 미끄러져 닳아

즐거워라  
배고동을 울려라  
온 나라에 차길은 혈맥처럼 뻗어있어도  
조국땅의 한끝 변방길  
기차로 몇백리, 차로 몇백리  
에돌아가야 하는 머나먼 그 길을  
곧바른 지름길로 열여가는 배길은 좋아

그리운 물을 떠나  
사시장철 파도우에 살아도  
폭풍우를 뚫어, 난바다를 넘어  
등대불 반겨주는 포구들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배길은 좋아,

흘러가네  
두둥실 어마어마한 대형수송선단이  
선창마다 미여지도록  
세멘트며 아람 번 통나무, 또 통나무더미들  
층층 기슭들에  
새로이 솟아올릴 조국의 새 모습들이 실려...

먼곳의 자식들에 더해지는 그 사랑  
어머니 조국의 다심한 그 사랑  
조국땅이 끝나는 그 먼 기슭들에  
파도 사나운 그 외진 섬기슭들에  
그 인제나 더해지더라  
더해지더라!

눈석이물이 산에 들에  
이랑이랑 흘러내릴 때면  
벌써 서둘러 포구마다 띄워주더라  
선창이 넘쳐나는 종곡배, 희디흰 비료산  
파릇파릇 뽕상모판의 비닐박막  
한랭전선을 밀어  
남먼저 강우기며 양수기...  
철따라, 계절에 앞서  
새라새로운 아이들의 교복까지...

아! 그 옛날엔 문명에서 멀리 버림받아  
나왔았던곳  
세상의 한복판에서 밀리고 밀려나  
더없이 한스럽던 그 설움과 눈물의 기슭들에  
오늘은 사랑을 실어 기쁨을 실어  
들끓는 조국의 한복판과 하나로 이어주며  
수송선단 축복의 배길 떠난다!

## 들끓는 조국땅을 달리며

김산옥

하루에도  
자동차를 끌고 그 몇백리  
금빛이삭들이 설레이는

풍요한 들길을 달릴 때  
철탑우에서  
용접불꽃이 터져내리는

들끓는 건설장을 지날 때

하많은 부탁과  
조국의 엄숙한 부름인듯  
달리는 자동차들을 향해 흔드는  
그 믿음에 찬 손길들을 바라보며  
화답하듯 정적을 울리는 젊은 운전사

생각도 깊어라  
적재함 가득 실린  
나라의 재부와 함께  
굽이굽이 자동차길우에  
그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이 흐르고있는것인가

차창가에 비껴오는  
하나의 구호  
하나의 그림에서도  
수송혁명으로 들끓는 조국의 숨결이  
운전사의 가슴을 두드리나니

청년돌격대원들의 함성높은  
발전소 건설장,  
가슴에 피를 끓여라  
새로 일어선 기중기들이  
긴 팔을 휘젓는 하늘가에  
높이 울리는 예술인경제선동대의 노래소리...

얼마나 뜨겁게 안겨오는 모습들이나  
광산마을이 바라보이는 역구내  
타오르는 해불밑에서  
새 차길을 닦는 돌격대원들을 도와  
흰 자갈을 다져넣던 인민반 녀성들이여

산협에 깊은 눈이 쌓일 때  
세찬 바람이 폭우를 몰아올 때  
외진 산중  
자동차길을 지켜섰던 산간마을사람들  
락석감시원의 미더운 모습인듯  
정다운 발동소리에  
그토록 밝게 빛나던 그 눈빛들이여

아, 위대한 수령님 심려하시는  
그 한길우에 굽이치는 인민의 충성은  
이리도 뜨거운것이여라  
온 나라가 수송혁명의 불길을 추켜들고  
조국의 한길우에 일떠섰나니

전변의 나날을 엮어가는 땅우에  
새 발전소들 조업의 테프를 날리고  
밝은 창문들을 떠인 화려한 도시가  
환희에 차 웃으며 하늘가에 일어서누나

공장이라, 농촌이라  
파도치는 항만이라  
철과 기계,  
석탄과 비료를 싣고가는 젊은 운전사  
눈시울엔 보람높은 미소가 물결치고  
가슴속엔 기쁨이 소리친다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에로 내딛는 이 길  
온 나라의 마음들이 지켜선 수송전선-  
기관차들은 두줄기 궤도따라 번개를 날리고  
자동차들은 땅우에 폭풍을 일구나니  
아, 어찌 차창가에 비껴오는 조국의 모습이  
나날이 아름답게 변모되지 않으랴!

## 만풍년의 노래

### 서진명

수월하게 차레진 풍년이라면  
너를 맞는 기쁨 이렇듯 클수 있으랴  
금파의 물결 끝없이 일어번지는  
일망무제한 벼바다여!  
등성이 한끝까지 들어찬 강냉이숲이여!

너는 노래하는구나  
온 세상이 다 보도록 금빛이삭 추켜들고  
올해의 이 풍년, 이 기쁨을!  
하늘의 번덕을 이겨내고  
온 땅을 만풍년포전으로 무르익힌  
우리 인민이 이 궁지 이 힘을!

피할수 없는게 한랭전선이라고  
세상사람들 아우성쳐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하늘도 우리의 뜻대로 열리고  
땅도 만풍의 열매를 저웁도록 떠실었거니

익은 낱알이 바다처럼 넘실대는  
들을 봐도, 언덕을 봐도  
어려오는구나  
절기를 가늠할수 없던 바람 찬 봄날에  
모를 낼 날자까지 의논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친근하신 영상이,

경사로운 4월의 봄명절날에도  
우리 수령님  
밭머리 우물가에 계시던 그날을 잊을수 있으랴  
끝없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이 땅에 뿌리깊은 생명수는 흐르고  
인민은 하늘도 땅도 다스릴 담력을 지니지  
않았더냐!

눈석이바람을 가슴으로 막으며  
어린 모들을 푸르싱싱 자래운것도  
애벌김을 매며 해를 지우고  
우물을 파며 새벽노을을 맞던  
그 나날의 수고로움도  
우리 수령님 믿음으로 안겨주신  
만풍의 이 가을 이 풍년때문이 아니였더냐!

우물과 줄짠에서 뿜어올리는 맑은 물이  
열파를 휘몰아오는 하늘가에 무지개를 일구던  
삼복의 그 한낮  
다락밭의 강냉이포기들도 키를 솟구고,  
그 단비에 몸을 적시며

위대한 그 사랑에 목매여 흘린 눈물  
아직도 우리 가슴에 있어라!

받들면 하늘도 움직일 힘이 되고  
꽃피우면 세상만복이 되어  
행복을 빛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뜻이여!  
그 품속에 살며 일하는 행복이여!  
금나락 금물결에 실려 온 누리에 빛나라

아, 복된 우리 삶 이 땅에 영원하라고  
우리 수령님 마련해주신 이 가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마음이  
황금열매로 맺힌 이 계절!

만풍년의 기쁨으로 뒤덮인 이 땅의 끝까지  
끝없는 감사의 노래 울려퍼지는구나!  
우러러 젖어드는 눈가에  
하늘땅보다 더 크게 안겨오는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이여!

## 산촌의 가을

### 권대여

머루다래 익기도 전에  
찬서리 내릴세라  
산촌의 처녀들 다락밭에 오르면  
뒤쫓아 단풍이 빨개지는 가을

까치봉 달래봉에 설레이는 강냉이풍년  
온 가을 실어내려도 끝이 없겠다고  
이삭따기 첫날부터 걱정이더니  
시오리 하늘길에 삭도가 날은다

열이삭을 못따서 바구니 차고  
대바구니 한둘이면 삭도가 넘친다고  
이 산 저 산에 메아리치는 웃음속에  
두둥실 떠흐르는 삭도여

비탈밭 층층이 다락을 지어  
강냉이영양단지 밭에 내던 봄  
찬서리는 높은곳에 먼저 온다고  
이삭마다 해쪼일 날수를 따지며  
실어올린 거름바린 얼마이더냐

가득있이 시드는 가물에도  
이랑마다 물소리 풍년을 속삭이더니  
까치봉 달래봉을 휘감은 나락  
삭도줄에 매어서 풀어내리는가

한이삭의 강냉이 알수를 두고도  
열이 넘는 가슴들이 바람을 막았고  
한이랑의 다락밭 개꼬리를 두고도  
밤새워 꽃가루 날리던 처녀들

그 마음 그 정성이 쌓이고 덧쌓여  
무겁게 드리운 이삭이 되였더냐  
삭도바가지 넘칠듯이  
마음도 훨훨 함께 나는 기쁨속에  
충성의 봉우리, 만풍년의 황금봉에 웃음짓는  
처녀들아  
흰구름 수건삼아 이마에 두르고  
온 세상에 떨치는 주체농법의 승리여  
수령님 안겨주신 그 사랑 목매여  
감사의 눈시울 적시는 조선의 가을이여

봄날의 우박도 가물도 태풍도  
수령님 사랑으로 다스려주시고  
이삭이 무거울세라, 일손이 힘들세라  
두둥실 삭도바가지 날게 해주신  
고마우신 그 은덕 노래부르며  
찬서리 내리기전에 삭도가 흐른다  
심심산촌 골짜기를 누비며  
충성의 로적가리 하늘을 날은다  
하늘에 땅우에 황금의 나락이 흐른다

## 늘쌍 내가 캐내는 석탄이건만...

한원희

탄이란 무엇인가  
두손 모아 한웅큼 쥐면  
가슴가득 기쁨이 넘치고  
소중히 탄벽을 어루만지면  
이 마음 깊은곳에 뜨거움이 솟아라

늘쌍 내가 캐내고 실어내건만  
하루만 못캐도 사무쳐 그리웁고  
채탄기를 들고 탄을 켤 때면  
언제나 처음인듯  
행복이 밀물처럼 이 몸을 감싸라

탄부의 이 손을 꼭 잡으시고  
동무들을 보니 힘이 생긴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수령님  
수령님 모시고 홀리던 감격의 눈물  
로동의 나날 충성으로 쏟아지던것이  
내가 캐는 탄이더라

일이 힘들세라 자동채탄기며 적재기...  
세상에 좋은 기계란 기계는 다 보내주시고  
막장 한끝까지 달아주신 형광등불빛아래서  
고마움에 목메이던 이내 마음을  
탄이여, 너만이 알고있어라

목메이는 감격도 탄과 함께 나누었고  
청춘의 환희도 탄과 더불어 속삭였나니  
평생의 웃음도 탄을 보는 웃음이었고

평생의 이야기도 탄을 캐는 이야기였어라  
  
탄이 없으면 내 삶이 있으랴  
캐고 캐도 다함없는 이 충성, 이 석탄  
내 마음을 안고  
탄은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번개를 일으킨다

백광이 뚫어번지는 보이라의 불길  
타빈을 돌리며 전기를 일으키며  
탄은 거대한 화력으로 말해주어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탄부의 충성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온 조국땅을 더웁히는 열로  
온 조국땅을 밝히는 빛으로  
탄은 낮이나 밤이나 빛내주어라  
천길막장에 사는 탄부의 마음을!

탄이란 무엇인가  
두손 모아 한웅큼 쥐면  
가슴가득 기쁨이 실리고  
탄이 가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이내 마음 불꽃으로 피우는것이어

탄이 뿜는 열도는 뜨거운 내 사랑  
탄이 내는 빛발은 밝은 내 행복  
그것 없이는 탄부인 나도 없고  
그것 없이는 조국의 번영도 없는  
오! 탄이여, 내 소중한것이어!

## 포구마을사람들

김영남

홍성이는 풍어의 바다...  
설레이는 포구의 기쁨...  
밀물따라 들어오는 고기배  
썰물따라 떠나가는 운반선  
마중하며 배웅하는  
서해기슭 포구마을은 언제나 들끓네

어창에도 갑판에도 넘치는 물고기-  
검실검실 별에 탄 모습들이  
너울너울 갈매기 날려보내며  
신이 나서 닻줄을 드리우면  
우중충 숲을 이룬 철갑선들사이로  
잔파도 일구며 들어서는 발동선들...



남편들과 아들들과 오빠들이  
수평선 저 끝으로  
웅기종기 저 섬으로  
멀리 가까이 어장을 찾아갈 때  
가는 마음 보내는 마음 함께 불탔거니

그들이였어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라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들고  
얼음덩이 밀어내며 첫 출어에 나섰던  
뜨랄선, 안강망선의 담찬 어로공들이

그들이였어라...  
펄펄 뛰는 물고기를 산처럼 받아안고  
낮에는 하선장의 가공처리에  
밤에는 배사람들 밥상에 놓을 식찬에  
일손도 성수나던 아낙네들이

술술바람도 잠들어 잠풍한 수면-  
거울같은 바다위에  
돌아오는 운반선의 배전이 남실대면  
누가 모른다거나  
무전수처녀들이 알리기도전에  
어장은 어장마다 풍어가 한창인줄

떨쳐나 손저어 고기배를 맞는  
기쁨에 넘치며 어깨춤 질로 나거니  
바다의 풍년에 땅의 풍년 안기잔다

생선이야 배우에도 꾸밈하련만  
철에 앞서 첫물이라 터칠 환성속에  
바다의 새 혁신을 함께 돕잔다

정성들여 물을 올린 색고운 갯김치  
별맛이라 서슴없이 또 한그릇 청할테지  
오이랭국, 풋고추에 흐뭇한 어로공들  
한기만에 한배가득  
옥실대는 바다고기 퍼올릴테지

둥근 달 병실 옷는 갑판우에서  
손풍금수 둘러싸고 흥에 겨울 때  
학생들이 써보낸 축하편지속에  
들어있는 꽃보라 바다에 뿌릴 그들  
뜨거운 마음들은 얼마나 설레이라

아, 어로공들, 안해들, 어린이들도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며  
불타는 한마음이여  
그이께서 바라시는 물고기들을  
기어이 잡아낼 충성을 안고  
들끓는 바다, 들끓는 포구여!

바다에 사는 마음  
땅에 사는 마음  
날을 따라 오고가는 깊은 정은  
가는 배... 오는 배...  
풍어속에 두텁다네!

## 새로 나온 책

### 중편소설 《뜨거운 일터》 (허춘식 작)

문예출판사 발행 4×6 판 276 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

이 작품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것이다.

어느 한 화학공장에서 카바이드의 로하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주인공 김대선의 투쟁을 통하여 모든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혁명에 투신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사상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참다운 탐구적인 생활을 통하여 처녀연구사의 혁명화과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보람찬 로동속에서 청춘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흥미있게 보여준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것이다.

# 앞선 사람

김성관

저녁이었다.

한껏 푸르려진 강가의 개버들숲속에 노을이 짙게 물들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는 쇠물빛의 아름다운 노을은 강기슭 골재장에 육중하게 들어앉은 굴착기운전실 창문에서 류다르게 번쩍거리며 빛을 뿜고있었다.

3호굴착기 2교대 건설공 봉일은 황홀한 심정에 잠겨 잠시 일손을 멈추고 운전실벽에 호리한 몸을 비스듬히 기대며 고개를 들어올리었다. 그러자 노을은 구리빛으로 타기 시작한 말쑥한 그의 얼굴이며 이마위로 흘러내린 굵실굵실한 앞머리를 삼시에 빨강게 물들이었다. 한창 영어가가는 노을을 이지러뜨릴것 같아 저어하는듯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던 봉일은 이윽하여 흘러내린 앞머리를 슬쩍 쓸어넘기자 설렁한 목을 세우고 어글어글한 눈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금시에 한품에 안길듯 건설장이 장엄하게 펼쳐져있었다.

아찔하게 솟아오른 첩탑들, 지구의같은 뿔탱크들,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배관들, 건물들... 긴 팔을 허공중에 뻗친 대형탑식기중기들이 온통 붉은 노을빛으로 변해버린 건설장의 먼지구름속을 헤엄치듯이 서서히 움직여간다. 번쩍거리는 전면삽을 이마에 건어붙인 불도젤들이 요란스레 땅을 구르며 어디론가 급히 줄지어 달려간다.

열론짜리 《자주》호들이 새까만 연기를 뿜어올리며 련달아 쫓무니를 물었다. 적재함마다 모래와 자갈이 듬뿍듬뿍 실렸다.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자!》

굴착기들의 무쇠팔뚝들에도 이런 힘있는 글발이 붙어있었다.

며칠전 건설자들은 쫓기모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제1계단공사를 끝낼것을 결의하여나섰다. 뒤이어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리기 시작했다. 며칠사이엔 건설속도는 배이상으로 켄쵸 뛰여올랐다. 골재의 요구량도 그만큼 늘어났다.

굴착기운전공들은 막 신바람이 났다. 그들에 의해 전적으로 골재가 보장되고있는것이였다. 특히 여기서 자갈은 골재중에서도 《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보면 굴착기운전공들이야말로 건

설의 기본핵을 담당하고있는셈이였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굴착기운전공들은 같은 건설자들사이에서도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되는것이다. 엄청나게 큰 무쇠덩어리를 손안에 넣고 나긋나긋하게 다룬다는것자체가 통쾌한 일이였지만 대화학공장을 일떠세우는 건설장에서도 중요부분을 담당했다는 높은 긍지, 그것으로 해서 봉일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수 있었고 웃을수 있었다. 그런만큼 봉일은 한바가지의 골재를 두고도 신경을 썼으며 경쟁에서 남들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건설장에 한자동차의 골재라도 더 보내기 위한 켄쟁은 굴착기호상간에도 심했지만 한 굴착기내의 교대간에도 양보없이 켄행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승벽다툼이 더욱 드세기는 켄습공들사이에서였다. 켄습공들은 다른 굴착기나 교대들에서 몇자동차나 실어주었는가 하는것을 미리 알아내려고 은근히 애를 썼고 그것을 알아낸 다음에는 한차라도 딛고올라서려고 분초를 다투어 애쓰곤 하였다.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의례히 골재장 한복판에 립시로 만들어놓은 켄쟁도표판앞에 모여 들곤하였다.

봉일의 눈앞에는 어깨다툼을 하듯 줄줄이 뻗어오르는 켄쟁도표판의 붉은 줄이 선히 떠올랐다. 오늘은 어느 굴착기, 어느 교대가 앞설것인가?

봉일은 문득 잠시나마 굴착기를 멈추고있다는 새삼스러운 충격을 받자 놀라듯 운전변을 앞으로 쑥 잡아당기였다. 순간이나마 굴착기를 멈추다니! 봉일은 그런 자신을 질책하며 자갈을 퍼대기 시작했다.

봉일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창 일을 하는데 《작업 그만!》 하는 구령소리가 들렸다.

봉일은 얼른 운전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밑, 자갈무지엿에 운전공 인섭이가 너부죽한 얼굴에 시물시물 웃음을 담고 서있는것이였다. 그는 봉일을 보자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하며 머리로 한손을 척 들어올렸는데 그 손에는 손바닥만한 수첩이 펼쳐진채 쥐여져있었다. 봉일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에 저도모르게 약간 얼굴을 쩡그리였다.

아니나다를가 교대시간까지는 아직 한 반시간 실히 남아있는것이였다. 바로 그 수첩을 퍼드는

날이면 드문히 이런 일이 생기곤했던것이다.

《왜 그래요?》

봉일은 운전칸 창문으로 상반신을 쏙 내민채 맞갖지 않게 물었다.

《발동을 끄오.》

《아직 뭐...》

《글쎄 그라니깐.》

봉일은 할수없이 발동을 끄고 운전대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인섭은 봉일에게 수첩을 펴보인다. 기계점검수첩이다. 그속에는 별것이 다 있다. 지어는 리데판 나트는 몇번을 돌리면 완전히 죄여진다는것까지 다 적혀있다.

《하마트면 농칠번했소.》

인섭은 이렇게 말했다.

바가지당김쇠바줄과 바가지고리를 권결하는 쇠바줄을 교체할 날자가 되였다는것이였다. 인섭은 교대전에 교체작업을 끝내야 한다면서 일차비를 서두른다.

봉일은 그러는 인섭이가 저으기 못마땅하여 인섭의 일손을 거들어줄념은 하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있다. 대뜸 불이 부어올랐다.

《조금만 더 못견디겠시오?》

《견딜수야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가 고쳐야지. 그리구 이것보오. 어느 교대에서 교체하건 그만한 시간이 없어지는데는 마찬가지지. 안그런가?》

인섭은 한껏 너그러워져서 봉일의 등을 툭 쳤지만 봉일은 그러는 인섭이가 불만스러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인섭의 말이 그른데는 없었다. 그런것쯤 모른다고 할 봉일이가 아니였다. 그러나 교대가 따로 있고 교대별 생산실적이라는것이 제각기 있는 이상 어디 그런가. 하기에 현장도표판에서는 붉은 줄을 그으며 교대시간에조차 승벽을 다투는게 아닌가.

봉일에게는 도무지 인섭이 그런것에는 머리를 쓰는것 같지 않았었다.

그러기에 며칠전 작업총화때에는 이런 일까지 있어 봉일을 아연하게 만들었던것이였다.

수십명의 운전공들과 견습공들이 빼곡이 모인 직장휴게실에서 부직장장아바이가 운전공들을 한사람씩 일으켜세우며 실적대조를 하고있었다. 몇차씩이나 실어주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인섭의 차례가 되였다. 부직장장아바이는 인섭이네 교대실적을 먼저 말한다음

《웁은가?》

하고 물었다. 인섭은 대답을 못했다. 머뭇거리

다가 잠시후에야 말했다.

《스무차만 빼주시오.》

인섭의 뜻밖의 대답에 놀란것은 봉일이뿐만이 아니였다. 부직장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한참이나 펜을 멈추고 인섭을 바라보았다.

《우리 교대에선 매 자동차에 제량대로 못실어줬습니다. 자동차길이 나뻐터던요.》

인섭의 말에 부직장장은 감동되어 고개를 끄덕거리였지만 봉일은 등이 달아 얼굴이 빨개졌다. 자기네교대가 단연 첫자리를 차지할줄 알았던 봉일이인지라 그럴만도 했던것이다.

《왜 제량대로 못실어줬다고 그래요?》

봉일은 종시 참아내지 못하고 툭 내쏘았다. 인섭은 그러는 봉일에게 타이르듯 너그럽게 웃어보였다.

운전공들과 견습공들은 놀란 시선으로 혹은 공감하는 눈길로 기능공과 견습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봉일은 후끈 달아 안절부절했지만 인섭은 그저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그래서 봉일은 더욱 약이 올랐고 인섭에 대한 그 어떤 반발심까지 갖게 되였었다.

사실 봉일이 굴착기운전공양성소를 졸업하고 인섭이네 교대에 배치받았을 때 그의 기대는 매우 컸었다. 한것은 운전공 인섭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컸기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인섭을 우수한 운전공이라고들 했었다. 부직장장아바이역시 봉일을 인섭이네 교대에 배치하면서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했던것이다.

원래 봉일의 포부대로 한다면 제일 락후한 굴착기에 배치되어 말썽 많은 운전공 몇명쯤 식은 죽먹기로 척 개조해놓은다음 1년후에는 벌써 그 굴착기를 으름가는 굴착기로 끌어올려 영웅까지는 몰라도 신문같은데는 적어도 몇번쯤 나고 건설장적으로도 몇손가락안에 꼽히는 모범운전공이 되는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처음부터 우수한 굴착기에 배치받은것이 조금도 섭섭할것은 없었다. 왜냐면 우수한 굴착기에서 일하게 되였으니 처음부터 같은 또래 친구들중에서 단연 앞서나갈 수 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봉일은 아직 한번도 앞서는 문제를 영예와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이러한 봉일이기에 그는 배치받던 그 첫날, 인섭이 《봉일동무! 그래 자신있지!》 하며 자기의 두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대뜸 그가 영예를 소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었다. 영예를 귀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투쟁할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봉일은 좋아했던것이다. 하지만 인섭에 대한 봉일의 기대는 점점 버그러지기 시

작했다.

봉일이 굴착기에 배치받았을 때 그역시 처음엔 인섭의 그러루한 소행에 공감을 표시했었다. 그럴뿐더러 인섭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봉일은 점점 인섭에게 자기교대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가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 실적대조를 계기로 봉일은 자기의 그 불만을 터뜨려놓았으며 은근히 엇서기 시작했었다. 그게 어디 봉일이자신만을 위해서인가? 봉일은 결코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았다. 교대를 위한다는것, 그것은 곧 인섭이 자신을 위한것으로도 될것이다. 그뿐인가. 전체적인 굴착기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도 해롭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대 건설공사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할진대 그는 인섭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나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저으기 기분이 언짢아진 봉일은 더는 인섭이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쇠바줄고리교체작업을 하는 그의 일손을 마지못해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봉일이 작업장에 이르니 인섭이가 1교대운전공 병준이와 교대시간문제를 두고 싱갱이를 하고있었다. 교대친구들이 일을 얼마나 세관게 해제겼는지 밤새껏 자동차에 실려보내고도 골재가 아직 산처럼 쌓여있었는데 병준은 그 자갈을 마저 실어주고 교대인계를 해주겠다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적어도 반시간이상 걸려야 할텐데 병준은 그만한 시간을

래일교대때에 보충해주겠다고 했다.

인섭은 교대시간은 어길수 없다면서 병준의 제기를 가볍게 밀박는다. 병준은 막무가내다. 떡심 좋게 병글거리며 굴착기를 그대로 떡 타고앉아서는 일을 계속할차비다. 일욕심이 보통이 아니였다.

봉일은 그저 인섭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했건만 인섭은 사람 좋게 웃기만 했다. 교대시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듯이 굴착기주위를 돌며 기계를 살피고 기관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봉일에게는 그러는 인섭의 태도에 부화가 치밀었다. 병준이 좀 렴치없는것은 있지만 그 일욕심만은 얼마나 미더운것인가! 인섭에게 그런 욕심이 좀 있다면... 차칫하다가는 아침부터 귀중한 시간을 또 잘리울수 있는것이다.

봉일은 은근히 안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운전공들 하는 일에 견습공이 중뿔나게 뛰어들

수도 없는터여서 그저 속이 한줌만 해가지고 서성거리는데 운전대에 앉은 1교대견습공 수남이까지 눈을 깜벅거리며 한수 더 뜨려든다.

《여, 봉일이, 다리쉽이나 좀 하라구!》

그 소리에 봉일은 대뜸 발끈했다.

《까불지 말라!》

그는 성난 수탉의 벋처럼 귀바퀴까지 새빨개가지고 수남이를 마구 쪼아댈듯이 덤비였다.

일이 그쯤돼가는데도 인섭은 그저 사람 좋게 웃을뿐이다.

사람이 저렇게도 무르다구야, 안될것 같았다. 운전공이 무른대신 견습공이나 이악하게 굴어라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교대인계를 하자고 막 소리치려는데 인섭이 운전대로 닝큼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병준의 꺼부정한 등판을 철썩 갈겼다.

《사람두! 웬 그리두 욕심이 많은가! 봉일동무, 어서 교대준비하오!》

그제야 봉일은 휴-우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한낮이 되어서야 봉일은 인섭에게서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입이 벌쪽해진 그는 런닝그바람으로 자리에 척 들어앉았다.

운전숨씨가 몹시 서툴다. 운전변을 좌우로 밀고 당길 때마다 견습공의 그 서툰 숨씨에 투정질이나 하듯 욕중한 무쇠철마는 흠칠흠칠 몸체를 흔들며 휘뚝거린다.

목대가 설렁한 크지 않은 그의 몸집에 비해 굴착기는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어린 처녀사양공에게 길드는 꼬끼리처럼 그의 작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봉일이 옆에는 그보다 앉은 키가 한뼘이나 더 큰 인섭이 앉아있었다.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봉일이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러다가는 이따금씩 짹짹 입을 연다.

《운전변 좌로!》

《우로!》

《연료공급변 중심위치에!》

그렇지만 직접 손을 대며 바로잡아주지는 않는다. 제발로 빨리 걸게 되기를 원해서이다.

자동차들이 들이닥쳤다. 《승리58》행렬이다. 봉일은 한차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실어보내려고 서둘러댔다. 무쇠팔뚝을 땡글땡글 돌려가며 자갈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바가지를 휘둘러댈 때마다 감자알같은 자갈이 줄줄 흘러떨어진다. 하지만 그런건 문제가 아니다. 차가 떠난다음에 바가지로 술술 긁어모으면 그만이니까.

한차, 두차... 이번에는 18호차가 뽕무늬를 돌

려대고 바가지밑으로 기여든다.

봉일은 바가지가 철철 넘치게 듬뿍이 뜬 자갈을 적재함에 폭 쏟아부었다. 자동차는 흠칫하며 드세게 진동했다. 심한 충격에 질겁을 한 운전수가 상반신을 불쑥 솟구고 굴착기를 노려본다. 잔뜩 성이 났다. 짜증을 내는 모양이다. 시시한데, 운전수들이란 저렇게 사나운 모양이지? 그렇지만 저런 비위를 다 맞추다가는 굴됏이가 되고말걸! 운전수들이 사납게 굴 땐 맞받아 공격을 들이대야 해! 아무렴 굴착기운전공이 자동차운전수한테 굴됏혀가. 그리하여 봉일은 18호운전수는 본체도 않고 운전석등받이에 약간 몸을 기대며 그의 머리위로 무쇠바가지를 척 들어 뺏 돌렸다.

하지만 인섭은 뭐가 그리 안됐는지 미안한 표정을 짓고 18호 운전수에게 한손을 들어보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했다. 사과하는모양이었다. 거기에 마음이 풀렸는지 아니면 우쭐했는지 그제야 운전수는 병실 웃어보이며 자동차를 몰아떠나갔다. 그것이 봉일에겐 더 화가 났다. 그러니깐 운전수들이 트집이 많지.

다음차가 들이닥쳤다.

봉일은 또 한바가지 폭 땀다.

《조심히!》

하고 인섭은 조용히 말했다. 그랬건만 봉일은 화김에 또다시 폭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자동차운전수는 성을 냈다. 인섭은 사과했다. 세번만에 인섭의 목소리는 높고 엄해졌다.

《명심하라! 조심히!》

(제길할! 무쇠덩이를 다루는건데 그쯤가지고 뭘!)

봉일은 뿌루통했다. 그를 한참 바라보던 인섭은 표정을 부드럽게 가지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린 굴착기운전공이지만 짐을 실어줄 땐 자동차운전수가 돼야 하오. 이게 바로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일본새지!》

자동차가 뜨음해졌다. 봉일은 차가 없는 동안 강기슭 바닥을 푹푹 파서 자동차에 실어주기 좋은곳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자갈더미는 자꾸자꾸 높아만갔다. 높아가는 자갈더미가 재미있어서 봉일은 그냥 퍼올린다. 산봉우리처럼 뽕뽕한 자갈더미에 물이 줄줄 흐르는 자갈한바가지를 쏟아부으면 그대로 자갈산이 한뼘씩은 높아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만은 종시 개운해지지 못했다. 봉일은 점점 마음이 울적해짐을 느끼며 멀리 가까이로 위치를 엇바꿔가며 대구 바가지전을 해뒀다.

《봉일동무!》

문득 인섭이 봉일을 불렀다.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대답이 없다.

《아까 1교대에서 쌓아놓은 자갈을 몇차에 실어줬지?》

《마흔몇차 돼요.》

봉일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럼 백립방은 잘 되겠는데? 그 친구들 뻔뻔만도 하땀구만.》

《일욕심이 그쯤 돼야지요 뭐.》

봉일은 인섭이 들으라는듯이 일부러 크게 대답했다. 그랬지만 인섭은 그저 사람좋게 웃을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운전공과 견습공은 산갈은 굴착기 그늘밑에 가마니를 넓게 퍼놓고 마주앉아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나니 졸음이 왔다.

《봉일동무! 그늘밑에서 한잠 푹 자오.》

인섭은 이러며 나사틀개를 들고 일어섰다.

《뭘 하겠시오?》

《아까 기관소리가 이상했어. 연료뿔프를 좀 보려구.》

《이따가 보면 안돼요?》

《인츰 끝내야지. 어서 좀 누우라구.》

《눅긴 어떻게 누워요!》

봉일은 눈에 잔뜩 졸음이 실렸지만 투덜대며 벌떡 일어섰다.

인섭은 삼시에 표정이 굳어져서 봉일을 마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말을 할듯말듯하면서도 종시 입을 열지는 않았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굳어진 표정을 다시 풀고 입가에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봉일의 어깨를 꼭 눌러 그 자리에 앉히었다.

《우리만이 할 일이 아니란말이군? 그래서 시끄럽단말인가? 이 철부지! 그럼 못써! 괜한 뿔을 세우지 말고 마음놓고 눕거나 해!》

울끈 반발심이 생긴 봉일은 인섭이 운전실로 올라가자 가마니우에 벌렁 드러누웠다.

물역에서 제김에 와들 놀란 할미새 한마리가 흰꼬리를 나뉘거리며 높이 날아오른다. 그 푸른 하늘가에 흰구름 몇송이가 두둥실 걸렸다. 주절거리는 강물소리만이 자장가처럼 귀전에 감겨들 뿐 사위엔 정적이 한껏 깃들고있었다.

눈이 감겼다. 푹푹푹푹... 쇠두드리는 소리가 꿈결에서처럼 들린다. 굴착기정비는 뭐 우리 교대에서 다 해야 되나? 글썄 나뻘건 없어, 하지만... 그러니까 작업실적에선 자꾸 뒤떨어지지! 일났어! 일났어! 하필 저런 운전공이 차례질게

뭐람! 1교대 운전공 병준동진 괜찮아! 또다시 쇠 두드리는 소리, 일할 땀 일하고 쉴 땀 쉬고 잘 땀 자야 하는건데... 봉일은 어느덧 술코이 잠이 들고말았다.

봉일이 잠을 깨니 인섭이 어디 갔겠는지 아래 도리가 온통 흙탕이 되어 돌아왔다. 길을 보러 갔었는데 사납더라고 했다.

《부직장장아바이가 왔댔소. 막돌채취장으로 래일 굴착기를 옮겨야겠단누만.》

하며 봉일이결코로 다가온 인섭은 작업복주머니에서 초대장 한장을 꺼내여 봉일에게 주었다.

《밤에 회관에서 방송야회가 있는 모양이요.》

저녁이 되었다. 하루작업실적을 종합해나가던 봉일은 아침의 그 백립방을 1교대에 넘기라는 인섭의 말에 대뜸 속이 발작 뒤집혔다.

《그럴 필요가 뭐 있시오?》

《뭐 그럼 나쁜가?》

《그렇다면 아침에 1교대와 왜 다투요? 그래 인섭동진 밤낮 남의 뒤줄에나 서는게 그리두 좋아요? 그렇다면 왜 백립방만 넘겨요, 다 넘기랴오 다!다!》

봉일은 얼굴이 빨간 당추꼬치처럼 돼가지고 막 울상이 되어 대든다.

인섭은 그러는 봉일이 제 하고싶은대로 뺄을 쓰라는듯이 아무소리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 하지만 낮빛만은 하얗게 찢리었다. 눈언저리에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경멸의 빛조차 입가에 언뜻 지나갔다. 방금 고함소리가 터져나올듯싶었다.

그러나 인섭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조용하고 침착하였다.

《마음에 꺼려두 앞줄에만 서면 되나? 굴착기가 마사지건 말건 제 교대나 채우면 되고 제량대로 실어줬건 말았건 실적만 높이 잡으면 되고 제차가 아니라고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고 길이 마사져 차가 제대로 못뛰는걸 보고서두 가슴아프지 않단말이지? 그제 제 교대, 제 실적 그것이면 단가? 그렇게 해서 앞서거나 하면 되겠군? 그리구 두 버젓하게 청년건설자라구 머리 들구 나설수 있을까?》

봉일에게는 조용한 인섭의 그 말이 고함소리보다 도리어 더 가슴에 쿵쿵 박히는듯 섹섹섹하게 느껴졌다.

《동무의 심정은 알만해! 그렇지만 이것보라구 봉일동무! 동무 역시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구 사회주의대전장으로 달려온 청년이 아닌가! 우리 청년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해두 인제나 귀중한 우리의 사회와 들끓는 시대를 먼저 생

각할줄 알아야 해! 우리 교대 하나쯤은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하고있는 건설공사를 조금이라도 앞당길수 있고 그래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드는데서 다소나마 보탬이 될수 있다면 개인이나 교대의 명예같은것은 어느때든지 서슴없이 바칠줄 알아야 하구 그렇게 자신을 부단히 준비해나가야 해!》

말을 끊고 측은한 눈매로 봉일을 바라보던 인섭은 잠시후 말을 이었다.

《앞서는게 문제제 아니라 어느 자리에 섰건 사회와 시대를 받들여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일하는것이 중요하지! 그리구 거기에 건설자의 진정한 보람이 있는것이구. 봉일동무! 이 진리를 동무나 나나 가슴속깊이 맑게 간직해두자구!》

한껏 부드러워진 인섭은 너부죽한 얼굴에 인정깊은 웃음을 지으며 봉일의 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굳건히 믿으며 조용히 그의 등을 밀었다.

《자, 늦지 않게 어서 회관으로 가보오. 나도 인차 뒤따라 가겠소.》

견습공들의 패거리가 떠들썩하며 건설자회관쪽으로 밀려갔지만 마음이 뒤숭숭해진 봉일은 그들 속에 끼이고싶지 않아 버들밭속으로 혼자 걸었다.

회관은 건설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봉일은 동부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구석쪽에 혼자 자리를 잡았다. 마음이 즐겁지 못했던것이 다.

노래가 흐르고 박수가 터지고 환호가 이는 가운데 혁신자들이 무대로 올라가 꽃다발을 받고 결의들을 다지였다.

잠자리날개같은 연분홍치마저고리를 입은 방송원처녀가 사뿐거리며 무대로 나왔다.

《...다음은 오늘작업에서 2.5배의 능률을 올린 3호굴착기 1교대 운전공 병준동지를 무대에 소개하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키가 꺾두룩한 병준이 무대우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저런! 그래두 혁신자라구?)

봉일은 은근히 불만을 품게 되었다. 조금전의 일을 생각하면 어쩐지 병준이 체면이 없다고 여겨졌기때문이었다.

병준은 말을 시작했다.

《...사실 이 연단은 제가 아니라 2교대 동무들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천만뜻밖이었다. 저으기 놀란 봉일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병준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병준은 웬 일인지 자기네 교대보다 인섭이네 교대에 대해서 더 많은것을 이야기했다. 기대정 비문제를 두고서도 웅당 세 교대가 같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한다고 했다. 그러니 다른 두 교대에서는 인섭이네 교대보다 성과를 더 올릴수밖에 없다는것이였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자기들의 성과만이 아니라고, 2교대의 숨은 안받침이 있는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오늘 있는 백립방 팔재이야기도 얼굴을 붉히며 다 실토했다.

그가 내려오자 이번에는 키가 비교적 작고 다부지게 생긴 18호 운전수가 훌쩍 뛰어올랐다.

《우리 운전수들 역시 인섭동무네 교대를 잘 압니다. 운전수들보다도 자동차를 더 아껴주니까요. 자갈 한바가지 실어주는걸 봐두 다 알린단말입니다.》

그는 계속했다.

《1호팔재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건설장으로 다니는 약 한키로미터지점에 바위굽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배가 급하고 길이 좁은데다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얼음판이상으로 미끄러웠다. 그래서 운전수들이 몹시 말썽하는곳이였다.

《오죽하면 운전수들이 <아리랑로타리>라고 했겠습니까?》

객석에서 웃음이 일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갑자기 2교대 운전공 인섭동무가 아리랑로타리에 가보자면서 우리 18호에 올라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운전수들이란 굴착기운전공들한테 늘 놀리워산다고 은근한 불만을 품어오던차라 나는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일부러 경적을 울리구 속도를 내면서 미끄럽고 우툴두툴한 바위굽이를 아짜아짜하게 에돌았습니다.

운전이 꽤찮게 된것 같아 그만하면 본때를 보였다고 생각하며 인섭동무를 얼핏 바라보니 웬일인지 성난 얼굴을 하고있더군요. 숨소리가 높습니다.

<운전술이 꽤찮군! 헌데 여보 운전수! 기술을 늘구느라 저따위 아리랑로타리를 그대로 봐두오? 그렇다면 당신네 운전수들의 그 쓸개빠진 기술이란게 서푼짜리도 못되는구려!>

당장 차를 멈추라는겁니다. 멈췄지요. 그러니까 함마를 들고 나섭니다. 저따위 아리랑로타리같은것을 보고도 그냥 봐두기에는 마음이 허락치 않는다는겁니다. 허, 우린 정말 량심이 없었습니다. 그놈의 아리랑로타리때문에 애를 먹으면서도 들부실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함마 하나

로야 뭇락이 있습니까? 운전수들이 모두 들고 일 어났지요. 인섭동무의 그 성실한 마음에 붙잡힌셈이지요. 아무튼 우린 그날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아리랑로타리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날은 바로 부직장장아바이가 실적대조를 하던 다음날이였다. 아침부터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바람까지 불었다. 비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들이 매우 드물게 도착했다. 봉일은 그저 날씨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섭은 자동차들이 굼뜨게 도착하는데 매우 신경을 썼고 어찌다가 한대 도착하면 달려나가 사정을 알아보군했다. 그러던 인섭은 종시 굼인돌이에 나가보아야겠다면서 굴착기를 봉일에게 맡기고 18호 운전실에 올라앉았었다.

봉일은 그때 그러는 인섭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그게 어디 굴착기운전공이 참견할 일인가고.

봉일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저도모르게 얼굴을 붉히었다.

18호 운전수는 계속했다.

《그날 우리 운전수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일 본새를 두고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굼인돌이는 종로네거리처럼 시원해졌습니다. 단박에 수송실적이 1.3배로 꺽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우리 운전수들이 운전을 잘한 탓이라고만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동무는 이런 연단엔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단말입니다. 나는 우리 운전수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이 연단에 초대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봉일은 벌써부터 몸둘바를 몰라 얼굴이 벌겋해졌다.

《2교대동무들 왔습니까? 인섭동무 어서 나오십시오.》

방송원처녀가 독촉했다. 대답이 없었다. 또 불렀다. 그래도 잠잠하다. 사람들의 물결이 일렁대기 시작했다. 웅성웅성했다.

봉일은 점점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인섭이 나타나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렸다. 했지만 종시 인섭은 나타나주지 않았다.

《있어야 할텐 없다니까!》

《성실한 사람이야!》

여기저기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봉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섭을 찾느라고 목을 빼고 온 장내를 휘돌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는 앞줄에 앉은 부직장장아바이와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다.

부직장장아바이는 대뜸 얼굴이 밝아지였다. 무대를 향해

《저기 건습운전공동무가 있구만!》

하더니 봉일을 향해 다시 돌아서며

《봉일동무! 어서 나오라구!》

하고 소리쳤다.

방송원이 거듭 불러댄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봉일은 종시 부직장장아바이가 달려와 일으켜 세워서야 할수없이 무대로 나갔다. 못시선들이 봉일에게로 쏠렸다.

《허, 꼬마로구만!》

《그 운전공에 그 건습공이라니깐.》

《대단한걸!》

감탄하는 목소리들! 박수소리!

봉일은 자기가 어떻게 무대로 올라갔는지, 방송원처녀가 무슨 말을 했기에 다시한번 요란한 박수가 일었는지, 어떻게 되어 꽃다발들을 다 받아안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박수, 경탄, 꽃다발, 너무도 뜻밖에 차려진 이 모든것이 그저 환상의 세계에서처럼 몽롱하게만 여겨졌다.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핫핫 달아올랐다.

그는 지금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못되는, 다름아닌 인섭이가 웅당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그가 안아야 할 영예를 대신하여 받고있다는 부끄러움때문에 머리를 들수 없었고 몸가짐이 부자연스럽고 몹시 어색함을 느꼈다.

문득 그는 인섭이가 바로 자신이 서야 할 이 연단에 봉일이 자기를 세워주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인섭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신이 몹시 민망스러웠다. 불만스러웠다. 번연히 아는것도 투정질을 하며 인섭을 괴롭힌 자신이 가슴찢어지게 원망스러웠다. 왜 그런지 인섭이가 몹시도 그리워졌다. 어째서 나타나지 않는단말인가?

순간 봉일에게는 뇌리를 치는 한 생각이 있었다.

《길이 사납더군!》

하던 인섭의 말이 되새겨졌다. 온통 흠매닥질을 했던 바지가랭이가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리하여 봉일은 종시 말 한마디 하지 못한채 군중을 향해 굵석 인사를 하자 더 생각할것도 없이 무대에서 뛰어내렸다. 박수갈채와 함께 가벼운 웃음이 일었으나 봉일에게는 벌써 그것에

귀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왔다.

밤.

고요한 강기슭이었다. 쉬임없이 반짝거리는 별빛아래서 한사람이 길을 닦고있다. 인섭이었다. 웅덩이진데는 메꾸고 두드러진데는 깎아내고 돌부리는 지레대로 굴러낸다. 극성스럽다. 그는 지금 새 길을 내기 위해서만, 굴착기를 옮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열성껏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잠깐 쉬었다가는 일손을 잡고 한참 일을 하다가는 허리를 펴며 불야성을 이룬 건설장을 바라본다. 생각에 잠겨 이윽히 서있군한다.

건설장의 지칠줄 모르는 병타기소리, 철판부딪는 소리, 긴 팔끝에 전등을 환하게 달아맨 기중기가 헤엄치듯 서서히 움직인다. 아찔하게 높은 철탑꼭대기에서 빨간 용접불씨가 축포처럼 쏟아져내린다.

밤바람이 혼 혼하게 불어온다. 인섭의 머리우에선 쉬임없이 속살거리며 별무리가 흐른다.

봉일에게는 건설장을 향해 우뚝 서있는 인섭의 모습이 마치도 그 어떤 거인의 모습처럼 생각되었다.

문득 사회와 시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건 성심껏 진심껏 일하면 그만이라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귀에 쟁쟁하였다.

웅당 서야 할 영예의 그 연단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모두가 서야 할 일터에는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 무슨 일을 하건 성심성의로, 진심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봉일의 머리속으로는 과연 이런 사람이 시대의 맨 앞장에서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부직장장아바이가 달려왔다. 운전공들이 뒤따랐다. 사람들이 밀려왔다.

《인섭동무!》

봉일이 역시 더는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달려가는 그의 등뒤 불야성을 이룬 건설장복판에서 파란 용접불빛이 빙긋 일더니 청신한 밤하늘에 공작새의 꼬리처럼 길게 뻗어오르고있었다.



## 3 대혁명소조원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문제

장형준

지금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높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근로자들의 장엄한 로력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노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참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심오한 혁명적내용과 매우 높은 요구를 담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근위대인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앞장에 서서 간부들과 대중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고나가는 우리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해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진행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시대적전행문제를 옹계 해결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의 단편소설문학은 시대와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단편소설문학이 거둔 성과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으로, 충성의 전위로 잘 형상한것이

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 3대혁명소조원들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3대혁명소조원들의 절대적인 충실성은 무엇보다먼저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수령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실성의 발현이며 주체형의 혁명가,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의 기본표징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기쁨》을 들어보자.

소설은 멋없이 길지도 않고 사건도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작품은 자기가 설정한 종자를 형상적으로 잘 꽃피우고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찾고있는 주체형의 새세대,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사람들에게 해설해줄뿐아니라 그 진수를 체득시켜 그들의 확고한 신념과 신조로 만들게 하여야 한다는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님의 교시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접수하여 확고한 신조로 만들고 모든것을 다해 열정적으로 실천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대한 문제를 일반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해명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시대의 혁명전위, 3대혁명소조원인 주인공 은희는 농장 기사장에게 버정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새 버품종을 받아들일것을 제기한다. 기사장은 3대혁명소조원인 은희의 제기를 아무말없이 접수한다.

그러나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은 새 버품종을

농장에 받아들이자고 할 때 기사장이 동의는 했지만 얼굴표정이 혼연치 않은것을 언뜻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소조원은 그 자리에서 기사장에게 긴 말을 하지 않는다. 소조원은 농장에 받아들이기로 한 새 벼품종의 기술테라를 기사장에게 주기 위하여 밭길을 걸어 다른 농장에 가서 고생스레 구해온다. 이렇게 하여 소조원은 기사장에게 끼였던 흐린 마음을 가쳐주는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태도와 립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를 생동하게 해명하고있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며 일하는 혁명소조원-은희의 고상한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

소설에는 혁명소조원의 성격이 아주 예리하게 묘사되어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벼종자를 혁명소조원의 의견이라 하여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농장 기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서 뚜렷이 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는것을 사업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3대혁명소조원의 고상한 성격은 모내는기계로 모를 100% 내도록 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특히 뚜렷하게 부각되고있다.

주인공의 심장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 농민들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주인공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품은 주인공이 시험포전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하였던 지난날의 감격과 기쁨을 격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 삽입된 회상장면이 진실하게 묘사되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충성의 열정과 감사의정이 격동적으로 잘 그려졌기때문에 농장기사장에게 말하는 주인공의 말이 그렇게도 진정에 넘치게 되고 사람들에게 공감할 자아내게 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수심세기를 두고 펴보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의 허리를 펴게 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주인공의 불같은 충성심을 이 소설에서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이와 같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삶의 최고목적으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3대혁명소조원의 충실성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우리 단

편소설문학이 거둔 성과는 또한 그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의 목적에 맞게 간부들과 대중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혁명의 전위, 투쟁의 전위로 잘 형성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중요한 목적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대로 일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더욱 원만히 발전시켜나가기에 있습니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지향해나가는 투쟁의 기수들이다.

3대혁명소조원을 형성한 우리의 단편소설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리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혁명위업은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는 심각한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해빛을 안고 온 청년》의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일이 잘 안되는것을 안타까와하며 분격을 느끼고 일군들의 관점문제를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사상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 투쟁의 기수로 잘 형성되고있다.

제련소의 굴뚝직장에 파견되어온 3대혁명소조원은 노동자들을 먼지속에서 해방시킬 목적으로 만든 설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지배인이 그 설비로 도로포장을 위한 모래를 구우려하는것을 보고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현상과 투쟁할것을 결심한다.

그러면 무엇이 굴뚝직장 노동자들을 먼지속에서 해방시키려는 위대한 사랑의 해빛이 잘 가닿지 못하게 하고있는가.

그것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일군들이 관점을 바로 가질데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배인은 당면한 생산과제에만 눈이 어두워 굴뚝직장 노동자들이 당분간 먼지속에서 일하는것을 할수 없는 일로 여기며 연구사는 노동자들이 먼지속에서 일하는데 대하여 격분을 느끼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격분을 느낀다. 굴뚝직장도 지배인이 굴뚝직장에 관심을 돌려주지 않는데 대하여 불평을 부리면서 주인다운 립장에서 문제를 풀려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뚝직장을 끄려고까지 생각하는것이다.

일군들에게 남아있는 이와 같은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는 결코 노동자들을 먼지속에서 해방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소조원은 일군들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쓸어버리고 관점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먼지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것이다.

이 소설은 바로 사람들의 관점을 바로 세워주는 과정을 사상의식개조과정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은 형상창조에서 투쟁대상을 간부자체로 설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릇된 관점에 두고 3대혁명소조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상과 관점을 반대하여 철저하게 투쟁하면서도 일군들을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일깨워주며 그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주는 혁명의 전위, 투쟁의 전위로 잘 형상하였다.

사람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의 전위, 투쟁의 전위로 형상하고있는데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형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에서 혁신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형성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인류문학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자각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 특히 간부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는 그러한 인간전형을 알지 못한다.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단권소설문학이 거둔 성과는 물론 이밖에도 여러가지로 분석해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더욱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중앙에서 파견되여온 사람들이 다르다, 정말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하겠다고 말할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바로 우리 문학이 3대혁명소조원을 어떠한 높이에서 형상해야 하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우리 문학은 응당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지난날의 천리마기수보다도 더 높게, 뛰어나게 형상하여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귀감으로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이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을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 더욱 감명깊

게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 3대혁명소조원의 가장 중요한 성격적특질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을 온몸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주체형의 피만이 세차게 흐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앞장에서서 적극 옹호하고 선전해나가는 친위대, 근위대로 잘 형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나가는 참다운 혁명전위로 형상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간부들과 대중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적극 해설선전할 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의 선두에 서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철석같은 의지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또한 3대혁명소조원들을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투쟁의 기수로 더잘 형상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것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사상, 기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전위이므로 그들의 생활영역은 비상히 넓고 풍부한것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이나 기술혁신문제만을 앞에 내세우고 투쟁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정치사상생활, 문화생활, 인간생활을 다양하게 묘사해야 3대혁명소조원의 산 형상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기술혁신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풀으로써 작품에서는 기계소리보다도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옮겨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에 망라된 몇만명의 청년지식인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혁명적지식인으로 자라난것은 천량이나 만량의 금을 주고도 얻을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충성의 한길로 이끌고 나가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 자신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혁명가로 형상하지 말고 그들의 혁명화 과정도 진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지식인인 3대혁명소조원은 어제날까지 대학생이었던만큼 현실에서 느끼고 배우는것들이 많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현실속에서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해나가며 대학에서 배운 과학지식을 공고히 할뿐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적생산을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일군으로 자라나고있는 모습을 감명깊이 보여주어야 한다.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진행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핵심적인 력량으로 옹계 보여주어야 그들을 시대의 전위로 참답게 형상할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범벽교육과 인연없이 오직 주체교육만을 받은 3대혁명소조원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그만큼 그들의 성격과 생활은 개성적이고 다양하다.

우리 문학은 3대혁명소조원의 성격형상에서 나서는 이 모든 요구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창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사랑의 해비

### 조룡관

해비가 내린다  
건재덕 강냉이밭에  
가물골 콩밭에  
피약벌, 무더위...  
마른대기를 젖빛안개로 추기며

해비가 온다고  
천만줄기 무지개 아롱졌다고  
아이들 좋아라 환성올려 달리고  
강냉이밭머리 프락돌우에서  
운전수총각 병실한 얼굴 싱글벙글  
논밭한가운에서 솟아나는  
농장치너들 달덩이 얼굴에 기쁨이 함뿍

하늘이 내린 비가 아니래요  
강우기가 뽀는 복비래요  
노래마냥 주고받는 농장원들  
목란같은 웃음이 떨기떨기  
집집의 창문도 창창-  
온 농장이 환희로 설레여라

아, 해방된 다음해엔  
새로 부여한 땅의 감증을 풀어  
연풍호의 새 력사를 구상하시고  
불채더미에 첫삽 박던 복구의 나날에도  
관개의 푸른 물줄기를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

관개수로 이랑이랑  
분수비로 포전포전  
협동화 꽃핀 벌도 골고루 적셔주시더니  
세계가 불탄다 아우성인 왕가물도  
물풍년으로 마중하라고  
지하수까지 생명수로 안겨주시는 그 사랑이여!

땅밑을 무심히 흐르던 물줄기도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목메여  
이 땅우에 솟구쳐오르는것인가  
해비가 내린다  
살랑살랑 나락들 춤에 맞추어  
좌-좌- 풍년을 노래부르며

해비가 내린다  
자연의 변덕에 종된 땅을  
위대한 사랑으로 추긴다  
하늘도 못푸는 대지의 갈증을  
자애로운 은덕으로 풀어준다

주체농법 꽃핀 조국의 대지우에  
하늘땅 가득 만풍년을 불려오며  
해비가 내린다  
아, 사랑의 해비가 내린다

# 그대는 웃으며 걸어가리라

정서촌

조선의 하늘을 이고  
세상에 태어나  
고향의 맑은 물 마시며  
내 잔뼈가 굵었노라

해 뜨는 아침  
발머리에 설레이는 이삭소리 들으며  
별 뜨는 저녁  
행복에 취하여 락원의 기슭을 거닐며  
내 시인이 되었노라,  
이 강산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어

하지만 내 오늘  
꽃피는 이 봄 언덕에서  
행복의 노래 아닌  
저주의 칼을 갈거니

파쑈의 미친 바람 휘몰아치는  
수난의 땅, 암흑의 남녘땅에서  
죄 없는 시인이 철창에 갇히어 피를 흘린다.  
사랑하는 조국의 해빛을 마시지 못하며  
아름다운 조국의 별을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한 겨레의 피줄을 타고  
한 강토에 태어난 시인이언만  
나의 손에는 창조의 붓이 쥐여있고  
김지하-그의 손에는  
무거운 철쇄가 휘감겨 살점을 물어뜯고있는가

풍요한 조국의 흙냄새를 맡으며  
새벽이슬에 젖은 들길을 내 걸고있는 이 시각에  
어찌하여 김지하 그는  
종다리 우는 고향의 하늘과  
청춘의 꿈을 안고 거닐던 그 언덕을 두고  
좁디좁은 감방에서 쇠고랑을 끌고있어야 하는가

너무도 많이 겨레의 피가 흐르고  
너무도 억울하게 고통의 눈물이 흘러간  
아, 그 땅 파도 우는 기슭에 서서  
량심을 안고 몸부림치던 시인,  
조국을 팔아먹는 《오적》들에게 침을 뱉으며  
정의의 싸움에 일떠섰거니

그가 웨치는 진리의 목소리 막아보려고  
그가 저주하는 지옥의 세상을 가리워보려고  
박정희 그놈은  
김지하의 입과

김지하의 눈을  
두터운 담벽과 철창과 단두대로 가로막고있다.

배고파 우는 남녘의 불쌍한 아이들을  
노예선에 실어 먼 이국땅 하늘가에 던져버리고  
어질고 순진한 조선의 술한 너인들을  
팔라를 받고 바다 건너 야수들에게 팔아먹은  
만고역적 박정희  
오늘도 미제침략자의 옷자락에 매달려  
조국을 두개로 토막치려 날뛰고있다.

시인 김지하여  
그대가 것처럼 저주하는 미제와 박정희역적은  
조선인민의 피맺힌 철천의 원쑤  
그대가 것처럼 사랑하는 남녘의 땅은  
영원히 돌로 갈라질수 없는 하나의 조국강토!

살아도 그 땅에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힐  
사랑하는 강토를 가슴에 껴안고  
감옥의 차디찬 돌바닥을 디디고 일어나  
그대는 오늘도 투쟁의 대오에서 걸어가거니

시인이여 그대 웨치는 목소리  
사나운 파도가 되어  
병든 남해의 기슭을 광광 들부시고  
그대의 불타는 념원은 불새가 되어  
어둠을 뚫고 훨훨  
남녘땅에 려명을 부르고있노라

그렇다, 그날은 오리라  
남녘에도 봄이 오고  
산에 들에 꽃이 피고  
모든 창문들에 밝은 해가 비치리라

눈이 시도록 해빛 쏟아지는 그 땅에  
오곡이 설레이고  
새벽이슬에 축축히 발목을 적시며  
그대는 웃으며 대지를 걸어가리라

그날, 시인이여  
통일된 땅에서 우리 가슴을 껴안고  
참고 참았던 사나이의 눈물을 쏟으며  
자유의 강산을 마음껏 마음껏 노래부르자

아, 시인의 심장은 철쇄보다 얼마나  
위력한것인가

## 금산령의 주인들

김원복

세상사람들은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인 천리마영예상을 받은 《백금산》의 2중천리마 7호굴착기 김필환영웅소대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알고있다.

백두산을 바라보며 해발 1,200미터로 높이 솟은 마천령 《백금산》의 금산광구!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제일먼저 받아안고 공산주의로 줄기차게 앞장서 나가는 7호굴착기소대 영웅들!

그들은 한갓 돌산으로 이름없던 해발 1,200미터의 높은 이 산정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한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무려 16년을 하루와 같이 살면서 《백금》을 캐내었다.

어서 빨리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통양의 광부들을 이끌어간 영웅들!

우악스럽게도 짜부러든 통양골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여기에 있는 돌산은 《금산》이며 《돈산》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이 나아갈 전망을 환히 밝혀주시었을 때 남먼저 달려온 김필환소대원들, 그들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평가해주거나 말거나 또 그 어떤 일을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술선 기장 어렵고 힘든 일에 서슴없이 몸을 바쳐 용감히 싸웠다.

혁명을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품위 높은 광석을 광광 캐내던 채광장을 무려 8번이나 다른 뒤떨어진 소대에 넘겨주었고 가치있는 창고안들과 합리화안을 32건이나 도입 일반화한 그들,

그들은 전원이 선동원이 되어 채광장마다 찾아가 직접 착암기를 틀어쥐고 일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우리 당 정책들을 해설해주어 광석생산계획을 넘쳐수행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16년이란 긴긴세월을 만가동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동무네 소대는 영웅소대입니다. 동무네 소대는 영웅소대일뿐만아니라 공산주의소대입니다. 라는 높은 신임의 평가를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하늘보다 높은 정치적인임을 받아안고 공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영웅소대원들의 그후 생활은 과연 어떠하였던가. 공산주의자의 자각된 신조는 어떠한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김필환영웅소대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가며 광석생산에서 계속 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도 단연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과연 우리 영웅들의 가슴뜨거운 위훈들을 무슨 말로 다 하겠는가.

× ×

《금산》령에서는 경사가 났다.

아침부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서서히 피어오른 가벼운 안개도 힘겨워선지 더는 오르지 못하고 잦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앞에도 절벽 뒤에도 절벽강산인 금산광구앞마당에는 김필환소대장과 그의 소대원들이 골짜기신작로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꽃목걸이와 그리고 꽃보라와 꽃테프가 쥐여져있었다.

그들은 이제 금산광구로 오는 제대군인들을 맞게 된것이다. 신입로동자들인 제대병사들이 올라오면 당장 목마를 태울 잡도리를 한 리장규, 김기영, 김정식들이 골짜기신작로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김필환은 어제밤 아니 오늘새벽까지 신입로동자들을 맞기 위해 꽃을 만들고 꽃보라를 만들었다. 선동원 정희의 제의에 의해 생각못했던 테프도 여러색으로 만들었다. 오래동안 헤여졌다 만나게 되는 동생을 방금 보게 되는것만 같아 그들의 마음은 온밤 진정할줄을 몰랐었다. 하루밤을 꼬박 새웠건만 얼굴들에 피곤이란 없었다. 그저 싱글빙글거리며 서성거리고있었다.

《신동무는 손풍금으로 환영곡을 타고 리동무의 하모니카도 불어야겠소.》

《준비되어있습니다.》

소대장의 로파심에 두 동무가 약속한듯이 대답했다.

마당에는 꽃보라가 벌써 많이 흩어져있었다. 김동무가 아깝게 흘리지 말라고 야단쳤다. 김동무의 목소리가 별로 다르게 울리지도 않았는데 소대원들은 그것이 우스워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굴러들가며 흥내를 내었다...

《췌, 나타났소!》

한쪽에서 줄곧 아래만 내려다보던 김동무가 소리쳤다.

《어디! 어디!》

소대원들은 저저마다 꼴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꽃단장을 한 자동차가 금산광구쪽으로 꼴짜기를 뱅뱅 돌면서 달려오고있었다. 마지막 북대천을 건너서자 자동차는 멎었다. 사람들이 줄렁줄렁 내려왔다. 그들은 《금산광구입구》라고 쓴 화살표앞으로 다가갔다. 누군가가 이제부터는 길이 없으므로 이 벼랑길을 뚫아올라야 한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들모두가 고개를 힘껏 뒤로 젖히고 산을 올라다보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들이 벼랑길을 뚫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지그자그로 낸 벼랑길을 한줄로 늘어서서 올라오고있었다.

《준비합시다, 자기 위치로...》

소대장이 서둘러 말했다. 소대원들은 꽃다발도 다시 손질하고 꽃보라도 서로 갈라쥐었다. 개선장군을 맞이하는듯한 기분들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밑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났다.

김필환소대장은 손으로 시작하라는 신호를 내렸다. 갑자기 박수갈채와 손뽕금소리, 하모니카소리가 앞산을 울리며 터져나왔다.

《동무들, 축하합니다!》

소대장이 손나팔을 입에 대고 소리쳤다. 신입로동자들은 마당에 올라서자 뜻밖의 광경에 부딪쳤다. 어느새 말려든 리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이 신입로동자들을 목마에 태웠다. 꽃목걸이가 걸리고 꽃다발이 안긴다. 테프가 몸에 휘감기고 꽃보라가 춤을 추며 날렸다. 환영곡에 맞추어 박수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목마를 태운 소대원들이 마당을 두번씩이나 돌더니 이번에는 하늘높이 추어올리기 시작했다.

《옛싸, 옛싸!...》

《옛싸 환영!》

《옛싸 환영!》

그런 다음 인사가 나누어졌다.

《2중로력영웅 김필환소대장이요.》

함께 데리고 올라온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차례로 소개하자 신입로동자들은 군인식으로 경례를 불이였다.

《제대중사 류동무!》

《이 동무는 로력영웅 책임운전수 김기영동무이고 또 이 동무는 로력영웅 착암공 리장규동무요. 또 이 동무는...》

이렇게 김선각, 신영건, 리승학, 김정식, 류동 등 이름들을 불러나갔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뜨겁게 불을 비비었다.

《초소에서 수고했소. 이제부터 함께 일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들의 초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눈에는 어쩐지 눈물들이 글썽하였다.

《영웅동지들처럼 일하겠습니다.》

제대군인 룡화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욕망만 가지고는 안되오. 여기는 색등도 없고 유보도도 없소, 꽃같은 처녀를 보기는 힘들지만 뜨끈뜨끈한 아래목은 있소.》

류룡이 심각하게 하는 말에 모두가 와-하고 웃었다.

《류동무는 그전날의 자기 생활이 생각나는 모양이구만.》

소대장이 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교훈을 살리는 의미에서 말하는것도 좋을것합니다.》

류동무가 뒤더수기를 굵으며 대답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우리도 동무들처럼 일을 시작했소. 물론 그때는 우리를 환영해준 사람도 없고 류동무말마따나 아무것도 없었소. 뜨끈뜨끈한 아래목조차도 없었소. 지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이 산정에서도 온갖 세상을 다 구경하지만...》

소대장은 기억을 더듬어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의 바로 그때를 감회깊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마천령의 찬바람은 주먹같은 모래를 휘뿌려 제대배낭을 벗어놓은 그들의 뺨을 휘갈겨주었다. 자연은 너무도 사나웠다. 그러나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라고 생각한 제대군인들은 해발 1,200미터의 《백금산》을 밀뿌리채 파낼 결심을 품고 새로운 굴착기소대를 무었다. 포병중대 특무장이였던 김필환은 소대장이 되였다. 일은 힘들었고 추위는 오금을 박았다. 품었던 결심은 자연앞에 굴복하여 너무도 쉽사리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따뜻한 고향이 그리웠고 기계소리 진동하는 굴뚝높은 공장이 눈앞에 떠올랐고 유보도로 산보하는 달밤도 생각났다.

처음에는 한동무가 다음에는 두세동무가 들떠나기 시작했다. 공장으로 가야겠다는 동무가 있는가 하면 바다가로 찾아가 멀지 않아 선장이 되겠다는 동무도 있고 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류동무는 단 한시간도 일손을 붙이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김필환소대장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걸기하면서 사상사업에 힘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류동무, 병사시절에 우리가 언제 한번 명령을 어기거나 초소를 나무란적이 있었소?》

《흥, 그때는 군인선서를 했던 병사가 아니요. 지금도 선서를 하랴요?》

《허, 나쁘지 않지, 우리가 병사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되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요.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전사는 떠날수 없소. 자, 그러지 말고 손을 굳게 잡자구...》

그러나 류동무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발파를 하자고 보니 류동무가 온데간데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류동무?!》

소대원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사나운 바람만이 나무가지에서 울고 눈보라는 파도처럼 몰려와 벼랑에 부딪칠뿐이었다. 소대원들은 눈보라속을 뚫고 갱구로 은폐부로 뛰어다녔다.

김필환소대장은 발파시간을 지연시킨것이 너무도 안타까와 목청이 쩌지도록 류동무를 찾아 헤매다가 휴계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류동무는 여기 화독옆에서 태평하게도 코를 드렁드렁 골고있지 않는가.

그는 분기를 참을수 없었다.

《그래 정말 그러겠소? 응? 일하기 싫으면 동무 마음대로 하오.》

소대장은 류동무를 일으켜세웠다.

《하라면 못할줄 아오.》

《그래 마음대로 해보란말이요.》

《흥.》

소대장의 분격에 류동무는 레사롭게 코방귀를 터뜨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는 그길로 숙소에 들러 배낭을 꾸겨메고 《금산》을 내려갔다.

선동원 정희가 달려갔으나 그는 알은체도 안했다.

《너무한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대꾸도 없이 소대장은 담배만 태웠다. 정희와 장규 그리고 영건이가 묵묵히 서있었다.

《놔두오. 비겁한자들은 다 갈데로 가시오. 안락이 기다리는곳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이 초소는 언제든지 지켜설것이요.》

정말 그럴가. 류동무가 끝내 가버릴가. 천리마작업반에 결기한 우리 소대에 무슨 수치인가...

소대장을 지켜보던 소대원들은 머리를 숙였다...

그날밤, 자정이 깊어서였다. 무밖에서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문고리를 쥐었다가 놓는 소리가 들렸다. 소대장은 그 그림자가 류동무라는 것을 대뜸 알았다. 소대장은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울줄 알았소. 고맙소. 초소를 버리고 동무는 가지 않을것이요.》

김필환소대장은 눈물이 앞서고 가슴이 뛰여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 여기를 찾아주시고 이 산들을 <금산>, <돈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소를 맡겨주신게 아니요!》

《소대장동무!》

류동무는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책벌을 주십시오, 저는 조직도 규률도 없는...》

《원 사람두, 이젠 됐소. 됐다니까.》

소대장은 류동무의 잔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앞에도 절벽, 뒤에도 절벽, 바위와 바위들로 이루어진 절벽강산! 여기에 첫발을 붙인다는것이 과연 얼마나 힘든것이였으랴...

《하하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소년단원이였거던.》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가던 소대장은 룡화동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룡화동무도 따라웃었다.

그러나 자기는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는 말을 하고싶었고 영웅동지들이 쌓아올린 16년간의 위훈을 빛내여 더욱 꽃피우겠다는 결심을 다지고싶었지만 어색하여 말만은 내비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생활을 구경시켜야지...》

소대장이 제대군인들을 데리고 가면서 장규에게 눈짓했다. 그는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하고 침실쪽으로 사라졌다.

김필환소대장은 문화선전실과 그안의 정돈상태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텔레비존, 악기, 도서들을 소개했다. 그리고는 침실, 학습실, 식당, 세면장, 목욕탕을 돌아 고등광업학교 금산분교로 꾸린 교실까지 다 구경시켜주었다.

《이제부터 여기가 동무들의 집이요, 그리고 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자격을 받아야 하오. 지금 우리 동무들은 매년도에 졸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원이 기술을 소유하게 되오.》

소대장은 긍지높이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대군인들을 식당에 안내했다.

리장규는 식탁을 푸짐히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렸다. 식탁에는 구수한 우유, 생신한 사과와 배, 파자, 사탕... 갖가지 음식들이 쟁겨져있었다.

《금산령의 주인이 될 동무들을 위해서 마련했소...》

《야! 이 산정에 없는게 없구나.》

누군가 감탄하는 소리였다.

《자 도시 부럽지 않지. 동무들이 승인만 하면 처녀들도 저마다 오겠대요.》

《하하하...》

금산령에는 새로운 웃음소리가 울려퍼져갔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받아안을 때마다 우리는 영광찬란한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새겨진 불멸의 업적과 불패의 생활력을 생각한다.



사회주의조국에 위력한 공업회를 실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기치를 안겨주셨다.

룡양의 로동계급은 그 어디보다 제일 먼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섰으며 그 앞장에는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인 7호굴착기소대가 서있다. 그들은 어제와 오늘을 보고 래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신심도 드높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결의조향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여나가고있었다.

김필환영웅소대에서는 우선 결의목표를 정확히 세우기 위한 토론을 며칠동안 거듭해왔다.

어제 또 그제 또 토론을 거듭하여 결의조향을 심화시켜나갔다. 새로 온 룡화가 휴가를 갔으니 돌아오면 그의 결의안도 잘 세우도록 해야 하였다.

그런데 소대원들속에서는 결의안이 잘되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3대혁명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못가진데서 오는것이였다.

원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때문에 이 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새로운 대중적운동이다. 그러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지난날의 그 어느 대중운동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으며 이 운동을 통하여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키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셔가는 혁명가적기풍 즉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대장은 이런것을 생각하며 굴착기작업을 다그쳤다. 대형자동차들이 실새없이 굴착기밑으로 들이닥쳤다.

채광장에서 조구장쪽으로 달리는 자동차들,련방 쏘아בות는 광석, 신호공들의 바쁜 걸음, 돌가루를 휘뿌리며 마지막 바람까지 리용하여 장약구멍을 뚫는 착암수들, 실로 하나의 전투장을 방불케 했다.

《발파!》

드디어 발파신호가 내렸다. 모두 대피호로 들어간다. 발파수들은 심지에 불을 단다.

김필환소대장은 이마의 땀을 문지르며 밖을 내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시간에 어제 토론하던 개별결의조향들을 계속합시다.》

소대원들은 주머니에서 붉은 수첩을 꺼내여 들었다.

이때 룡화가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들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소대원들은 발파를 앞두고 작업장이 조용해

진 이 순간에 불의에 뛰어들 룡화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될게 있습니까. 휴가를 마치고 왔지요.》

《뭐?! 6일밖에 안되는데 휴가를 마쳤대구?》

《집에 가서 편안히 놀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룡화는 머리를 숙였다.

그제야 동무들은 룡화의 가뜰스한 마음을 알고 모두 손을 내밀었다. 룡화의 아름다운 소행을 높이 평가한 소대장은 진중하게 말했다.

《고맙소, 그렇게 사상적으로 준비되어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그럼 룡화동무도 다른 동무들의 토론을 듣고 개별결의를 세워야겠소.》

소대장의 말이 끝나자 류동무가 자기의 갱신결의조향을 내놓았다.

《나는 류동무의 결의에서 중요한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운전수가 류동무의 말이 끝나자 자기가 생각한바를 뜨직뜨직 말했다.

《뭔고하니 누가 보건말건 또 평가를 해주건 말건간에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위투사로 참되게 살겠다는 내용을 첨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두 그렇게 생각하오. 요즘 류동무의 생활에서 그게 바로 부족한것 같소.》

《웁습니다. 류동무가 굴착기의 팔을 개조할 때와는 좀 다르거던. 요전날밤의 경우를 두고 보아도...》

김동무가 요전날밤 굴착기의 체인이 끊어졌을 때의 일을 설명했다.

류동무는 그날 하루계획을 500%나 했으니 하루밤쯤 굴착기를 쓰지 않은들 어찌라싶은 생각에서 퇴근하였었다. 그래서 전투무기인 굴착기는 고장난채 몇시간동안 서있게 되었던것이 다.

류동무가 굴착기팔을 개조할 때 언제 침식을 제대로 해봤던가? 안해가 점심밥을 가져왔을 때 <아니 벌써 아침밥을 가져왔소.> 하고 묻는 바람에 주위사람들을 웃기기까지 했지, 그만큼 일에 전념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었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떠진다고 하면서말이요, 그러구 보면 요즘 생활은 어딘가 모르게 진실치 못한 점이 있다고 보는게 옳지 않을가.》

류동무는 얼굴이 벌개서 묵묵히 앉아있었다. 어느새 자기한테 그런 안일한 사상이 들어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류동무는 소대원들의 토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었다. 그는 수첩에다 동무들의 방조론을 조용히 적어나갔다.

《나는 류동무의 결의조향에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주인다운 태도를 더욱 착실히

키워나가겠다는 내용을 첨가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말수더구가 적은 김동무가 제기했다.

《우리 일은 착실하게 하고 남의 일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본의주의가 우리 소대에 없어진지 오랜데 어떻게 류동무에게서 나타났습니까》

그의 말은 언젠가 자동차소대의 대형차가 작업중 현장에서 고장이 생겨 좀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갔던 때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때 현장으로 나갔던 류동무가 머뭇거렸다. 그에게는 우리 일도 바쁘는데 남의 일까지 찾아다니면서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참동안 주춤거렸던 것이다.

《동무들, 내가 잘못했소. 나에게서 꼭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들이 빠졌소. 사상혁명이란 말로는 아는데 실지는 모르고있다는것을 고백하오.》

소대장은 머리를 끄덕였다. 소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이름난 그가 잠시나마 틈이 생겼음을 깊이 뉘우치고 고쳐나가겠다는 결의가 정말 고마웠다. 모든 동무들도 소대장과 한마음인듯 반갑게 웃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르고있는 결합들도 일깨워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룡화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그것이 결합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큰 문제라고 심중히 말하는 것인가, 게다가 사상적결합이라고까지 하겠는가...

이때 룡양굴을 발각 뒤집을듯 요란한 폭발소리가 울렸다.

《파당, 광》

런이어 터지는 폭음, 《백금산》이 뿌리채 뽑히는듯 대피호가 부르르 떨었다. 돌파편이 지구우에 와드득 떨어지고 돌가루가 문뜩으로 확 물려들었다.

김필환소대원들은 발파가 끝나자 밖으로 나왔다. 먼지가 아직 가셔지지 않았다.

《동무들, 계획보다 3배나 더 떨어졌소. 35만톤 이상이요!》

김필환소대장이 웨쳤다.

《35만톤이요?! 야-》

룡화는 이 소대에서 100만산대발파도 했다는것을 모르기때문에 이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데 소대장은 이번에 처음 해보는 소갱굴진을 룡화가 잘했기때문이라고 칭찬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날저녁 룡화는 집에 편지를 썼다. 영웅들의 일본새와 사상생활의 높이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점들을 숨김없이 썼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맺었다.

《...우리 소대 영웅들에게는 오직 한가지 신념이 있을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산정에서 개인의 안락도 명예도 평가도 바람이 없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겠다는 드팀없는 불굴의 신념입니다. 참말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더 쓰고도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이대로 펜을 놓을수밖에 없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로 자라납니다.》

혁명적실천과정! 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주는 전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시대의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실천과정에서 성장하여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지를 안고 공산주의로 달려간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앞장선 김필환영웅소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결의에서 매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의 자그마한 티까지도 말끔히 가서내고 모든 영역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의 깊은 뜻을 옹계 반영하였다.

그들의 결의에서 우선 주목되는것은 가장 높은 세운 생산계획에 증산과제까지 포함한 실적의 3배나 되는 엄청난 생산목표를 세운것이다. 매우 아름다운 이 과제를 인력으로는 해결할수 없었다.

그들은 1.2배로 끌어올린 굴착기공청능력을 1.5배로 높인데 뒤이어 김기영을 비롯해서 소대 전체가 다시 혁신하여 1.8배라는 놀라운 단계까지 높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생산장성의 한계란 사상관점에 있는것만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려는 그 충성심에 한계가 없다면 세상에 공청능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런 높은 정신력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였다.

어느날이였다. 어제밤부터 기승을 부리던 칼바람이 아침이 되자 지동치듯 사나워졌다. 눈가루가 안개처럼 뽕얇게 휘몰아쳤다. 손을 내놓기가 무섭게 얼어서 굵아들었다. 추위는 뼈속까지 기어들었다. 광산지령에서는 각 갱구들에 전화를 걸었다. 기온이 령하 36도로 내려갔으니 모두 일을 중지하고 내려오라고...

《36도요?》

통화는 놀랐다. 지금까지 이런 추위는 처음 당하였던것이다. 기계의 가동부분이 얼어서 움직여지지 않았다. 억지로 조정하면 얼음이 부서져나가곤했다. 윤활유, 제동장치, 굴착기팔 할것없이 얼어붙었다. 눈보라는 더욱 사납게 몰아쳤다.

《동무들 세포회의를 가집시다.》

세포비서가 눈보라속에서 말했다. 당원들이 모였다. 모여서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그들의 다리사이로 눈을 몰아다 쌓았다.

《지령에서는 일을 중지하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제의합니다. 물론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전쟁시기 조건이 불리하다고 후퇴만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엔 하늘로 올라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동원동무가 주먹을 높이 추켜들고 흔들며 말을 계속했다.

《이처럼 하루하루 물려서다나면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께 결의한 3배의 생산과제를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이 몸이 얼어 고드름이 될지언정 물려설수 없습니다.》

《웁소. 방도를 찾읍시다. 동무들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소대장은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끝까지 합시다!》

《합시다!》

소대원들은 한결같이 주먹을 쳐들었다.

바람은 코웃음치는듯 회파람소리를 지르며 더욱 몰아쳤다. 눈도 뜰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근위대! 결사대!...》

선동원의 구호에 소대원들은 합창하여 눈바람을 제압하였다. 그들은 굴착기로 달려갔다. 나무를 주어다 불을 피웠다. 불길은 활활 타올랐으나 누구도 그걸로 가지 않았다. 장작불은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들로 옮겨졌다.

기계는 돌아갔다. 자동차들이 눈보라속을 헤치며 질주했다. 만가동이다.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들의 기관이 얼어 발동이 꺼졌다. 어찌할것인가. 굴착기밑에 놓은 장작불을 자동차로 옮겨가면 안될가? 그러면 굴착기가 또 언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다.

《장작불을 자동차기관밑으로 옮기시오.》

소대장이 소리쳤다.

장작불이 옮겨진후 소대장은 솜옷을 벗어 굴착기의 움직이는 부분에 덮었다.

《아니?!》

통화는 놀랐다. 이 추위에 기계만 얼고 사람은 얼지 않는단말인가. 자기도 솜옷단추를 벗겼다. 찬바람이 허리로부터 배속으로 몰려들었

다. 당장에 심장이 멎을것만 같았다. 통화는 얼른 단추를 다시 채우고 허리를 더욱 단단히 동여맸다.

그런데 어떤 정황이 벌어졌는가. 소대동무들은 저저마다 서슴없이 솜옷을 벗어 기계를 감싸는것이 아닌가. 선동무는 모자까지 벗었다. 리동무는 또 무엇을 벗을 잡도린가...

통화는 그 정황에 못이겨 솜옷을 벗어다 굴착기에 덮었다.

기계는 다시 만가동으로 돌아갔고 자동차들은 조구통쪽으로 질주했다. 광석을 싣고 눈바람속을 뚫고 달려와 대가하게 되는 차들은 장작불로 기관을 녹였다....

시간은 흘렀다. 통화는 소대장이 찾는 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동무는 아침밥도 아직 먹지 않았구만, 이리 오라구.》

《이 추운데서 어떻게 먹어요. 고드름이 되었을텐데...》

《글쎄 오라구. 》

소대장은 통화를 끌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통화는 억지를 쓰는데했지만 실상은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살것만 같았다.

《자, 어서 식기전에 먹게.》

《예?》

통화는 흠칫 놀랐다. 굴착기옆에 놓아두었던 밥판이 소대장의 가슴에서 나오는것이 아닌가. 소대장은 얼음덩어리가 된 밥판을 언제 불에 다 덥혔을가, 자기를 불러오는 그 순간에조차 밥이 식을세라 가슴에 품었다가 꺼내주다니?!

《소대장동무!》

통화는 소대장이 가슴에서 꺼내주는 더운 밥판을 받아쥐고 소리쳤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팔팔 흘렀다. 그의 손에는 밥판에 스민 소대장의 뜨거운 심장의 열이 고스란히 옮겨졌다...

그날저녁 작업총화를 지었는데 한사람당 광석생산량이 500톤이었다.

《아버이수령님! 우리는 오늘도 자기 계획을 3배로 높여 한사람당 500톤씩 생산하였음을 삼가 보고올립니다.》

소대원들은 평양하늘을 우러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수령님께 영광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이처럼 그들은 인간의 가장 값높은 삶을 평범한 생활속에서가 아니라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찬 투쟁속에서 찾고있다. 통화는 얼마 안되는 이 생활속에서 이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는 소대영웅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삶을 너무도 잘 알기에 담보란 모른다는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기》, 《개인》, 《나》라는 말을 알지 못한다. 향락과 안일에 대해서는 더욱 생각해본적이 없다. 명예와 공명이란 바라지도

않는다. 하기에 그들은 오직 집단속에 숨쉬며 동지호상간의 혁명적의리와 미덕으로 아름답게 수놓아가는것이였다.

그들은 품위높고 채굴하기 좋은 채광장을 18호굴착기소대에 넘겨주고 새로운 채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굴착기를 옮겨갔다.

새로 암반을 깨내고 길을 닦으면서 가파로운 길을 뚫어간다는것은 여간만 어렵지 않다. 그것도 긴팔을 휘저으며 끼우뚱거릴 때는 아슬아슬하여 손에 땀이 쥐여진다. 자칫 잘못하면 굴착기를 천길나락으로 굴릴수 있기때문에 조만한 준비와 타산이 없이는 생각도 못한다.

굴착기의 무한궤도는 바퀴를 물어뜯으며 기여갔다.

소대장이 앞에서 지휘하면서 운전수에게 주의를 상기시킨지 얼마 안되어서였다.

《기울어진다!!》

앞에서 지휘하던 소대장이 소리친다. 굴착기의 한쪽 무한궤도가 표층버력을 긁어다 다져놓은 낭떠러지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운전수가 굴착기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질려있었다. 소대장도 눈앞이 아찔하여 입을 벌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의 머리에는 피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는 바위를 안고 굴착기로 뛰어갔다. 벼랑턱에 발은 붙인 그는 무한궤도밑으로 돌을 밀어넣은 다음 거기에 등을 대고 밀었다.

《굴착기팔을 돌리라!》

소대장이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다. 운전수는 굴착기팔을 산たく으로 돌렸다. 무게중심을 산쪽바퀴로 쏠리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때 리동무가 달려들어 소대장의 옆에 등을 댔고 룡화가 뛰어왔다.

《룡화동무 위험하오!》

소대장이 웨쳤으나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다른 동무들이 또 달려왔다...

책임운전수는 다른 생각을 할 사이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흠썬! 굴착기는 한결음, 한바퀴 굴러나갔다.

드디어 굴착기는 평평한 길에 나섰다. 그래서야 소대원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소대장동무!》

책임운전수가 소대장을 얼싸안으며 얼굴을 돌린다. 동무들이 달려와 서로 껴안는다.

《김동무!》

《운전수동무! 수고했소.》

《룡화동무 영웅이요.》

그들은 서로들 목메여 흐느꼈다.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동무들의 등이며 손등을 적시였다.

× ×

위훈으로 빛나는 나날들은 즐기치게 흘러간다. 세월과 함께 1,200미터의 산정이 400미터나 낮아지는 그 나날에 쌓아진 기적과 혁신을 말하려면 끝이 없다.

16년이란 긴긴세월, 산정에 집을 짓고 한가마밥에 한이불을 덮고 하루와 같이 형제처럼 살면서 그들은 오직 오늘과 래일을 생각했고 혁명을 생각했다.

《백금산》의 영웅서사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덕아래서만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다.

《백금산》의 영웅소대, 《공산주의소대》!

그들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높은 산정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충성의 탑을 쌓아왔다. 그들은 월 3만톤 돌파운동을 벌려 채광력사에 없는 기록을 세웠다. 바로 여기에 우리 조선로동계급의 강毅한 성격과 불굴의 기상이 있는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 오직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 즐기치게 달려온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로력영웅 리장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보람있게 살려면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끝없이 충성다하는 한길우에서 참되게 살며 혁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순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혁명을 해야 합니다. 오래나 산다고 해서 보람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 류룡화는 목메여 말한다.

《저는 영웅소대의 대원으로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착암일을 합니다. 저는 영웅동지들을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혁명을 위하여 진실로 참되게 일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저도 꼭 로력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주체시대의 혁명가, 그들의 사상은 가장 철저하며 그들의 신념과 의지는 드림이 없다. 그들의 삶은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어있다. 영웅이 영웅을 낳는 《백금산》의 로동계급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빛나는 전형이며 조선혁명의 기백이다.

아! 우리 혁명의 미래는 얼마나 휘황한가! 공산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앞길에는 아름다운 금노을이 꽃주단처럼 넓고도 광활하게 펼쳐져있는것이다.

## 외우고싶은 시를 두고

천만가지 꽃들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꽃이 있듯이 우리의 만발한 시문학의 화원속에도 만사람의 흥금을 틀어잡는 그러한 시가 있다.

그중에서도 나에게 감명을 준 시는 최근 《조선문학》에 발표된 《중오의 노래》이다.

50년대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생의 첫울음을 터친 세대, 전쟁이란 말을 알기엔 너무도 어렸던 서정적주인공이 갈라진 조국의 아픔을 두고 시대의 의무를 자각하게 되는 내부적체협체계는 참으로 뜨겁다.

어제날 총알박지를 장난감으로 여기며 철없이 뛰어놀던 우리의 새세대들이 원쑤 미제가 우리 조국땅에 저지른 죄행의 역사를 똑똑히 알고 그를 복수하기 위한 계급의 무기를 심장으로 틀어잡게 되는 성장과정, 이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체현하고있는 보편적인 정신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새로운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무엇이 독자들의 심금을 그토록 울려주는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시적대상에 대한 시인의 예리하고도 진실한 생활적체험과 그를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하는 불타는 정열이다.

생활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열정으로 충만된 이러한 창작자세는 평범한 생활속에서도 의의있는 시적종자를 틀어잡게 했으며 자기의 고유한 정서도 독자들의 심장을 원쑤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조국을 통일하고야말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고있다.

그러므로 시는 서정시치고 비교적 긴 형식을 취하고있으나 결코 길게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외우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독자들이 외우고싶어하는 시

는 결코 단순히 짧은 시가 아니라 시인이 노래한 시적감정이 뜨겁고 열렬하며 진실하고 생동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할 때 시는 아무리 길어도 독자들은 즐겨 외울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아무리 짧은 시라도 독자들은 외우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입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는 혁명적시문학창작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며 근본적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현실생활을 깊이있게 파악하면 할수록, 그리고 생활을 뜨겁고 열렬하게 체험하면 할수록 시작품형상에 구현되는 생활화폭과 시적감흥은 그만큼 생동하고 진실하고 의의있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마땅히 들끓는 생활속에 뛰어들어 심장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그러한 시적충동에서부터 붓을 들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썩여진 시들이래야 우리 독자들은 그 어디서나 시를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과 투쟁의 노래로 외우고 또 외우며 창조와 건설로 충만된 오늘의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김덕선

## 행복의 락원

-강동군 문흥협동농장에서-

위동훈

가없이 푸르게 트인 가을하늘, 전야마다에 차 넘치는 맑고 따스한 햇빛, 부드럽고 투명한 공간으로 트랙토르의 동음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진다.

가슴흐뭇이 젖어드는 풍요한 가을의 정서는 봄날의 화창함에 비길바가 아니다. 풀단장, 꽃단장으로 서두는 소생의 봄도 좋지만 만풍년의 기쁨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은 더욱 좋다.

전야에서 벼단을 싣는 농장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넘쳐나고 일손도 흥겨웠다.

맑은 햇빛이 어려 더욱 빛나는 농장원들의 웃음진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것을 물었다.

대단한 작황이라고 한다. 그저 풍년이 아니라 난생 처음보는 풍년이라고 한다. 벼단이 무거워질수록 일에 성수가 난다고들 웃는다.

트랙토르들이 복나들듯 줄지어 달려가고 달려오는 마을앞길을 따라 우리는 문흥협동농장 관리위원회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다섯개의 높이 낮은 산들이 의중계 어깨겨움을 한 오봉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농촌마을은 첫눈에 벌써 우리의 마음에 들었다.

넙적넙적 네모난 돌을 깔아 산뜻하게 포장한 마을길이며 울긋불긋한 열매들이 몹시 탐스럽게 달린 길가의 대추나무들, 돌담을 쌓아 규모있게 정리한 밭들... 곳곳한 포장길이 끝나는 저기 푸르른 산기슭에 마치도 휴양소를 방불케 하듯 하얗게 회백칠을 한 농장건물들과 2층문화주택들이 층층이 줄지어 서있다.

마을 뒤산에는 양떼가 구름처럼 흐르고 마을앞으로는 수정천-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신 맑은 내물이 흐른다.

마을에 들어서자 우리는 인차 여느곳과 다른 훌륭한 광경에 눈이 끌리었다. 하얀 만경담들이 이곳 풍치를 한결 돋군다고 할가? 햇숨뭉치같은 담들이 빨간 변두를 갑작거리며 풀씨를 뜯어먹느

라 집오래와 길가며 발최뚝, 산기슭에 한벌 깔렸다. 농장에 닭이 많구나 하는 느낌을 대번에 가지게 한다.

우리는 기계소리 요란한 2작업반 탈곡장에서 벼단을 가리고있는 한상필관리위원장을 만났다. 연거퍼 들이닥쳐 높이 쌓이는 난알더미들로 하여 운동장처럼 넓은 탈곡장이 비좁아보이기까지 한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문지르며 한상필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제는 탈곡장을 더 넓혀야 할가봅니다. 해마다 알곡소출이 늘어나기말입니다. 우린 올해도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이 땅이 생겨나서 처음보는 대풍을 마련했습니다. 벼는 풍년든 지난해보다 정당 1톤이상, 강냉이는 400키로이상을 더 내게 되었으니 올해야말로 풍년중에서도 풍년이지요.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문때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발판수를 하고 우물파기를 하여 왕가물을 쫓아냈지요. 알곡풍년, 담배풍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농장엔 알풍년까지 들었지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닭치기운동>을 잘하여 올해엔 작업반과 농가마다 닭알풍년입니다. 이젠 부러울게 없습니다. 돌아보시면 다 알게 되겠지만, 허허허...》

《닭알풍년》-얼마나 좋은 말인가. 우리는 강동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닭치기운동》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1월말에 대소한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 강동군을 찾으시여 군내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닭치기목표와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강동군이 닭치기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집집마다, 농장마다, 군마다 <닭치기운동>을

힘차게 벌려 알퐁년, 고기퐁년을 이룩하자!》는 구호 밑에 벌려온 이곳 농장원들의 충성의 로력투쟁은 그 빛나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영닭공장들에서 닭을 집단사육하는 것과 함께 전인민적운동으로 분산사육을 널리 조직하여 도시주민들뿐 아니라 농촌주민들에게까지 더 많은 닭고기와 닭알이 차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들리셨던 정미소닭우리를 찾았다.

알낱이방, 후보닭우리, 조리실, 실내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장 등 난방시설까지 갖추고 훌륭히 꾸려져있는데 여기서만도 250여마리의 닭을 기른다고 한다. 닭우리밖에는 먹이장과 놀이터, 야외서식장들이 알뜰하고도 규모있게 꾸려져있었다. 특히 우리의 눈을 끄는것은 지붕을 나지막이 씌운 22평방짜리 야외서식장이었다. 거기에는 서식하는 동물성먹이의 알낱이주기에 따라 칸칸이 표말들이 박혀있었다. 이 서식장만으로도 동물질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있다는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관리위원장 한상필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 하는 것이었다.

《정말 잊을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아침 여느해와 달리 맵짠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것처럼 뽕고싶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찾으신것은 바로 축산부문지도일군협의회를 마치신 며칠뒤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곧장 농장정미소닭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린것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닭치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지 우리는 닭알을 얼마 받아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날 농장과 작업반들 그리고 매 농가들에서의 닭기르기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정미소닭우리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닭관리공 김보희동무에게서 이곳의 닭품종과 사

양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닭은 알을 먹자고 기르는것인데 여기서도 알을 잘 낳지 않는 장닭(재래종닭)을 기를것이 아니라 알 잘 낳는 만경닭을 길러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닭공장에서 닭을 30~40일령짜리로 튼튼히 키워 협동농장들에 노나주도록 해야겠다고 하시였다. 닭을 농장에 보낼 때는 사료조건이 닭공장과는 다른만큼 농장의 사료조건에 적응되도록 사양관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이렇게 하여 농가마다 5마리씩 닭을 길러 닭알을 받아먹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커다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장들을 돌아보았다.

사로청원인 닭관리공 김보희동무가 손삽으로 서식장의 땅을 파헤치자 여기저기서 닭들이 달려왔다.

《쉬어-이것들이 삽을 드는 눈치만 보이면 멀리 있다가도 달려온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과 의의를 크게 느끼는 사람만이 나타내는 그런 표정이 맑은 미소속에 드러나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고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한없이 큰 사랑을 받아안은 관리공처녀-우리는 150여개의 실내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함과 22평방이나 되는 야외서식장이며 산기슭과 밭둑쪽에 300여평의 식물성먹이밭을 만들 어놓기까지 관리공들이 쏟아부은 정성과 충성의 땀을 리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숨덩이같이 하얀 만경닭들은 낫선 사람의 손에 밀리우면서도 지긋게 달라붙어 가마니를 헤친 서식장에서 날쌔게 먹이를 쫓아물곤했다.

《허어-닭이 이걸 몹시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알을 낳기 시작한 닭들은 더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닭먹이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강냉이짚알먹이도 만들고 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장도 만들고 식물성먹이밭도 조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닭이 하루에 동물성단백질먹이를 조금씩만 먹으면 알을 하나씩 어김없이 낳는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김보희동무는 닭들이 동물성단백질먹이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보다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알을 더 잘 낳는다고 했다.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료원천지를 틈틈히 마련한 이곳 농장에서는 매일 쏟아져나오는 닭알로 유치원어린이에게는 두알, 탁아소어린이에게는 한알씩 꼭꼭 먹인다고 한다.

정미소닭우리를 떠난 우리는 더없이 흐뭇한 마음을 안고 조상근농장원의 집을 찾았다. 마침 올해 예순아홉이 되는 김확실할머니가 닭우리옆에서 버짚으로 뜰을 엮고있었다.

돌지붕을 씌우고 말쑥하게 회벽칠을 한 닭우리, 살림집이면 이에서 더하랴싶게 알뜰하고 아늑하다. 닭우리앞에는 울을 둘러친축에 모래와 차돌가루, 조갑지가루를 담은 닭놀이더가 있고 닭우리옆에 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장이 꾸려져있었다.

그리고 집주변으로는 포기포기 정성을 들인 식물성먹이밭들이 조성되어있었다.

《그저 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루 했을 뿐이라우. 우리 집 이 다섯마리의 닭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웨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소. 우리 농장 집집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닭들이 알을 낳는다우. 참 꿈같은 세월이우다. 우리가 이렇게 도시부럽지 않게 2층문화주택을 쓰구살지,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있겠소. 기계루다 약으루다 농사를 지으며 호강을 하는데 글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닭까지 보내주시니 이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 하겠소.》

할머니의 눈곱엔 어느새 맑은 이슬이 피여올랐다. 아마 지난날 너무나 못살고 천대받던 나날들이 함께 떠올랐으리라.

《이것보우다. 또 알을 낳지 않았수. 이것들이 매일 세알씩은 놓지 않는다우. 내 이제야 아들, 손주들한테 닭알을 실컷 먹이게 되었수다. 이런 고마움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소. 닭을 길러두남을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먹지, 낳은 알두 우리가 먹는데... 글썄 제 잘사는 노릇을 가지고 뭘 잘한다고 이렇게들 와서 사진을 찍구 텔레비로 내보내구... 원 내 평생 살다가 이런 경사를 처음 당합네다.》

할머니는 마을앞벌에 수수나 조같은것을 심어

놓고 그것도 제대로 못먹어 도토리나 쫄뿌리, 송기로 끼니를 예워가던 지난날의 가난뱅이생활을 더듬으며 오늘의 눈물겨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1977년 1월 29일 이곳 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길로 하리협동농장으로 가시여 닭기르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곧 군농업부문일군협의회를 여시였다. 협의회에서 그이께서는 닭기르기를 잘할데 대하여 또다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걷고 걸으신 거룩한 자욱자욱, 우리는 한없이 숭엄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길을 다시금 돌이켜본다.

1930년대 피어린 투쟁의 나날, 두만강기슭 량수천자마을의 한 가난한 농민에게 닭을 사다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이도록 하라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셨던 돈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한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 닭기르는 농민의 마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며 닭을 잡아먹는 것보다 알을 내우는것이 얼마나 재미있소, 어서 식기전에 주인에게 가져다드리시오. 라고 하시며 갓 낳은 따뜻한 닭알을 보내주신 잊을수 없는 고산진을 생각한다.

전후의 그 어려운 나날, 오직 인민의 행복에서 모든 기쁨을 찾으시며 내 나이 50이 되도록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한게 한스럽다고 하시며 온 나라의 곳곳에 강력한 축산기지, 가금업기지들을 꾸려주신 아버지수령님. 그 위대한 사랑이 꽃피고 열매맺어 창성의 산언덕과 랑림의 봉우리마다, 백두고원과 화대의 산등판에 양떼와 젃소떼가 흐르고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 닭공장과 오리공장, 돼지공장이 일떠섰다.

아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사랑, 끊임없는 배려속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매 군과 로동자구마다에 현대적닭공장들이 꾸려져 위력한 고기생산, 알생산기지로 자라났다.

우리 인민의 생활이 더없이 풍족하고 운택한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못내 념려



하시여 오늘도 이름없는 농장을 찾으시며, 수수한 농가에도 들리시며 한없이 고귀한 사랑의 은정을 베푸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지 얼마후인 2월 13일 이곳 농장에는 사랑의 선물-만경답을 가득가득 실은 자동차행렬이 마을앞길을 메우며 들어왔다.

3,428마리의 만경답-귀중한 선물을 받아안은 농장원들의 가슴속에는 그대로 충성의 불씨가 심어지고있었으니 그날부터 농장원들은 사랑의 선물-만경답을 잘 길러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알을 많이 받아 생활을 더 유족하게 꾸리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한마리의 손실도 없이 알 잘 낳는 튼튼한 닭으로 자래우기까지의 나날은 그대로 충성심을 키우고 또 키운 뜻깊은 나날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시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두고 심려하시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또다시 찾아주실 때에는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우리 농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드리고 그이께 꼭 커다란 기쁨을 안겨드립니다.》

이것이 농장원들의 뜨거운 마음이었다.

닭기르기경험은 날과 더불어 축적되어 서로의 경험들이 진지하게 나뉘여졌다.

농가에서 닭우리 짓는 방법, 닭먹이만드는 방법, 겨울나이방법, 알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들이 새로 나왔다. 뜨거운 마음들이 정성이 되어 말 그대로 닭우리를 살림집처럼 알뜰히 꾸리었다. 그러니 닭인들 어찌 사람들의 정성을 몰라볼수 있겠는가?

충성의 노력은 드디어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농장마을엔 갑자기 닭알풍년이 들었다.

《이젠 닭공장 부럼지 않습다.》

《큰일이 있어도 무에 근심될게 있겠소. 그전날 제상에 놓기도 어렵던 닭알을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매일 먹으니 이보다 기쁜진 생활이 어디 있겠소.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우리 생활은 매일이 명절이지요.》

이곳 사람들은 과장없이 이렇게 말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

속에 문흥협동농장은 번영하고있다.

살기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참모습을 보시려거든 이리로 오시라! 만풍년의 기쁨 넘쳐나는 문흥협동농장에선 올해에 지난해보다 알곡분배도 훨씬 높아지지만 현금분배는 거의 두배이상을 넘으리라고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문흥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참으로 얼마나 행복하것인가!

닭들의 겨울나이준비로 틈을 엮는 70고령의 할머니, 만경답 기르기가 재미있다고, 인제는 닭에 정이 들었노라고 즐겨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저미소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참뜻을 생각하게 된다.

행복-그것은 다만 생활이 유족해서만, 받아안은 사랑이 커서만 이르는 말이 아닐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체험을 통하여 투쟁과 창조의 주인,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들의 참다운 가치를 깨달았다. 그들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서만 진정 삶의 보람이 있고 더욱 큰 행복이 있다는것을 너무나 똑똑히 체험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고 오늘의 행복을 노래부르며 보다 더 큰 행복이 약속되어있는 휘황한 래일을 위해 충성의 길을 달리고 또 달릴 결의에 충만된 농장원들, 그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올해의 850만톤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쫓기 위해 농장원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전투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커다란 흥분을 안고 문흥마을을 뒤에 남기며 돌포장길을 즐거이 걸었다. 어디라없이 뽕뽕이 내리쬐는 가을별은 따스하고도 명랑해보였다. 농장원처녀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부드러운 바람결에 실려왔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목숨도 바쳐가리 오직 한마음